

文學碩士 學位論文

朝鮮前期 慶尙右兵營 合浦城址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孫 成 源

2019年 6月

朝鮮前期 慶尙右兵營 合浦城址 研究

指導教授 姜 奉 遠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孫 成 源

孫成源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19年 6月

- 목 차 -

I. 머리말	1
1. 연구목적	1
2. 연구대상과 방법	4
3. 연구사	5
II. 합포성지의 입지와 변천	9
1. 입지환경	9
2. 변천과정	13
III. 경상우병영의 사료분석	21
1. 축조배경	21
2. 경상우병영의 운영	24
3. 경상우병영의 위치관계	30
IV. 발굴조사 현황	37
1. 1991년 합포성지 복원계획에 앞선 기초조사	37
2. 2004~2005년 마산 합성동 건물신축 조성부지 내 조사	40
3. 2016년 마산 합성1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부지 조사	43
4. 2016년 창원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로 확장구간 조사	44
5. 2017년 창원 합성초등학교 내 강당부지 조사	47
V. 성곽의 축성방법	49
1. 체성	49
2. 해자	58
VI. 축성시기	66
1. 출토유물의 검토	66
2. 문헌사료의 검토	72

VII. 맺음말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3

< 표 목차 >

표 1. 『高麗史』에 등장하는 경인(庚寅) 이후의 합포지역 일대 침략기사 …	22
표 2. 합포성지의 발굴조사 현황 ……………	37
표 3. 문헌사료에 기록된 경상우병영의 위치와 규모 ……………	74

< 그림 목차 >

그림 1. 합포성지가 위치하는 마산만 일대 위성사진 ……………	9
그림 2. 마산만의 舊해안선 ……………	10
그림 3. 대토양군에서 합포성지의 위치 ……………	11
그림 4. 합포성지의 지형과 단면도 ……………	12
그림 5. 항공·위성사진을 통해 본 합포성지의 변천과정 ……………	13
그림 6. 현 위성사진에 지적원도를 매칭한 합포성지 위치와 범위 ……………	14
그림 7. 현 지적도에 지적원도를 매칭한 합포성지 위치와 범위 ……………	14
그림 8. 지적원도에서의 합포성지 ……………	16
그림 9. 합포성지 내 가로구조(도로망) 교차형태 ……………	17
그림 10. 울산 경상좌병영 내 가로구조(도로망) 교차형태와 공해시설의 배치 …	19
그림 11. 19세기 진주성 내성(兵營)의 북장대(鎮南樓) 위치 ……………	20
그림 12.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년)에서 경상도병영의 이설 ……………	27
그림 13. 지승(地乘, 1776년)에서 합포성지 ……………	27
그림 14. 해동지도(海東地圖, 1776년)에서 합포성지 ……………	27
그림 15. 조선지도(朝鮮地圖, 1776년)에서 합포성지 ……………	28
그림 16. 동여도(東輿圖, 1861년)에서 합포성지 ……………	28
그림 17. 조선후기지방지도(朝鮮後期地方地圖, 1872년)에서 합포성지 ……………	28
그림 18.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 1873년)에서 합포성지 ……………	28
그림 19.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1832년)에서 합포성지 ……………	29
그림 20. 기존의 합포병영 이설과정 ……………	30
그림 21. 조선지형도(1916년)에서의 사율리와 상남리 ……………	32
그림 22. 1950년의 회원현성지 항공사진 ……………	33

그림 23. 1950년의 사율리 일대 항공사진	34
그림 24. 합포병영의 추정 위치와 이설경로	36
그림 25. 마산 합성동 73-4·18 유구배치도	38
그림 26. 마산 합성동 73-4·18 체성 외벽	38
그림 27. 마산 합성동 73-4·18 건물지	39
그림 28. 마산 합성동 73-10 치 전경	40
그림 29. 마산 합성동 73-10 치 기초석	40
그림 30. 마산 합성동 114-1 체성부 2트렌치 평면도	41
그림 31. 마산 합성동 114-1 체성 내벽부	42
그림 32. 마산 합성동 66-39 해자 전경	43
그림 33. 마산 합성동 66-39 해자 단면도	44
그림 34. 마산 합성동 72-6 해자 및 부석층 전경	45
그림 35. 마산 합성동 72-6 해자 호안석축	45
그림 36. 마산 합성동 72-6 해자 부석층 단면	46
그림 37. 마산 합성동 76-5 유구배치도	47
그림 38. 마산 합성동 76-5 해자 단면도	48
그림 39. 마산 합성동 76-5 해자 좌안석축	48
그림 40. 합포성지 북쪽 체성 외벽부	49
그림 41. 합포성지 북쪽 체성 내벽부	50
그림 42. 합포성지 북쪽 체성 내벽부 계단식 축성법	50
그림 43. 합포성지 북쪽 체성 내벽부	51
그림 44. 웅천읍성 북동쪽 체성부 단면도	52
그림 45. 웅천읍성 남쪽 체성부 단면도	53
그림 46. 웅천읍성 남쪽 체성부 내벽 토축내탁 단면도	54
그림 47. 울산병영성 북동구간 체성부 추정복원도	55
그림 48. 한양도성 체성 내탁부	56
그림 49. 합포성지의 발굴조사 현황과 초·증축해자 확인 지점	58
그림 50. 마산 합성동 66-39 증·개축 해자	59
그림 51. 마산 합성동 75-6 해자 단면	59

그림 52. 울산병영성 서문지에서 북문지 사이구간 채성부와 해자	60
그림 53. 울산병영성 서문지에서 북문지 사이구간 초축해자	61
그림 54. 밀양읍성 서문지 해자 증·개축 양상	62
그림 55. 밀양읍성 서문지 초축해자 지대석 설치	62
그림 56. 충남 해미읍성 해자 개축	63
그림 57. 울산병영성의 북동구간 해자 단면	64
그림 58. 마산 합성동 76-5 초축해자 내부 인위매립층	65
그림 59. 마산 합성동 76-5 초축 및 증축 해자	65
그림 60. 마산 합성동 76-5 초축해자 내 독립문양 출토기와	66
그림 61. 마산 합성동 73-10 치성 출토 종사선문 기와	67
그림 62. 종선에 'X'가 부가된 기와문양 출토 성곽유적	68
그림 63. 마산 합성동 76-5 초축해자 출토 어골문 기와	68
그림 64. 대전 상대동 출토 어골문 기와 변화양상	69
그림 65. 마산 합성동 76-5 초축해자 출토 선문기와	70
그림 66. 선문 I形 기와 출토유적	70
그림 67. 마산 합성동 76-5 출토 청해파문 기와	70
그림 68. 합포성지 발굴조사 출토유물 비교자료	71
그림 69. 합포성지의 초축과 증축시 평면형태 추정도	76

I. 머리말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조선전기(임진왜란 이전) 남해안의 왜구(倭寇)를 방비하기 위해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¹⁾가 주둔하며 군사 중심기지 역할을 하였던 경상우병영(慶尙右兵營)²⁾인 합포성지(合浦城址, 도유형문화재 제153호)에 대해 문헌사료와 지적원도 및 항공·위성사진, 고지도 등을 통해 그 위치와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합포성지의 체성부와 해자의 축성방법을 살펴보고 출토유물의 비교·분석과 문헌사료를 검토하여 그 축성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합포성지가 위치하고 있는 이 마산지역은 진해만, 고성만, 진주만 등의 만입부를 중심으로 하는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방파제 등의 구실을 하고 있어 양항(良港)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환경에 의해 고려현종대(1010~1031)에는 조운³⁾의 거점으로서 12조창(漕倉) 중 하나인 석두창(石頭倉)이 설치되어 경제중심지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

조선전기의 유학자인 양성지(梁誠之, 1415~1482)는 우리나라를 ‘東方城郭之國’⁴⁾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부터 조선시대까지 아주 많은 성곽을 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합포성지가 위치하는 남해안의 마산지역에는 5~7세기에 축성된 이산산성(鯉山山城, 도기념물 제52호), 당마산성(堂馬山城), 인곡산성(仁谷山城), 대산산성(大山山城)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사동리산성(社洞里山城)이 분포하고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 회원현성지(會原縣城址, 도기념물 제88호)가 축성되어 치소성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는데, 이후 고려말 이첨(李詹, 1345~1405)의 합포영성기(合浦營城記)⁵⁾를 통해 1378년(고려 우왕 4) 배극렴(裴克廉, 1325~

-
- 1) 조선시대 전국 각도에 배치된 도내(道內) 최고의 육군 지휘관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라 칭하며, 품계(品階)는 종2품이다.
 - 2) 조선전기 경상도지역의 병영은 동쪽의 울산과 서쪽의 마산에 각각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명칭에 있어 동쪽에 위치하는 울산의 병영을 경상좌병영(慶尙左兵營)이라 하고, 서쪽에 위치하는 마산의 병영을 경상우병영(慶尙右兵營)이라 칭하는 것은 당시 조선왕조의 ‘유교’적 예법이 왕이 바라보고 앉는 방향, 즉, 남면(南面:북쪽에 앉아 남쪽을 바라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 3) 조운(漕運)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조운’을 “국가의 생명선”으로 표현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부터 이 마산지역에 조창이 설치되었음은 이후의 국가 경제에 아주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 4) 『世宗實錄』 卷 3, 世宗 2年 3月 28日 丁酉條.
 - 5) 『新增東國輿地勝覽』 昌原都護府 關防條, 合浦城記.

1392)에 의해 축조된 합포영성이 축조되고 이후 1430년(세종 12) 최윤덕(崔潤德, 1376~1445)에 의한 합포지역 성곽 축성기사가 『朝鮮王朝實錄』에 다시 확인되기도 하여 이 일대에는 시대를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성곽축성사업이 강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산만에 인접해서는 합포진성이 자리하였던 것으로도 추정되기도 하며, 김해로 지나가는 길목에는 1477년(성종 8) 창원읍성이 축성되기에 이른다.

경상도는 1407년(태종 12) 경상도의 낙동강을 경계로 동쪽을 좌도(左道), 서쪽을 우도(右道)로 구분하였는데,⁶⁾ 그 배경은 당시 경상도의 영토가 넓고 인구가 조밀하기에 분도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⁷⁾ 그리하여 경상좌병영(慶尙左兵營)은 울산지역에 설치되었고, 경상우병영(慶尙右兵營)은 이 마산지역에 설치하여 경상도 군사체계의 중심지로서 활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상우병영은 임진왜란 이후 그 피해가 극심하여 병영의 수축이 힘든 까닭으로 1603년(선조 36) 진주로 병영을 이설하게 된다.⁸⁾ 따라서 조선후기(임진왜란 이후)의 경상도병영 소재지는 경상좌병영은 울산에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경상우병영은 진주로 이설하게 된다.

이러한 경상도 병영성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현재 경상좌병영인 울산병영성은 사적 제320호로 지정되어, 성곽의 복원·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과 역사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경상우병영인 진주성 역시 사적 제118호로 지정되어 진주성 내성은 복원·정비를 통해 진주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여 진주시민의 역사성을 고취시키는 아주 유용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강진의 전라병영성도 1997년 3월 전라병영성 복원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97년 4월 사적 제397호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부터 지속적인 발굴조사⁹⁾를 통해 전라병영의 역사성과 보존·보호관리를 계획·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이 여타 다른 성곽유적과는 달리 조선전기 경상우병영인 합포성지는

6) 『太宗實錄』 卷 14, 太宗 7年 9月 15日 乙丑條, “分慶尙道爲左右 以洛東洛西爲界”.

7) 『中宗實錄』 卷 36, 中宗 14年 5月 8日 更子條, “...(중략)...慶尙道 地大民衆...(중략)...”.

8) 『宣祖實錄』 卷 162, 宣祖 36年 5月 2日 丁巳條, “慶尙右兵營 旣難修築 則兵使以一道主將 當賊之地 一日不可苟度 前後看審形勢者 俱以矗石爲可當 故因監兵使狀啓 移設於晉州矣...(중략)...若設僉使 收聚鮑作 加募閑雜人 給與戰船一隻 使之待變 則極爲便當...(하략)...”.

9) 1991년의 학술조사를 비롯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6차례의 시·발굴조사, 2008년 동문지-7치 인근의 발굴조사, 2011년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2차례의 시굴조사와 6차례의 발굴조사로 총 15차례의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강진군·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재)한울文化財研究院, 2019, 『강진 전라병영성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관리』, pp. 7-8, 강진 전라병영성 학술대회

마산 합성동 73번지 일대에 성벽 80m의 체성부와 치성 1기 만이 복원되어 도 유형문화재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그 형체는 도시화로 인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조선전기 경상우병영인 합포성지는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요소인 ‘동네 애물단지’¹⁰⁾의 낡은 문화재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폄하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필자는 2017년 4월 합포성지 내에 위치하는 마산 합성초등학교 강당건립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¹¹⁾가 주어졌고,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합포성지의 초축해자를 발굴하게 되었다. 이 초축해자는 문헌기록과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원도 등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新자료를 획득하는 계기로 합포성지에 대한 역사성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우병영의 문헌사료를 통해 역사적배경과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원도》를 Data(Auto Cad)화 하여 수치지도 및 구글맵에 탑재시켜 현재의 시점에서 합포성지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여 향후 합포성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시 사전조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포성지의 체성과 해자에 대한 축조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포성지의 축성시기를 문헌사료와 비교·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는 합포성지의 원형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경상우도병영이 존재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살펴 합포성지의 역사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 경남도민일보에서 발행한 2017년 2월 27일 기사에 “복원 부실·관리 엉망 ‘동네 애물단지’ 합포성지”란 제목의 기사에서 인용하였다.

11) 손성원, 2018, 「마산 합포성지 내 합성초등학교 강당부지 유적」, 『제10회 연구조사발표회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pp. 249-264.

2. 연구대상과 방법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는 합포성지이다. 합포성지는 조선전기 경상우병영으로서 그 기능을 시작하였기에 『高麗史』에 등장하는 마산 합포지역의 시대적 상황을 문헌사료를 통해 검토해보는 것이 1차적인 연구로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新增東國輿地勝覽』 등 각종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합포성지와 관련된 사료를 정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고지도에 경상우병영을 살필 수 있는 각종지도를 검토해보고, 이후의 일제강점기에 측도된 지적원도를 비롯한 지도자료를 살펴 합포성의 구조와 형태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그 중 《지적원도》는 조선시대 성곽연구에 있어 가장 효용가치가 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¹²⁾ 따라서 1916년에 측도된 합포성지 일대의 종이지도(1/1,200)인 《지적원도》를 Cad화하여 도면상의 좌표점인 X, Y값을 현 지적도 및 구글지도에 탑재하여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였다.¹³⁾ 또한 해방전후(1950년)에 촬영되기 시작한 《항공사진》을 통해 점점 변화해가는 합포성지에 대해 추적해보고 《정밀토양도》에서 확인되는 특정토양의 이유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1991년(동아대학교박물관 조사) 이후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합포성지의 체성과 해자의 축성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연해지역의 성곽유적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해 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합포성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그 축조시기를 문헌기록과 함께 비교·검토하여 합포성지의 초축과 증축의 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12) 최원석, 2005, 「地籍原圖를 활용한 邑城空間의 역사지리적 복원:경상도 읍성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7.2:75-76.

13) 지적원도상에 기재된 X, Y값은 우리나라 지표면상 가상 원점으로 사용하는 Bessel 타원체의 동부원점 값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연구사

합포성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고고학적인 연구와 문헌사적인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합포성지가 위치하고 있는 마산지역에 대한 도사사적인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고고학적인 연구로는 심봉근(1992)¹⁴⁾에 의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그는 합포성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경험한 바를 토대로 체성부와 치성, 내부 건물지 1기를 소개하고, 체성부의 축조수법은 거제 고현성지나 울산병영성과 같은 내벽부를 계단식으로 축조하는 조선전기의 축조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합포성지의 명칭에 대해 문헌기록에서 우도병마절도사영성(右道兵馬節度使營城)이라 명시함에 따라 그 명칭에 있어 합포현치(合浦縣治, 회원현성지로 추정)와는 혼돈을 피해야 한다는 명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합포성지가 조선시대 연해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읍성과는 달리 병영성으로서의 기능이 있으므로 그 성격에 대해 인지하도록 전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그의 저서¹⁵⁾에 합포성지에 대한 발굴성고를 재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석축성은 고려 우왕 4년(1378) 배극렴에 의해 축성된 것은 아니며, 세종 12년(1430)에 최윤덕에 의해 개축하면서 석축성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일갑(2007)¹⁶⁾은 1991년 발굴조사 이후 2006년에 추가된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체성부와 치성의 축조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존에 해석하고 있던 체성부의 내벽부 축조방법을 계단식 축조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존에 축조된 체성부의 외벽에서부터 내벽으로 덧대어서 계단상으로 축조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축조수법은 초축시 체성부를 석성으로 축조하여, 그 폭이 3.5~4m 내외이나 이미 고려말부터 조선 세종초까지 비교적 이른시기에 축조된 성곽들로 그 평면플랜이나 축조수법에 있어 토성의 잔영이 남아 있는 조선전기 축조 석성과 고려말 토성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후의 체성부에 적용되는 내벽부의 계단식 축조수법은 웅천읍성을 예로 들어 16尺의 기저부 폭을 지키면서 각 단상의 높이를 30, 60, 90cm로 3의

14) 沈奉謹, 1992, 「馬山 玆山城址와 合浦城址에 대하여」, 『擇窩 許善道先生停年紀念論叢』, pp. 1075-1092.

15) 沈奉謹, 1995,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研究』, pp. 194-211, 서울:학연문화사.

16) 이일갑, 2007, 「마산 합포성지에 대한 소고-합포성지 치성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12:113-148.

배수로 물려 쌓고 있는 것으로 1434년 최윤덕이 건의한 축성규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여 이 체성부의 계단식 축성법을 2가지 형식(形式)으로 시기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합포성지에서 확인되는 계단식의 체성부는 1434년 그 이전부터 체성부의 축조시에 적용되었던 축조수법으로서 조선전기에 토성을 석축화 하는 판축부의 내·외면을 절개하여 석재를 덧대는 방법과 더불어 읍성 및 병영성의 또 다른 축조수법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또한, 합포성지에서는 2개소에서 치성이 확인되었는데, 1:1 비율의 정방형의 치성으로 2기 모두 체성부에서 덧대어져 축조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합포성의 경우 울산병영성과 함께 치성의 길이가 더 길게 축조되어 있으며, 수군절도사영성보다도 그 길게 축조되어 있어 이를 육군절도사의 상위계급의 진성일수록 치성의 길이와 너비가 크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1991년에 발굴된 합포성지 치성에 비해 2006년에 발굴된 치성은 하단부 주변에 판석재의 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앞서 발굴된 치성보다는 발전된 형태로 파악하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2007)¹⁷⁾에서도 합포성의 체성부 축조방법에 대해 합포성은 초축시 내외협축의 4m폭으로 성벽이 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1430년(세종 12) 내벽으로 계단상 덧대어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합포성 체성부의 계단식 축조법이 1434년(세종 16) 이전에 이미 성곽의 축성법에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합포성지의 체성 내벽부가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1417년 축성된 하동읍성과 합포성지가 1378년에 축성되었다는 문헌기록을 근거로 조선초의 성곽 개축방법에 기존의 체성부에 내벽을 덧대어 붙이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는 성곽의 체성부 평면형태와 축성기사를 단편적으로 판단하여 발생한 오류로 볼 수 있고 합포성지의 단면절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기존의 체성부가 폭 4m로 축성되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계단식의 내벽부가 덧대어져 설치되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기에 그가 주장하는 축성법은 현 합포성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용남¹⁸⁾은 합포성지의 체성부 축조방법은 지대석의 상면에 외벽 기반석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은 섞어쌓기의 방식이며, 내벽은 계단식으로 쌓은 것으로 1430년(세종 12)의 축성기사의 시기로 추정하였다. 그는 1443년(세종 25)년 이보흠(李甫欽)의 상소¹⁹⁾에 무오년(1438)에 성을 쌓는 새 도본이 반포된 이래

17) 李日甲, 2007, 「慶南地域 沿海邑城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8) 정용남, 2014, 「경남지역 조선시대 성곽 축조방법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성벽이 무너지는 폐해가 발행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체성 내벽의 상부에 토석 혼축하여 내벽에서 외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흙으로 다져 등성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이행하기 전에 축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상의 고고학적인 연구는 체성부와 치성에 대한 성곽의 축성법에 대해 문헌에 기록된 축성시기와 결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연해지역 읍성과의 축성 방법을 비교·검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문헌사적 연구로는 조선전기 경상우병영이 위치한 마산지역에 대해 고려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조선시대의 경상우병영에 대한 연구로는 감병훈(2013)²⁰⁾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조선전기 경상우병영이 설치되는 시점부터 1603년(선조 36)에 진주로 이설되기까지의 이설과정을 파악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시점에 경상우병영의 방위활동에 대해 살펴 병영이 어디에 소재하였으며 이 병영지역의 방위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김원규(2015)²¹⁾는 19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고지도에 합포성이 舊兵營, 古兵營으로 표기되어 있음은 현재 우리 스스로가 합포성의 가치를 폄하하고 축소하면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관방기구의 하나였던 합포성의 역사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합포성이 자리하는 마산 합포지역은 고려 말 5,000명에 달하는 군사들이 주둔할 만큼 전국적으로 중요한 거진으로 성장하였으나 왜구의 침탈로 이전의 병영은 파괴되었고, 1378년 새로 부임한 합포원수 배극렴에 의해 석축성으로 축조된 것이 현재의 합포성이다. 이 합포성은 임진왜란 직후 병영이 진주로 옮겨가기 까지 230년 동안 ‘병마절도사영성’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였고, 이 합포성은 18세기까지는 진성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문헌사적인 연구는 경상우병영인 합포성지에 대해 『朝鮮王朝實錄』에 등장하는 문헌사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리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도시사적인 연구로는 박희운(2000)²²⁾의 마산지역이 개항되기 이전의 도시형

19) 『世宗實錄』卷 102, 世宗 25年 11月 3日 甲寅條, “...(중략)...戊午年築城新圖頒降以後 官吏不達立法之意而守法之弊使之然也 其築城之法 以爲內面填石十六尺 其上作爲階砌 布以薄石者 蓋慮其專築泥土 則易至傾圯耳 初非有異意也...(하략)…”.

20) 甘炳訓, 2013, 「朝鮮前期 慶尙右兵營의 變遷過程과 防衛體制」, 경남대학교대학원 인문학과 역사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1) 김원규, 2015, 「합포병영성과 마산」, 『가라문화』 27:191-230.

22) 朴喜潤, 2000, 「開港以前 馬山市 都市形成 및 變化過程에 關한 研究」, 漢陽大學校 都市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성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는 마산지역이 고려시대 몽고의 일본 원정기지로 선택되었고, 그 총괄기지가 현 회원현성지(會原縣城址)에 설치됨에 따라 상업항구로도시로서 성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합포진(合浦鎭)이라는 수군진과 본 연구대상인 경상우병영이라는 육군영이 설치되었고 조선후기에는 이 마산지역이 원격지유통의 거점 상업포구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근대기 마산의 도시변화에 대해 역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허정도(2000)²³⁾의 연구가 있다.

이상의 도시사적인 연구는 근대기를 거쳐 마산이 현재와 같은 변화상을 거친 것으로 현재의 도시내부에 과거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살펴본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역사적으로 이 마산에 경상우병영인 합포성지의 변화상과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마산지역에 합포성지가 입지하게 되는 역사적 상황과 이 합포성지가 조선시대에는 경상우병영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그 과정과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조사된 합포성지의 축성방법과 축성시기를 밝혀보고자 한다.

23) 許正道, 2000, 「近代期 馬山の 都市變化過程 研究」, 蔚山大學校 大學院 建築學科 博士學位論文.

II. 합포성지의 입지와 변천

1. 입지환경

합포성지가 위치하는 마산지역은 마산만(馬山灣)이 아주 깊숙히 내만하고 있는 남해안에 연해 있으며, 내륙으로 진입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해로(海路)는 통영, 거제, 삼천포 등지와 연결되며, 특히 진해만 앞의 거제도를 지나 대한해협(大韓海峽)을 건너서 일본의 쓰시마(對馬島)섬과 단거리로 연결되는 국제교통의 주요지점이다.

이 마산지역은 북쪽의 천주산(해발 638m), 서쪽의 무학산(해발 761m), 동쪽의 팔용산(해발 328m) 등의 산지는 환상(環狀)구조로 펼쳐져 있으며, 산지 사이에 남서-북동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침식분지로 주변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한 곡저평야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육상지형의 조건에 의해 해안은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곳곳에 크고 작은 반도와 두각지 그리고 도서, 만입이 발달하여 외양(外洋)의 파도를 막아주므로 천혜의 양항(良港)을 갖추고 있다.<그림 1> 그리고 육상으로는 환상구조의 산지가 해안선과 평행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유로가 짧아 충적평야의 발달이 미약한 것이 합포성지가 위치하고 있는 마산



〈그림 1〉 합포성지가 위치하는 마산만 일대 위성사진(출처:구글지도)

지역의 특징이라도 할 수 있다.²⁴⁾

마산만의 舊해안선은 지금의 해안선보다는 더 높았으나, 마산만의 개항을 계기로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마산만 매축공사 이후 1970년대의 마산수출자유 무역지역 매립공사까지 지속적으로 해안선은 후퇴하게 되었다. 합포성지와 마산만 舊해안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2km이다. <그림 2>



<그림 2> 마산만의 舊해안선(한국문화연구원, 2017,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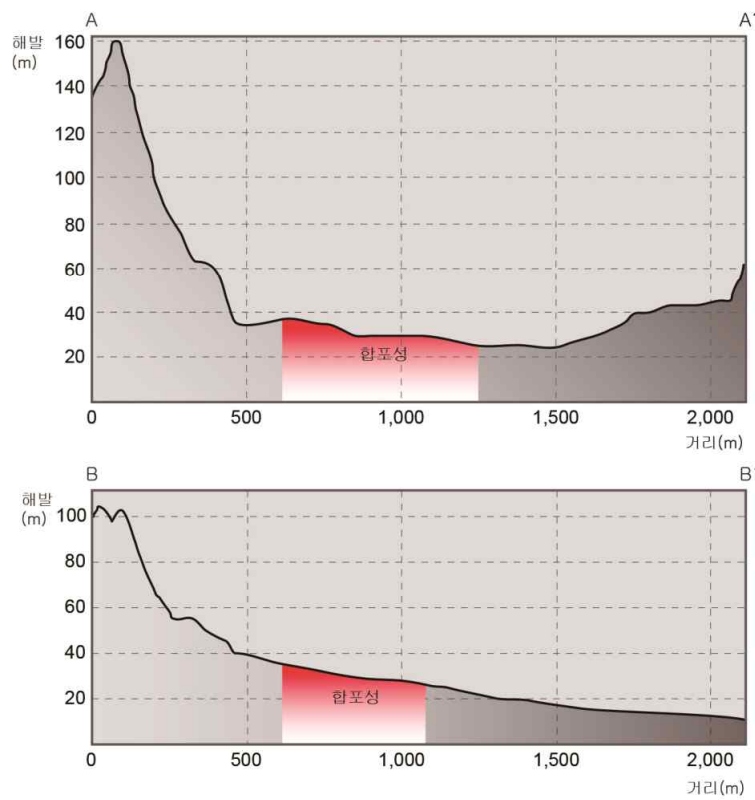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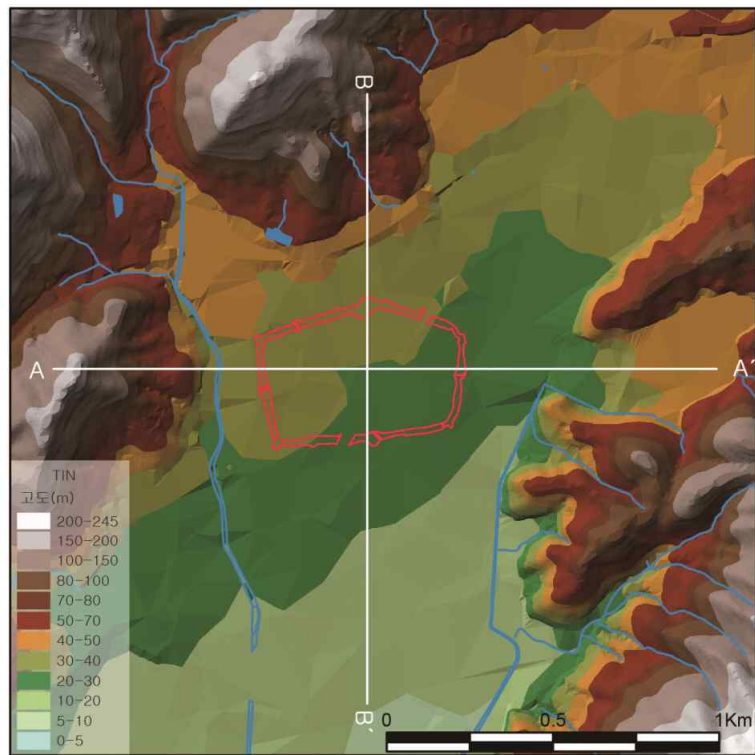
24) 馬山市史編纂委員會, 1997, 『馬山市史』, p. 46.

합포성지가 위치하고 있는 범위의 토양도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하천범람지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북쪽 체성의 중앙 돌출부에 적황색토가 분포하고 있다.



〈그림 3〉 대토양군에서 합포성지의 위치(농촌진흥청 영남작물시험장·농업기술연구소, 1976, 『정밀토양도(마산시, 진해시 및 창원군)』, s=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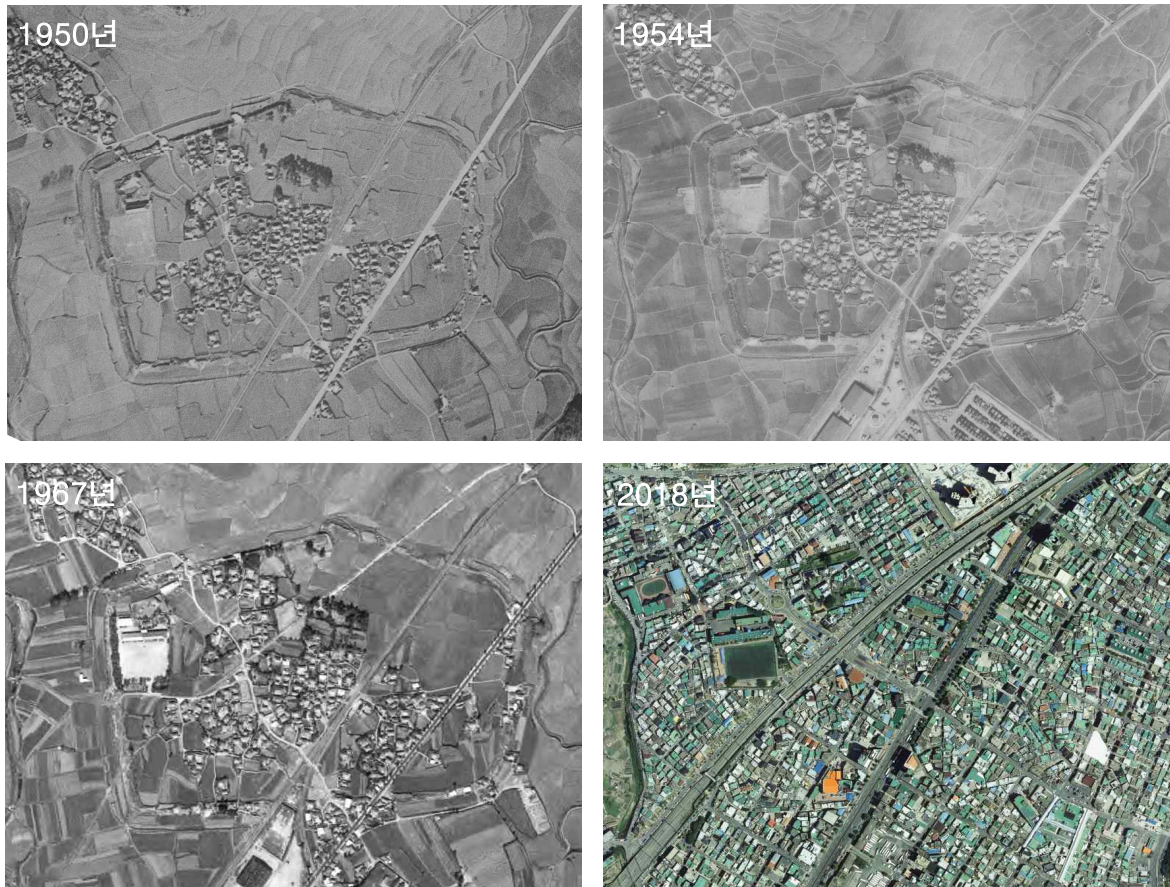
그리고 합포성지가 위치하는 지형의 고저차와 단면도를 살펴보면, 동-서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면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쪽이 지대가 가장 높고 남쪽으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긴 하나 큰 고저차를 보이지는 않는 평지에 입지하고 있는 평지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그림 4〉 합포성지의 지형과 단면도(Ti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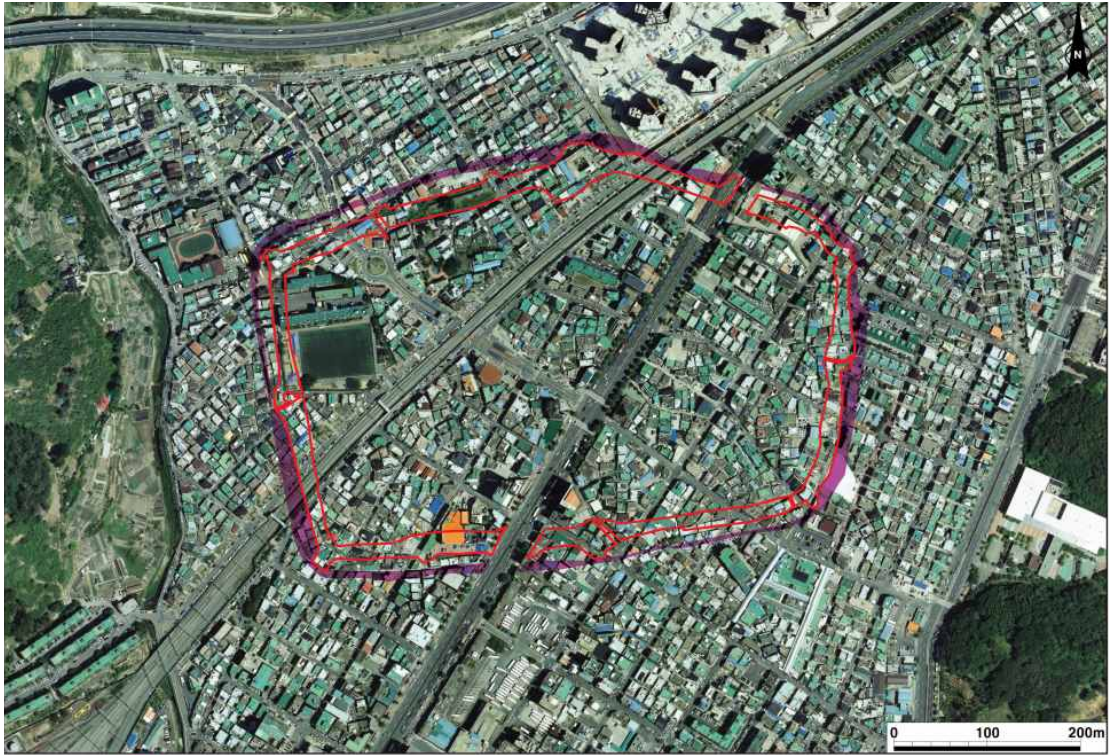
2. 변천과정

합포성지는 축성 이후 1602년(선조 36) 병영을 진주성 내로 옮김으로써 성의 기능이 쇠퇴하고 약 400년 동안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개항 이후인 1904~1905년 마산-삼랑진 간 철도개설과 1909년에 개설된 신작로가 성벽을 관통하여 지나가면서 성이 많이 파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포성지는 1916년에 제작된 《지적원도》에 그 형태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1950년부터 1967년까지의 위성사진에서도 성의 평면형태와 범위는 평면형태가 어느정도 명확히 구분된다. <그림 5> 그러나 결정적으로 1970년대 초에 조성하기 시작한 마산 수출자유지역 매립공사에 이 합포성의 성벽을 가져다 사용함으로써 그 원상이 완전히 파괴·소멸하였고 합포성지 일대는 급격한 도시화로 현재는 성곽의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²⁵⁾ <그림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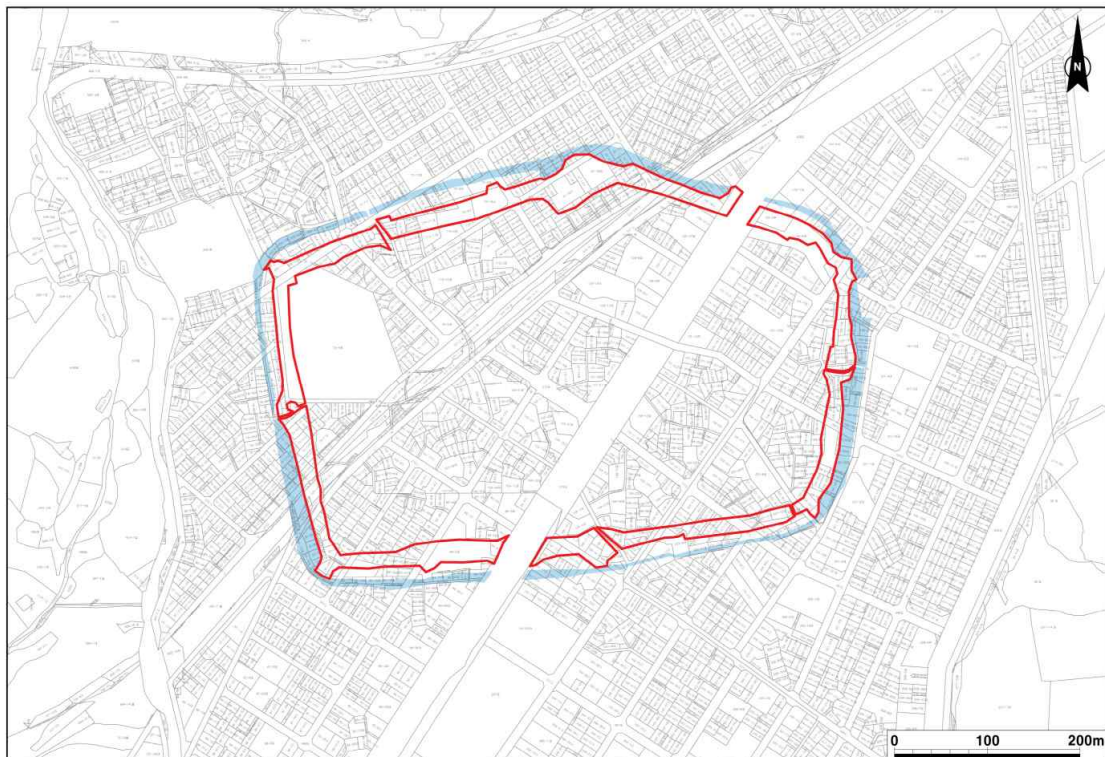


<그림 5> 항공·위성사진을 통해 본 합포성지의 변천과정(출처:국토정보지리원)

25) 경남대학교 박물관, 2010, 『馬山 合浦城址』, 정밀지표조사보고.



〈그림 6〉 현 위성사진에 지적원도를 매칭한 합포성지 위치와 범위



〈그림 7〉 현 지적도에 지적원도를 매칭한 합포성지 위치와 범위

1916년도에 측량된 《지적원도》에서 합포성지는 합성리(合城里)²⁶⁾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8> 이 합성리의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외성리, 석전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합성리라 칭하고 창원군 내서읍에 편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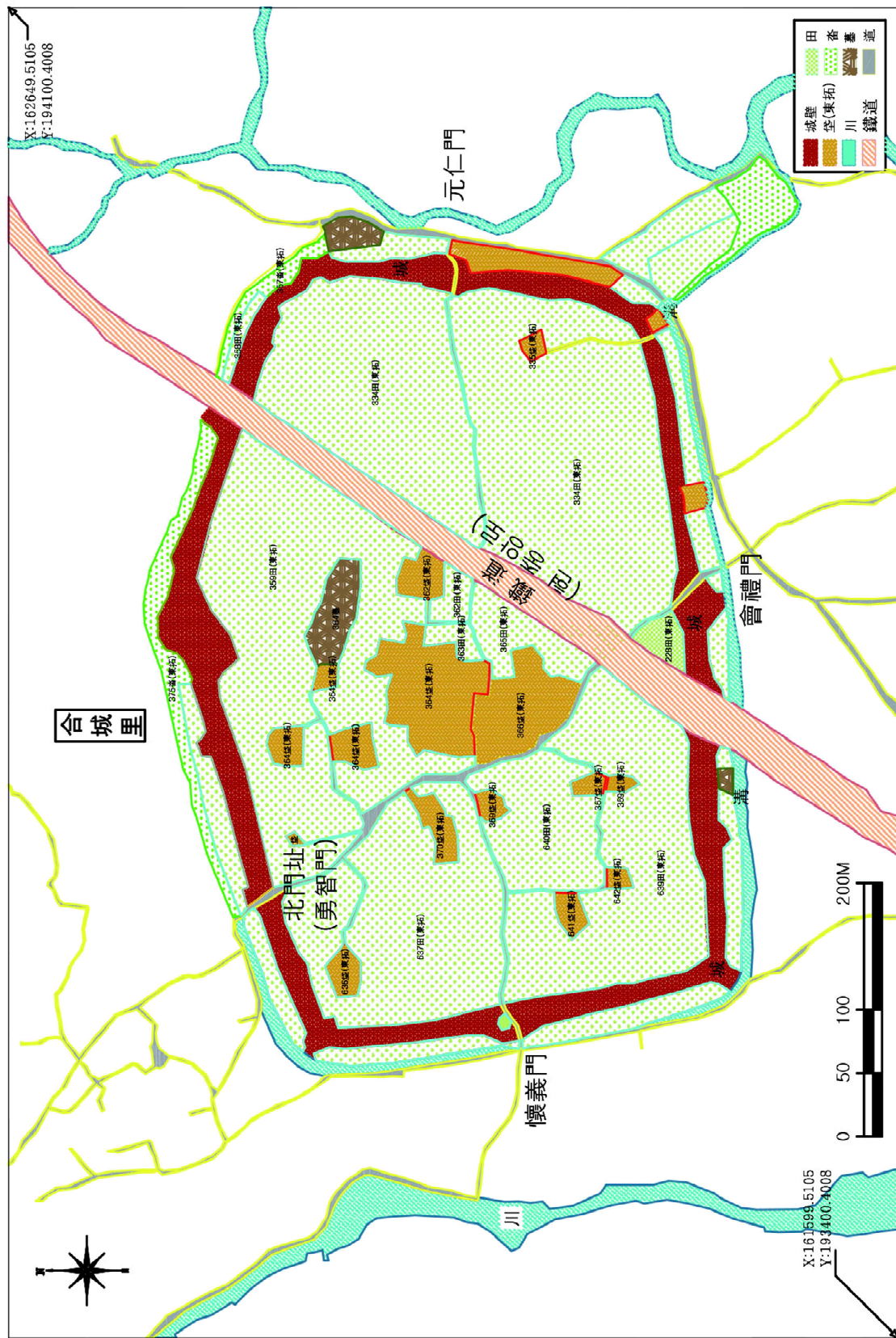
이 합성리 일대에 분할된 필지는 지목이 ‘성(城)’, ‘구(溝)’, ‘대(垜)’, ‘답(畓)’, ‘전(田)’, ‘묘(墓)’로 표기되어 있는데, ‘城’은 합포성지의 체성부, ‘溝’는 체성 외곽에 설치된 해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垜’는 성내 건물이 소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인데, 필지가 넓은 곳은 성내의 관아공간인 절도사의 업무영역과 객사 등 공해(公廨)가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체성의 평면형태는 북쪽 체성 중앙의 돌출지점을 기점으로 완만한 오각형(五角形)이다. 체성의 폭은 약 20~25m를 유지한다. 체성의 중앙에는 외벽보다 호상으로 약간 돌출된 지점이 체성변의 각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점으로 성내로 출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웅성을 가진 문지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쪽 체성 중앙부에 돌출된 지점은 내벽으로도 돌출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성내의 도로는 이 지점을 통하지 않고 서쪽으로 약 225m 이격되어 있는 북쪽 체성의 서쪽에 치우친 지점에 길이 형성되어 있어 특징적이다. 체성의 외부로는 방형의 돌출된 치성이 확인되는데, 사방의 각 모서리 성우(城隅)에 각 1개소가 배치되어 있고 북쪽 체성에 3개소, 남쪽 체성에 3개소로 모두 10개소의 치성이 확인되는데, 이 치성은 비교적 체성의 길이가 짧은 동쪽과 서쪽으로 배치되고 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溝’의 지목은 합포성지의 체성 외곽에 설치된 해자이다. 서쪽 체성 외벽에서 15~20m 거리를 이격하여 폭 10m로 확인되며, 북쪽 체성부 서쪽 끝지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어져 체성 남동쪽 모서리에서 동남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이지만, 동쪽과 북쪽 체성의 외부로도 해자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자로 의심되는 범위로는 ‘道’의 지목이 확인되어 해자의 외곽범위 경계는 추정이 가능하며, 북쪽 체성 중앙부의 돌출된 지점에서 동쪽으로는 ‘375畓’이 20m의 폭으로 체성과 평행하게 진행한다. 체성과 북쪽 체성의 외곽으로는 서쪽에서 이어져 오는 해자의 폭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는 ‘畓’의 지목이 확인되는데, 역시 해자선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동쪽과 동쪽의 체성 외곽으로

26)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昌原郡 內西面, 合城里 馬山府 內西面 合城里 外城里 石田里 各一部.



〈그림 8〉 지적원도에서의 합포성지(1916년 測度)

는 체성에서 20m 이하의 폭으로 ‘375畓’으로 지목된 지적이 체성과 동일한 진행방향을 가지며, 북동쪽 일부 구간에서는 체성과 사이에 ‘358畓’이 확인되는데, 이 지점은 해자와 체성 사이의 공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358畓’의 북쪽은 해자로 추정 할 수 있다.

성내의 가로(도로망)구조에 대해서는 어긋”T”자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림 9>



<그림 9> 합포성지 내 가로구조(도로망) 교차형태(어긋T)

27) 이 가로체계의 기준은 동서대로와 남북대로가 만나는 교차지점이 어떠한 형태를 갖추는가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가로체계에서 ‘+’자형은 경주읍성, ‘T’자형은 울산읍성, 어긋 ‘T’ 자형은 창원읍성이 그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아래의 도면은 권순강, 2018, 「경상도 남부지역 읍성의 축조양상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부록에 게재된 것을 인용하였다.

‘+’字形 가로	‘T’字形 가로	어긋 ‘T’字形 가로
경주읍성	울산읍성	창원읍성

남-북 가로는 남문으로 진입하여 북서쪽으로 향하는데, 남문로의 95m 지점 우측에 “366垵(東拓²⁸⁾)”가 위치한다. 이 “366垵(東拓)”의 후면으로는 “364垵(東拓)”와 동문로를 경계로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두 필지는 성내에서 대지가 차지하는 면적 중 가장 넓다. 또한, 이 두 필지의 앞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의 폭은 7m로 기본적으로 2~3m의 가로 폭을 유지하고 있는 여타 도로 폭보다는 넓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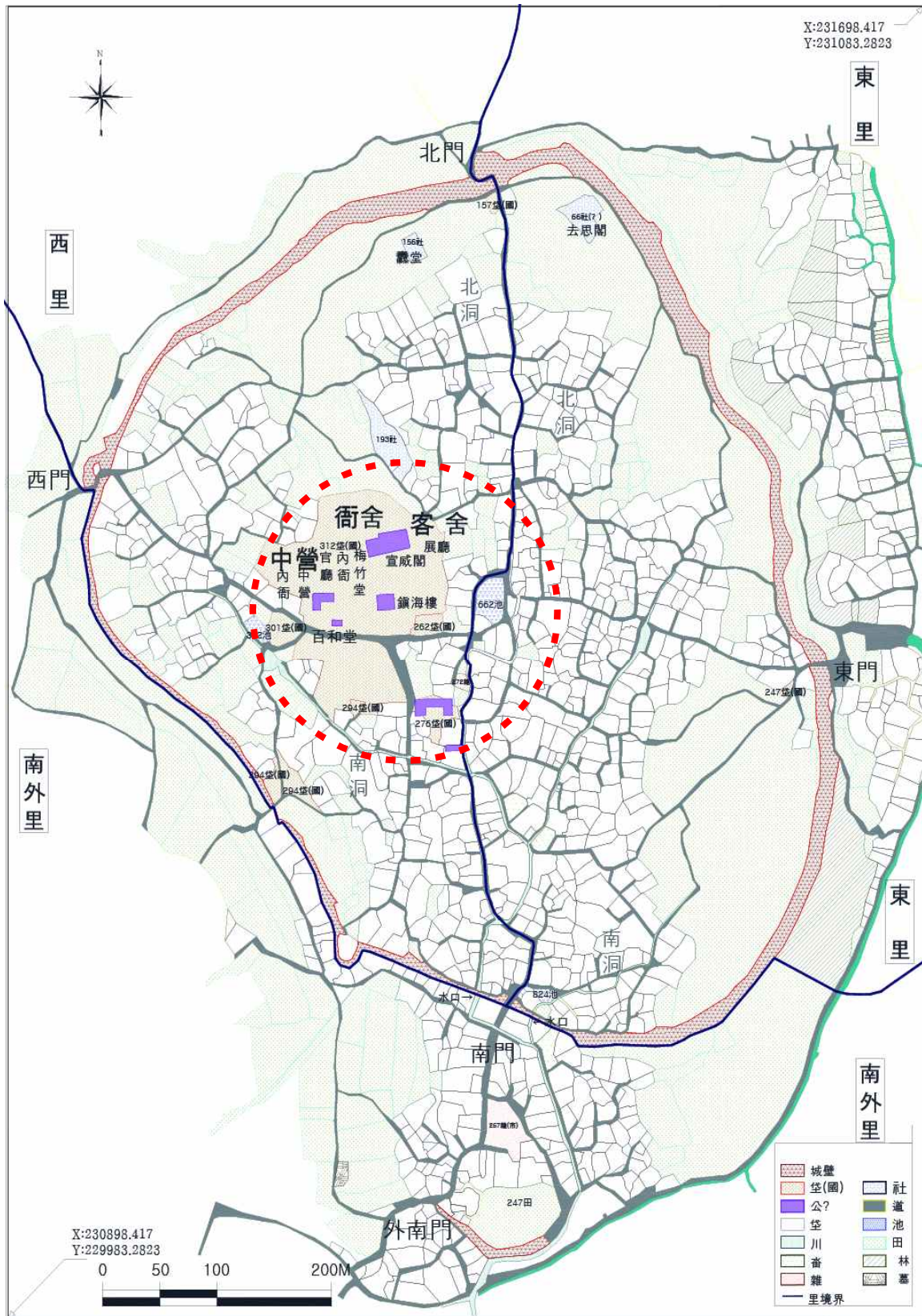
이는 경상좌병영인 울산병영성의 가로구조와 공해시설의 배치와 비교해 보면, 울산병영성 역시 함포성지와 동일한 어긋 “T”자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울산병영성 내 가장 큰 필지를 차지하는 “312垵(國)”의 남쪽으로는 서문로와 연결되는 남-북도로가 “T”자상으로 교차하는데, 이 남-북도로의 남쪽 끝 지점에는 “276垵(國)”이 위치한다. 성내 가로에서 이 국유지가 위치하는 이 일대의 도로폭이 성내 여타 도로 폭 보다는 넓은데, 그 중 “312垵(國)”의 정면에 남-북으로 조성된 이 도로의 폭이 약 10m로 가장 넓다. 이 가로의 폭이 가장 넓은 지점으로는 1917년의 지형도에 객사(客舍), 아사(衙司), 중영(中營) 등의 공해시설이 위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함포성지 내 가로의 중앙부 교차지점에서 각 문지까지의 직선거리는 북문 170m, 서문 180m, 남문 200m, 동문 375m로 동문이 가장 길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문지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보면 북체성의 서쪽으로 통하는데, 이 지점에 문지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재)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된 마산 합성동 72-6번지의 북서쪽 체성 외벽부와 해자 내벽 사이의 부석층 존재가 웅성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⁹⁾ 지금까지 문지로 추정되고 있는 북체성의 중앙부는 병영성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장대가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1895년의 기록인 『營誌』嶺南 左兵營府事例 公廨條에 “將臺(操練座起處)”라 하여 장대는 성내 최고집권자인 병마절도사의 집무를 보는 장소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경상우병영으로 기능한 진주성 내성에는 북장대의 위치가 지형상 가장 높으며, 주위를 조망할 수 있는 요지를 선점하여 북장대가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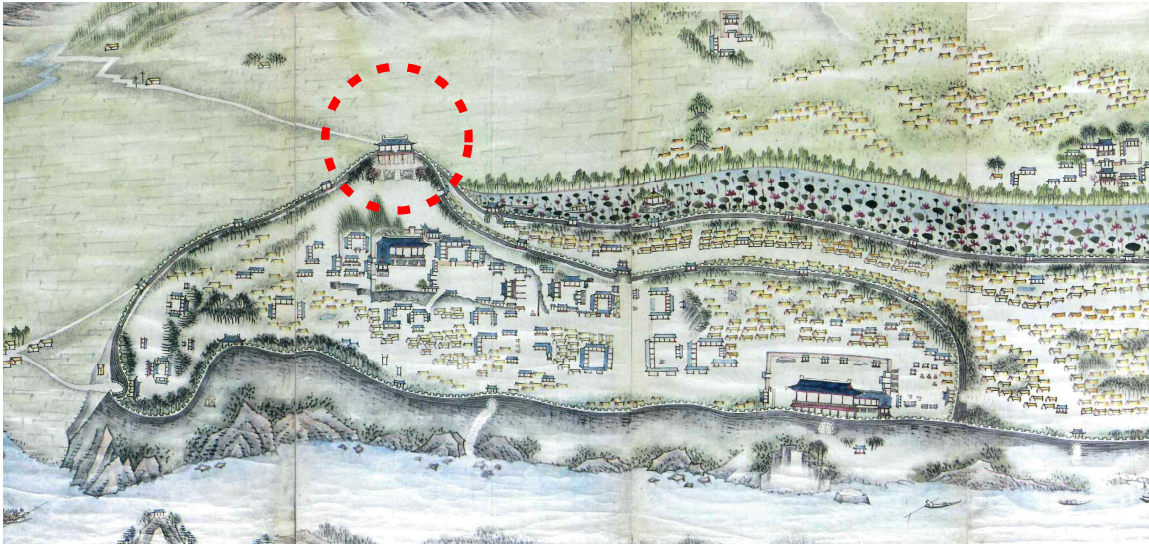
28)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는 1908년 12월 18일에 설립된 일본의 기업으로, 일본 제국이 조선의 경제 독점과 토지·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세운 국책회사이다. 간단히 줄여서 동척(東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출처:위키백과사전>

29) IV장의 발굴조사 현황 참조.



〈그림 10〉 울산 경상좌병영 내 가로구조(도로망) 교차형태와 공해시설의 배치(●)

이는 합포성지의 북쪽 체성의 중앙부가 가장 높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합포성지의 북쪽 중앙부가 돌출된 지점과 이 적황색토의 분포가 일치하고 있는 점은 병영성의 기능 중 중요도가 높은 장대(將臺)와 같은 시설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⁰⁾ 이는 진주성의 북장대 위치 역시 북쪽 지대가 가장 높은 지점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그림 11>



<그림 11> 19세기 진주성 내성(兵營)의 북장대(鎮南樓) 위치(●)(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소장본)

30) 현재 여타 학술자료 및 보고서 등에는 합포성지의 북문지를 북체성의 중앙 돌출부로 비정하고 있지만, 1916년의 지적원도에서도 남문에서 북문으로 통하는 길이 북체성의 서쪽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형과 토양도 등을 고려하면 북문지는 북체성의 서쪽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문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림 8>의 지적원도에 필자가 비정하는 위치를 표시해 두었다.

Ⅲ. 경상우병영의 사료검토

1. 축조배경

조선초 연해읍성(沿海邑城)의 축성과 더불어 하삼도(下三道)³¹⁾의 병영(兵營)도 내지에서 연해지역으로 전진배치하여 조선전기에 국방의 경계태세를 갖추었는데,³²⁾ 그 중 유일하게 마산 합포(合浦)³³⁾의 병영은 동일지역에 계속 그대로 유지된 채로 기능을 하였다.³⁴⁾

이는 고려말 연해지역으로 자주 출몰하는 ‘왜구(倭寇)’가 이 합포지역으로 침구(侵寇)한 사례가 가장 많기도 하며, 당시 왜구의 중심거점 지역이 쓰시마(對馬)와 큐슈(九州)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이 합포지역은 고려시대 왜구 방비의 최대중점지였을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 12조창(漕倉) 중 하나인 석두창(石頭倉)이 합포지역에 설치되어 조세운송의 중심지였다.³⁵⁾ 따라서 당시 왜구의 침략목적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곡(米穀)이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조창이 설치되어 있는 이 마산의 합포지역은 지리적으로나 목적상으로도 그 대상에 해당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사료상에 처음으로 왜구가 등장하는 것은 1223년(고종 10) 왜구가 김해를 침략한 기사인데,³⁶⁾ 본격적으로 왜구의 침략이 나타나는 것은 1350년 2월부터로,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등에서는 1350년이 경인(庚寅)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의 왜구를 ‘경인 이후의 왜구’라고 기록하고 있다.³⁷⁾

31) 『朝鮮王朝實錄』에 하삼도(下三道)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다.

32) 경상좌병영은 경주에서 울산, 전라병영은 광주에서 강진, 충청병영은 덕산에서 해미로 이설되었다.

33) 합포(合浦)의 지명은 신라 경덕왕 16년(757) 군현의 개편에 따라 이전까지 사용되어 오던 골포현(骨浦縣)을 합포현(合浦縣)으로 개칭하였으며, 의안군(義安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그리고 충렬왕 8년 원나라 세조의 동정(東征)에 기여한 공을 높이 여겨 다시 이름을 회원(會原)이라 고치고 현령(縣令)으로 삼았다.

『高麗史』卷 57, 志 卷第11 地理2, “合浦縣 本新羅骨浦縣 景德王 改今名 爲義安郡領縣 顯宗九年 來屬 後置監務 忠烈王八年 更名會原 陞爲縣令 以賞元世祖東征供億之勞 別號還珠 有月影臺”.

34) 劉東鎬, 2014, 「朝鮮後期 地方軍制의 變化와 下三道 兵營 運營」, 忠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 14~15.

35) 朴喜潤, 2000, 앞의 논문, pp. 22~25.

한정훈, 2004, 「고려시대 漕運制와 마산 石頭倉」, 『한국중세사연구』 17:44~45.

석두창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정훈은 조창의 입지조건이 發船장소는 해안가에 위치하지만 부속 창고시설은 야산이나 구릉지에 조성되어야 하기에 연안에서 내륙쪽으로 더 들어오는 현 마산야구장이 위치하는 반월산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월산 일대는 퇴적물의 공급이 많은 곳으로 조창부지로는 적절치 않으며, 용마산 일대의 산호동에 조창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산호동의 서남쪽으로 고려시대의 회원현성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36) 『高麗史』卷 22, 高宗 10年 5月 甲子條, “倭寇金州”.

37) 李領, 2004, 「고려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104.

『高麗史』에 등장하는 경인 이후의 왜구가 이 합포지역 일대에 침략한 기사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高麗史』에 등장하는 경인(庚寅) 이후의 합포지역 일대 왜구 침략기사

시 대		침 략 기 사	
연도	왕정	세 부 내 용	지 역
1350	충정왕2	왜선 20여척이 침입하여 병영, 군을 불사름 ³⁸⁾	합포진, 고성, 회원
1352	공민왕2	왜적의 배 50척이 침입 ³⁹⁾	합포
1364	공민왕13	도순문사(都巡問使) 김속명(金續命)이 왜적 3,000명을 진해현에서 물리침 ⁴⁰⁾	진해현
1373	공민왕22	도순문사(都巡問使) 홍사우(洪師禹)가 수백급의 왜적 머리를 베고 노획한 병장기를 바침 ⁴¹⁾	귀산현(龜山縣)
1374	공민왕23	왜적 배 350척이 침범하여 군영과 병선을 불사르니 죽은 사졸이 5,000명임 ⁴²⁾	합포
1376	우왕2	왜적이 침입하여 죽이고 노략질 하여 거의 다 휩쓸 ⁴³⁾	진주반성현, 울주, 회원, 의창 등의 현, 밀성군, 동래현
		왜적이 합포영을 불사르고, 현을 무찌르고 불살랐다. ⁴⁴⁾	합포영, 울주·양주·의창·회원·함안·진해·고성·반성·동평·동래·기장 등
1377	우왕3	품미(品米) 약탈 ⁴⁵⁾	회원창
1379	우왕5	원수(元帥) 우인열(禹仁烈)이 화살에 맞아 부상, 우리 군의 사상자 80명 ⁴⁶⁾	합포

그 중 1374년(공민왕 23)의 기사에 “왜적 배 350척이 침범하여 군영과 병선

38) 『高麗史』卷 37, 忠定王 2年 6月 丁酉日, “倭船二十數 寇合浦焚其營 及固城會原諸郡”.

39) 『高麗史』卷 38, 恭愍王 元年 9月 壬申日, “倭船五十餘數 寇合浦”.

40) 『高麗史節要』卷 28, 恭愍王 13年 5月 “慶尙道都巡問使金續命 擊倭三千 於鎮海縣 大破之 獻捷 王賜衣酒金帶 爵戰士有差”.

41) 『高麗史節要』卷 29, 恭愍王 22年 2月, “倭寇龜山縣 慶尙道都巡問使洪師禹 斬首數百級 獻獲器仗”.

42) 『高麗史』卷 44, 恭愍王 23年 4月, “倭船三百五十艘 寇合浦 燒軍營兵船 士卒死者 五千餘人 遣趙琳誅都巡問使金鉉 支解以徇諸道”.

43) 『高麗史節要』卷 30, 禡王 2年 11月, “倭寇晉州溟珍縣 又焚掠咸安·東萊·梁州·彥陽·機張·固城永善等處”.

44) 『高麗史節要』卷 30, 禡王 2年 12月, “倭焚合浦營 屠燒梁·蔚二州及義昌·會原·咸安·鎮海·固城·班城·東平·東萊·機張等縣”.

45) 『高麗史節要』卷 30, 禡王 3年 春 正月, “倭盜會原倉品米 時以餉不足 全州郡隨職品出米 癒着 謂之品米”.

46) 『高麗史節要』卷 31, 禡王 5年 夏 4月, “倭寇合浦 元帥禹仁烈戰却之 斬四級 仁烈中矢 我軍死傷者八

을 불살랐고, 죽은 병사가 5,000명에 이르렀다. 이에 조림(趙琳)을 파견하여 도순문사(都巡問使) 김횡(金鉉)의 목을 베고 그 팔다리를 찢어 여러 도에 돌리게 하였다”는 기사는 왜구의 침략 기사 중 최대규모로 단행되었고, 그 피해 또한 막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에 소실된 군영(軍營)을 새로 재건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합포영성(合浦營城)으로 생각된다.

이는 『東文選』 47)에 기록되어 있는 이첨(李詹, 1345~1405)의 「합포영성기(合浦營城記)」에 축성배경의 시점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처음에 설치하였던 영(營)이 병란(兵亂)에 불타 군사는 한데서 거처하였고, 문하평리(門下評理) 조공(曹公)이 영을 설치할 곳을 살펴서 좋은 터를 잡았다. 丁巳(1377)년 봄에 지문하사(知門下事) 우공(禹公)이 그 지역에다가 경영하였으나, 마치지 못한 채 소명(召命)을 받고 서울에 돌아갔고, 경산(京山) 배공(裴公)이 부원수(副元帥)로써 대신 진수(鎭守)하게 되었다. 도임(到任)하여서는 군영(軍營)을 수축(修葺)하였다.··(중략)··배극렴이 말하길, 지난 4년 동안에 영을 4번이나 옮긴 것은 영 바깥쪽에 성곽이 없었다고 하며, 성의 기초는 그해에 완성하였고, 다음 해인 1378년(戊午) 가을 9월에 갑신(甲申)일에 시작하여 겨울 11월 무인(戊寅)일까지 성을 완성하였다.”하고 있다.

따라서 합포영성은 <표 1>의 왜구침략 기사와 같이 1374년(공민왕 23)에 일어난 대규모의 침략으로 이 합포지역의 병영은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지만, 이 합포지역은 당시 중요한 물류기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으므로 고려조정에서도 조민수(曹敏修), 우인렬(禹仁烈), 배극렴(裴克廉) 등을 파견하여 합포지역 병영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꾀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문헌기록을 살펴본 결과, 고려시대 이 합포지역에는 병영이 소재하고 있었고, 극심한 왜구의 침구로 인해 병영은 수차례의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말 왜구의 침구로 인해 병영이 소실된 이후 1378년 합포지역에 새로 부임한 부원수 배극렴(裴克廉)이 왜구의 침략을 굳건히 방비하고자 합포병영을 이설하여 설치하였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경상우병영이 위치하게 축성되며, 이후 조선시대에도 병영의 수·개축 등의 축성 기사가 확인된다.

十餘人”.

47) 『東文選』은 1478년(성종 9) 성종의 명으로 서거정(徐居正)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역대 시문선집이다.(출처: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 경상우병영의 운영

경상우병영은 주재하는 지휘관의 직위의 변동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게 되는데, 1389년(공양왕 원년)에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도절제사(都節制使)로 개칭됨에 따라 조선 태종(太宗) 이전까지는 경상도도절제사영(慶尙道都節制使營)으로 불렸다. 각도에 도절제사를 파견하여 지방군을 운영하고 파악했던 것은 조선왕조의 지방통제력의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도절제사의 파견은 지방군사제도 형성의 시발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⁴⁸⁾

그러나 1397년(태조 6) 각도의 병마도절제사를 파하고 각 진(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는데, 소속인 부근 고을의 병마(兵馬)를 거느려 수어(守禦)에 대비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⁴⁹⁾ 이와같은 폐영설진(廢營設鎭)에 따라 이 합포지역도 도절제사영(都節制使營)이 혁파되고 첨절제사진(僉節制使鎭)을 설치하였으나, 이듬해인 1398년(태조 7) 다시 도절제사가 복설되었다. 이러한 경위로 보아 이 합포지역에는 영(營)의 통솔하에 진(鎭)이 설치되어 수군과 육군이 공존하는 군사체제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합포영성(營城)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그 존재를 인지할 수 있으나, 합포진성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적원도》에서 현재의 마산합포구 창동일대의 지명이 중성리(中城里), 서성리(西城里), 동성리(東城里), 성산리(城山里), 성호리(城湖里) 등의 성곽과 관련된 지명이 확인되며, 추정 성곽라인도 어느정도 가늠이 가능하여 그 위치와 범위를 마산합포구 창동일대로 비정하고 있기도 하다.⁵⁰⁾ 이 합포진에는 이후 주전소(鑄錢所)를 설치하여, 부근 각 포에 있는 병선(兵船) 1척마다 각기 기술이 있는 자 3, 4명씩을 차출하고, 아울러 영(營)의 수성군까지 동원해 각 불무(冶) 15개를 설치해 수시로 주조하기도 하였다.⁵¹⁾

1407년(태종 7) 경상도는 영토가 방대하고 인구가 조밀하여 낙동강을 경계로 동쪽을 좌도(左道), 서쪽을 우도(右道)로 분도정책을 실시하였다.⁵²⁾ 이에 따

48) 吳宗祿, 1985, 「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上, 『震檀學報』 59:82.

49) 『太祖實錄』 卷 11, 太祖 6年 5月 21日 壬申條, “罷各道兵馬都節制使 置各鎭僉節制使 率所屬附近州兵馬 以備守禦…(중략)…慶尙道四鎭 合浦 江州 寧海 東萊…(하략)…”.

50) 朴喜潤, 2000, 앞의 논문, pp. 89-94.

51) 『世宗實錄』 卷 23, 世宗 6年 2月 7日 癸丑條, “…(중략)…臣願鼓鑄之所 分爲左右邊 一置右道合浦鎭 一置左道蔚山鎭 附近各浦兵船每一隻 各出有巧性者三四名 竝留營守城軍 則人數可至數百名矣 於是 各設十五冶貫 四時而不輟 役使有制 監督不怠 則一日所鑄…(하략)…”.

52) 『太宗實錄』 卷 14, 太宗 7年 9月 15日 乙丑條, “分慶尙道爲左右 以洛東洛西爲界”.

라 1408년(태종 8) 계림안동도(雞林安東道)와 진주상주도(晉州尙州道)라는 명칭으로 좌·우도에 각각 1인의 전임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를 따로 두게 되었다.⁵³⁾ 1412년(태종 12)에 경주의 좌도절제사(左道節制使) 소속군마를 파하여 합포진에 속하게 하였다.⁵⁴⁾

1425년(세종 6) 경상좌도(慶尙左道)의 울산지역에는 군(軍)과 민(民)이 고려 시대의 구읍성에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울산의 관리와 백성이 말하기를 이미 울산에 내상(內相)이 크게 수축되어 있으니, 경상우도의 예와 같이 하여 절제사는 군사를 거느리고 새성에 있게 하고 군수는 구읍의 성에 있게 하여 예전대로 군(軍)과 민(民)을 분리하여 다스리기에 편하도록 하기를 건의 하지만, 조정에서는 구읍성에 거주하는 관리와 백성을 새성으로 옮겨 살게 하고 절제사는 구읍성에 머물러 방비를 갖추도록 하였다.⁵⁵⁾ 이로보아 당시 경상우도는 병영과 읍치가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26년(세종 8) 경상도에 가설(加設)되었던 좌도병마도절제사(左道兵馬都節制使, 현재의 울산병영성)가 정부와 육조(六曹)의 논의에 따라 혁파되었고⁵⁶⁾, 이해(1426)에 좌도병영이 우도병영이 있던 합포에 합속되는데,⁵⁷⁾ 이때는 이 경상도지역의 병영은 이 합포영성이 그 기능을 총괄하여 경상도의 거점병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합포에 병영이 집중되어 있던 1430년(세종 12)에 최윤덕(崔潤德)은 합포 등 축성공사를 시작하였지만,⁵⁸⁾ 1431년(세종 13) 합포의 축성이 지연되어 연일현의 군이를 보내기로 결정까지도 하였는데,⁵⁹⁾ 1432년(세종 14)까지도 합포의 축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경상도 감사 조치(曹致)를 파면되기에 이른다.⁶⁰⁾ 이 최윤덕에 의해 축성되는 이 성이 바

53) 『太宗實錄』 卷 16, 太宗 8年 7月 17日 癸亥條, “…(중략)…雞林安東道 尙州晉州道 全羅道 忠淸道 東西北面都巡問使各十人…(하략)…”.

54) 『太宗實錄』 卷 23, 太宗 12年 2月 14日 己巳條, “以曹備衡爲慶尙道兵馬都節制使 罷左道節制使所部軍馬 并屬合浦鎮”.

55) 『世宗實錄』 卷 30, 世宗 7年 10月 18日 癸未條, “…(중략)…蔚山吏民以爲 若郡合入內廂新城 則守令吏卒 朝夕祇謁元戎 無時支對使客 不唯廢事 供億爲難 乞依右道例 節制使領軍處新營城 郡守處於舊邑城 依舊分治軍民爲便…(중략)…蔚山邑城居住吏民 並移處新營城 而節制使領軍馬 戍於舊邑城 如有賊變 或合入新城固守 或出兵追賊 臨時應變可也”.

56) 『世宗實錄』 卷 34, 世宗 8年 11月 6日 乙未條, “…(중략)…議慶尙道加設兵馬都節制使…(중략)…宜革左道兵馬都節制使…(하략)…”.

57) 『慶尙道續撰地理誌』 蔚山郡 關防條, “…(중략)…合屬右道合浦…(하략)…”.

58) 『世宗實錄』 卷 50, 世宗 2年 12月 29日 乙未條, “都巡問使崔閔德 監築慶尙道 延日 昆南 蛤浦…(하략)…”.

59) 『世宗實錄』 卷 54, 世宗 13年 10月 13日 甲辰條, “…(중략)…延日縣則舊城猶完…(중략)…合浦則都節制使本營一方巨鎮 昆南則新設邊鎮 不可不築 請移延日之軍 赴合浦 昆南 迨冰未凍畢築…(하략)…”.

60) 『世宗實錄』 卷 55, 世宗 14年 1月 5日 乙丑條, “慶尙道監司曹致罷 以築合浦昆南延日城稽緩也”.

로 현재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위치하는 합포성지로 추정된다.

이후 경상좌도병영이 합포로 옮겨 온지 10년이 되는 1436년(세종 18)이 되면 다시 울산 복설이 이루어져,⁶¹⁾ 병영은 경상 좌·우도로 다시 분리 설치되어 운영하게 된다.

1451년(문종 1)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 정분(鄭本)이 각 고을의 성자(城子)가 당초 법식에 따라 쌓지 않아 규식에 맞지 않다 하여 개축(改築)할 고을과 추후에 축조해야 할 고을을 계문하였는데, 그 때 창원의 내상성(內相城, 합포성지)은 그대로 둘 곳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규식에 맞게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창원부 내상성(內相城, 현 합포성지)은 둘레가 3,775척, 높이 12척 6촌, 여장(女牆)의 높이는 1척 8촌이며, 적대(敵臺)는 12개소, 문(門)이 4개소이며 웅성(甕城)이 있고 여장은 635개이며, 해자(海子)의 둘레는 4,060척이고 성안에는 우물이 7개소 있다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⁶²⁾

이후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에 따라 병마절제사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개칭⁶³⁾하게 됨에 따라, 이 합포성지는 병마절도사영성으로 불리어지게 된다. 1603년(선조 36) 5월 이전 창원의 경상우도병영은 양난에 의해 병영이 수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한 도(道)의 주장(主將)을 하루라도 구차하게 둘 수 없기에 진주로 병영을 이설하여 병사는 이미 옮겼지만 그 병영에 소속된 포작인들까지 옮기는 것은 마산포(馬山浦)에 수어(守禦)하는 장수가 없으니 합포에 첨사(僉使)와 포작인(砲作人)을 두고, 주변의 한잡인(閑雜人)을 더 모집하여 전선(戰船) 1척을 두고 변란에 대비토록 하였다.⁶⁴⁾

따라서 조선전기 마산에 위치하였던 경상우병영은 임진왜란 이후 진주성 내로 병영을 이설함에 따라 조선후기의 경상우병영은 진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합포성지는 고지도상에 고병영(古兵營), 구병영(舊兵營), 구병영(旧兵營)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12~17·19> 1873년에 일본에서 제작

61) 『世宗實錄』卷 75, 世宗 18年 12月 27日 戊子條, “... (중략) ...蔚山鎮乃曩日左道本營 今宜別置都節制使 仍於蔚山置營 如右道合浦之例... (하략) ...”.

62) 『文宗實錄』卷 9 文宗 1年 9月 5日 更子條, “... (중략) ...昌原府內廂城 周回三千七百七十五尺 高十二尺六寸 女牆高一尺八寸 敵臺十二 門四有擁城 女牆六百三十五 海子周回四千六十尺 城內井七... (하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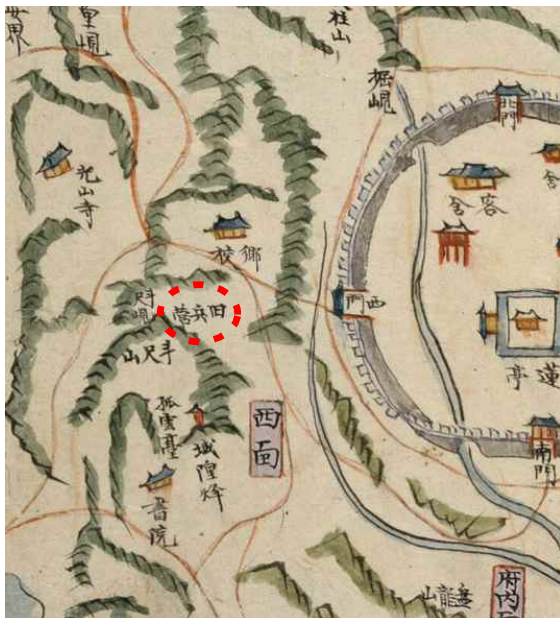
63) 병마절도사라는 명칭은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官制改革)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전신은 고려말 이래의 도절제사(都節制使)였다. 도절제사의 본명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이다.

『世祖實錄』卷 38 世祖 12年 1月 15日 戊午條, “... (중략) ...兵馬都節制使改爲兵馬節度使... (하략) ...”.

64) 『宣祖實錄』卷162 宣祖36年 5月 2日 丁巳條, “慶尙右兵營 旣難修築 則兵使以一道主將 當賊之地 一日不可苟度 前後看審形勢者 俱以矗石爲可當 故因監兵使狀啓 移設於晉州矣... (중략) ...若設僉使 收聚鮑作 加募閑雜人 給與戰船一隻 使之待變 則極爲便當... (하략) ...”.



〈그림 12〉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년)에서 경상도병영의 이설(古兵營:합포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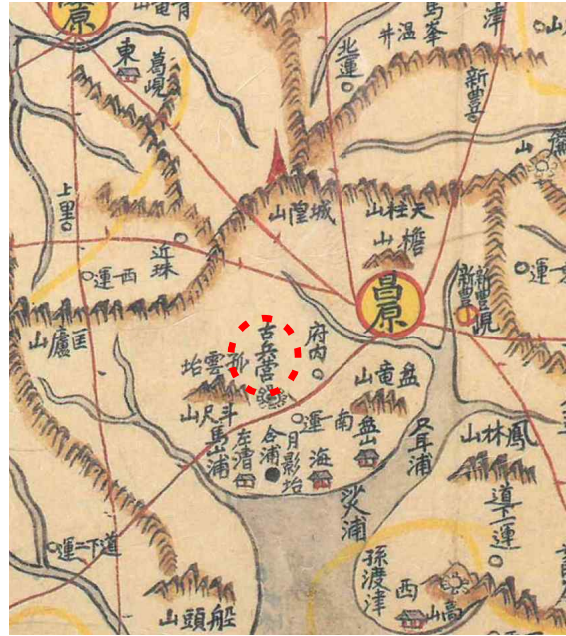
〈그림 13〉 지승(地乘, 1776년)에서 합포성지(舊兵營)



〈그림 14〉 해동지도(海東地圖, 1776년)에서 합포성지(舊兵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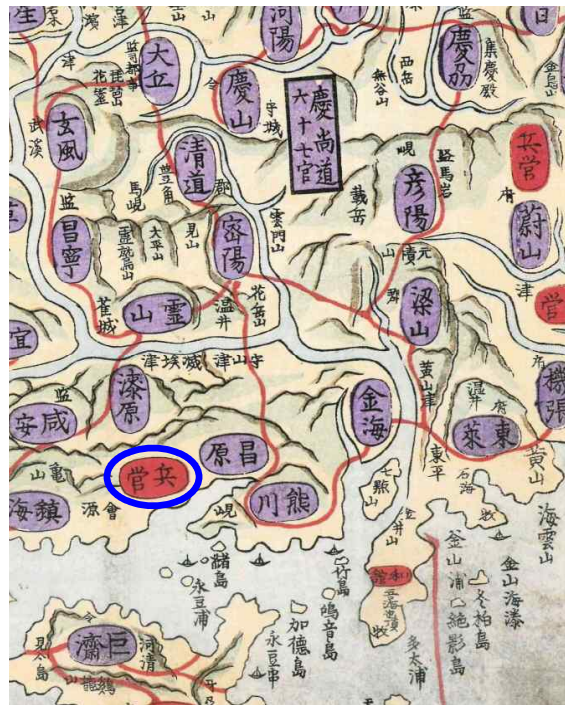
〈그림 15〉 조선지도(朝鮮地圖, 1776년)에서 합포성지(舊兵營)



〈그림 16〉 동여도(東與圖, 1861년)에서 합포성지(古兵營)



〈그림 17〉 조선후기지방지도(朝鮮後期地方地圖, 1872년)에서 합포성지(舊兵營)



〈그림 18〉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 1873년)에서 합포성지(兵營)



〈그림 19〉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1832년)에서 합포성지(合浦城址) (舊兵營)

된 <그림 18>의 지도에서는 현재의 마산지역에 병영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전기 때의 병영위치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경상우병영의 위치관계

경상우병영의 위치에 대해서는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위치하는 회원현성지(도기념물 제88호)가 고려시대의 치소이자 절도사구영터였으며, 현재의 합포성지터가 위치하는 마산회원구 합성동으로 병영이 이설되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통설이다. <그림 20> 이에 대해 다시 문헌사료를 분석해 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림 20> 기존의 합포병영 이설과정(1950년 항공사진)(출처:국토정보지리원)

먼저, 『한국지명총람』(1979)에는 절도사구영(節度使舊營)의 위치에 대해 환구산(環球山)에 있으며, 이 터는 고려 원종(元宗) 때 원나라 세조(世祖)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이 곳에 정동행영(征東行營)을 두어, 원수(元帥) 혼도(忻都)가 몽고병 4,500명을 이끌고 와서 머물렀던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구산은 제비가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 제비산이라고도 칭하며, 노비산(鷺飛山)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월영대(月影臺)의 북쪽에 절도사구영(節度使舊營)이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東國輿地志』(1674)에는 절도사구영은 고려말 공민왕때(1351~1374) 합포구영(合浦舊營)이 화재로 소실되어 고려 우왕초(1365~1389)에 병영을 이설하였다고 한다.⁶⁵⁾

그렇다면 이 환구산이 위치하는 곳이 절도사구영터로 볼 수 있는데, 이 환구산의 위치는 이 상남동 서쪽에 있는 산을 지칭하고 있다.⁶⁶⁾ <그림 21>

이와 관련하여 옛 마산시에서 간행한 『시세일람』(1958)의 용마성지왜성(龍馬城址倭城)조에 마산왜성을 소개하는데, 조선 임진왜란때에 왜장(倭將)인 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가 용마산(龍馬山) 정상에 축성을 시작하였으나 미완성 상태로 두고 회군한 것을 정유재란 때 창원방면에 주둔한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와 나베시마 카츠시게(鍋島勝茂) 부자가 절도사 영지인 환주산(環珠山)과 신병영의 합성에서 석재를 가져와 완성한 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⁶⁷⁾ 여기서는 절도사 영지를 환주산으로 지칭하는데, 앞서 살펴본 『한국지명총람』에는 절도사구영을 환구산에 있다고 하는 것은 환주산의 주(珠)를 환구산의 구(球)로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절도사구영의 위치는 환주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환주산은 자산동(茲山洞)에 소재하며, 자산동은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 자산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⁶⁸⁾ 자산리는 ‘茲山’에서 연유하는 지명으로 자산을 ‘城山’으로 보고 자산이 자산동 뒷산인 환주산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한다.⁶⁹⁾

환주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공원 일대로 비정되며, 환주산에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되어 있는 회원현성지(會原縣城址)가 소재하고 있다. 이 회원현성지는 무학산 남쪽 기슭에 돌출한 해발 143m의 낮은 야산(환주산)을 둘러싼 포곡식산성으로, 성의 둘레는 약 1.4km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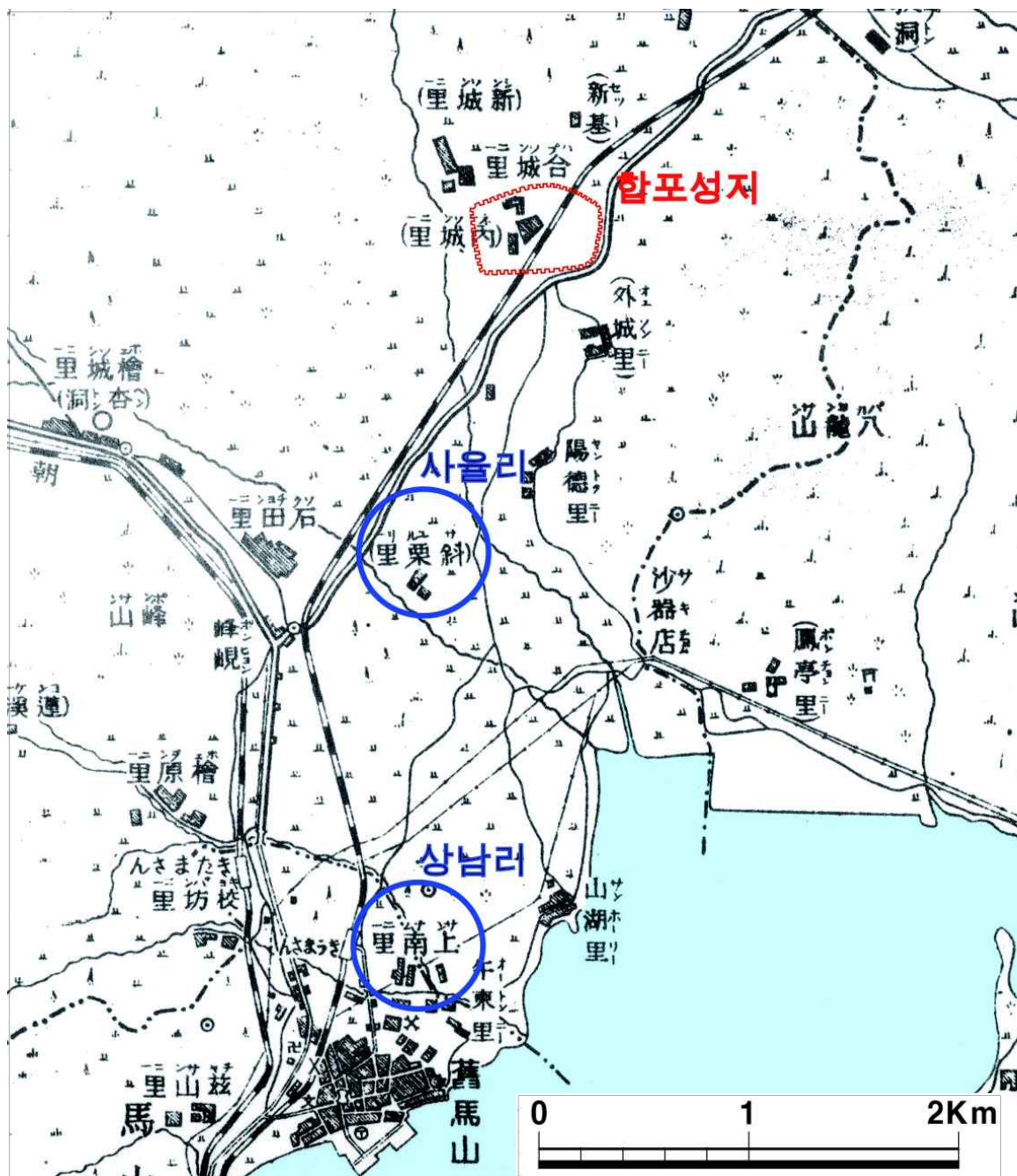
65) 『東國輿地志』古蹟條, “高麗恭愍王時 合浦舊營火于兵 初辛禡移王移設于北副元帥裴克廉築...(하략)…”

66) 한글학회, 2002, 『한국지명총람』 8:346, 경남편·I.

67) 馬山市公報課編, 1958, 『市勢一覽』, p. 149.

68)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馬山府 茲山里 外西面 茲山里.

69) 민금기, 2000, 『昌原都護府圈域 地名研究』, pp. 302-303. 서울:景仁文化社.



〈그림 21〉 조선지형도(1916년)에서의 사율리와 상남리 위치

추정되고 성내에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다.⁷⁰⁾ 발굴조사 결과 축성시기는 초축층위에서 ‘의춘(宜春)’이라는 연호가 확인되어 10세기경까지 올라가고 개축한 층위에서 ‘정풍2년 정축(正豐二年丁丑, 1157)’의 명문와가 출토되어 12세기에 수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남면(南面)’이라는 명문와를 통해 한번 더 수축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⁷¹⁾ 고려시대에 이미 면리제의 시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한 논고가 있으며⁷²⁾ 방위에 면(面)을 붙이는 것은 이미 『高麗史』의 11세기초 기록부터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원현성은 고려시대의 병영이 소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



<그림 22> 1950년의 회원현성지 항공사진(출처:국토정보지리원)

70) 1950년 12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구룡 능선부에는 토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계곡 입구(무학초등학교) 부근에는 도시화로 인해 원형을 파악할 수 없다.

71)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8, 『馬山 會原縣城-馬山 會原縣城 整備復元을 爲한 發掘調査 報告書-』.

72) 구산우, 2017, 「고려시기 성곽에서 발견된 기와 명문의 종합적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0:307-351.

그리고 『慶尙道續撰地理志』(1477)에 내상성(內相城)은 사율리(斜栗里)에 위치하며, 府(창원읍성)에서 11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³⁾ 그리고 사율리는 『호구총수』(1789)에는 율리(栗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⁷⁴⁾ 따라서 율리는 사율리의 또 다른 표기로도 볼 수 있다.⁷⁵⁾

사율리의 지명 역시 앞서 살펴본 〈그림 21〉과 같이 일제강점기때의 『조선지형도』(19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율리의 위치는 현 합포성지가 자리하는 합성리(合城里)·내상리(內相里)의 서남쪽 약 1.5km 떨어져 있는 현재 반월산(해발 101.5m)⁷⁶⁾의 북쪽 인접지역에 해당한다. 〈그림 23〉 이 사율리 일대에는 산호천과 삼호천이 흘러 마산만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사율리는 석전리(石田里) 동쪽에 인접해 있는데, 석전리는 조선시대 근주역(近珠驛)이 소재하였던 지명이다.



〈그림 23〉 1950년대의 사율리 일대 항공사진(출처:국토정보지리원)

73) 『慶尙道續撰地理誌』 昌原 關防條, “蛤浦 內相城 在府斜栗里去 官門十一里…(하략)…”.

74) 『戶口總數』 慶尙道 昌原條, “西面栗里”.

75) 민궁기, 2000, 앞의 단행본, p.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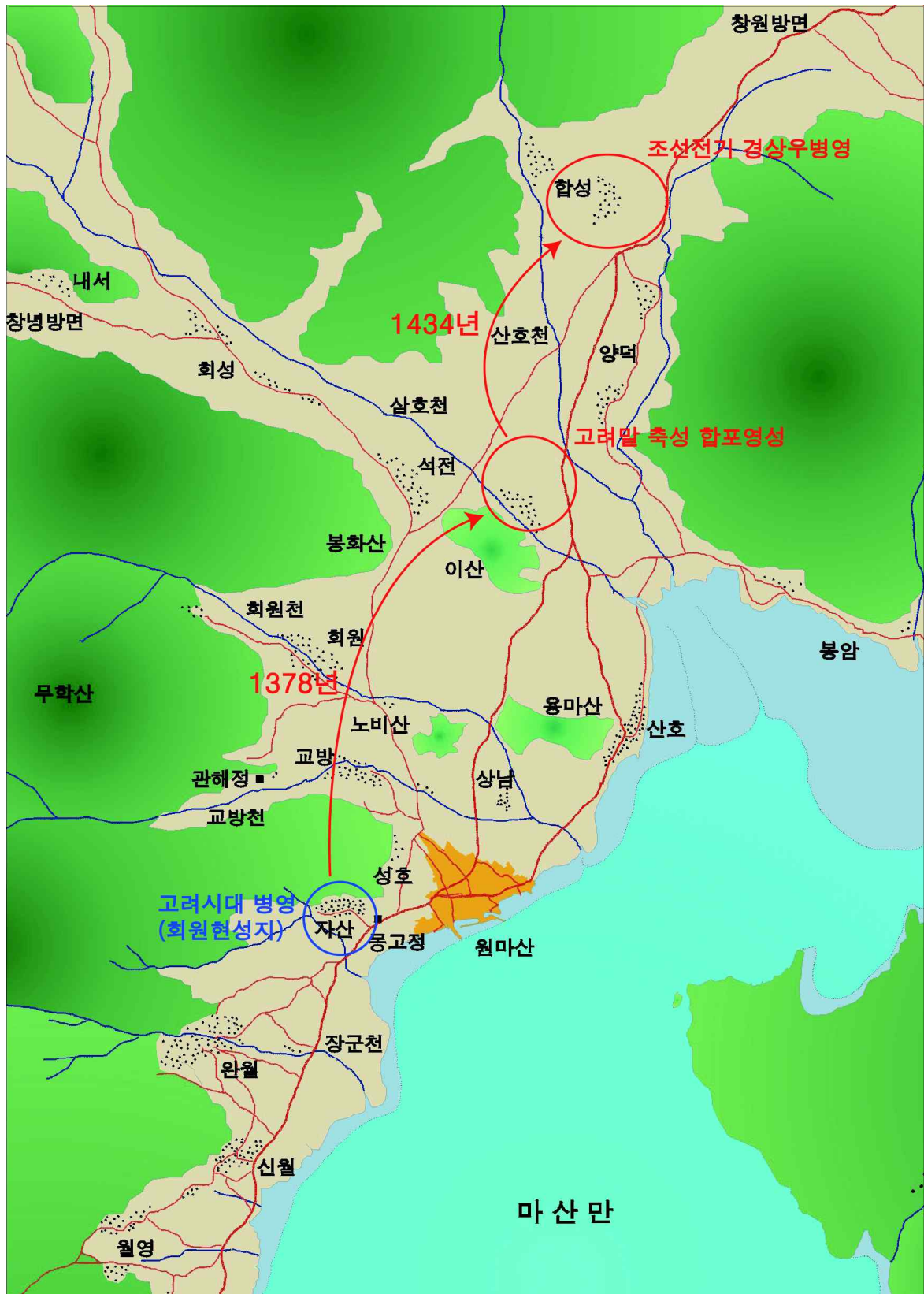
76) 이 반월산의 정상부에는 삼국시대의 토성인 이성산성(鯉城山城)이 위치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경상우병영의 위치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4>와 같다.

고려시대 마산지역의 병영소재지는 회원현성지로 추정되며 고려말 왜구의 침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병영의 소실과 재건이 반복되었고, 1374년(공민왕 23)에 일어난 대규모의 침략⁷⁷⁾으로 회원현성지의 병영은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하고, 사율리로 이전하여 병영성이 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율리와 현 합포성지가 위치하는 합성리가 서로 1.5km 정도만이 이격되어 있어 당시 현 합포성지 일대까지 모두 사율리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율리와 합성리 사이에는 양덕리(陽德里)라는 지명도 확인되고 있어 사율리가 합성리까지 확대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우도병마절도사영(右道兵馬節度使營) 외에 월영대(月影臺)의 북쪽에 위치하는 절도사구영(節度使舊營)이 언급되고 있다. 이 절도사구영은 병마절도사의 옛 성인데 『東國輿地志』(1660~1674)의 고적조(古蹟條)에 ‘高麗恭愍王時 合浦舊營火于兵辛禍初移設于’이라 하여 고려말 공민왕때(1351~1374) 합포구영(合浦舊營)이 화재로 소실되어 고려 우왕초(1365~1389)에 병영을 이설하였다고 한다. 이 때 새로 축성된 성이 바로 이침의 「合浦營城記」에 등장하는 합포영성(合浦營城)으로 현 반월산 북쪽의 산호천과 삼호천 일대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도시화로 인해 성곽은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항공사진 및 《지적원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성곽의 형태로 추정될 만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7) 『高麗史』 卷 44, 恭愍王 23年 4月, 앞의 기사.



〈그림 24〉 합포병영의 추정 위치와 이설경로(허정도, 2005, 컬러 화보, 필자 가필)

IV. 발굴조사 현황

합포성지에 대한 고고학적인 최초의 조사는 1991년 합포성지의 복원계획에 앞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기초조사를 통해 합성동 73-4·73-18번지에 성벽 80m와 치성 1기가 복원되어 있다. 이후 몇 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합포성지의 발굴조사 현황

조사 연도	조사기관	조 사 지 역	조 사 내 용
1991	동아대학교박물관	마산 합성동 73-4·18	·북쪽 체성부(최대 3.5m 높이) 성벽 확인 →체성축조시 협축수법(내벽 계단상 조성)
2005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마산 합성동 114-1	·기 조사된 체성부와 동일 수법의 성벽 확인
2006		마산 합성동 73-10	·북쪽 체성부 치 확인 →길이 7m, 높이 1m
2016	한국문화연구원	마산 합성동 66-39	·해자(16.3m 조사) 확인(3시기로 구분) → 초축해자:굴광면을 그대로 사용 1차 수축해자: 남벽(체성위치)에만 호안석축 2차 수축해자: 양안 호안석축
2016	경남문화재연구원	마산 합성동 72-6	·해자(5.7m 조사) 확인(잔존 높이 60~66cm) →양안 호안석축으로 추정(합포성 최종단계)
2017	우리문화재연구원	마산 합성동 76-5 (합성초등학교 내)	·체성의 내벽부에서 해자(43m 조사) 확인 → 초축 해자(2016, 한국문화연구원의 1차 수축해자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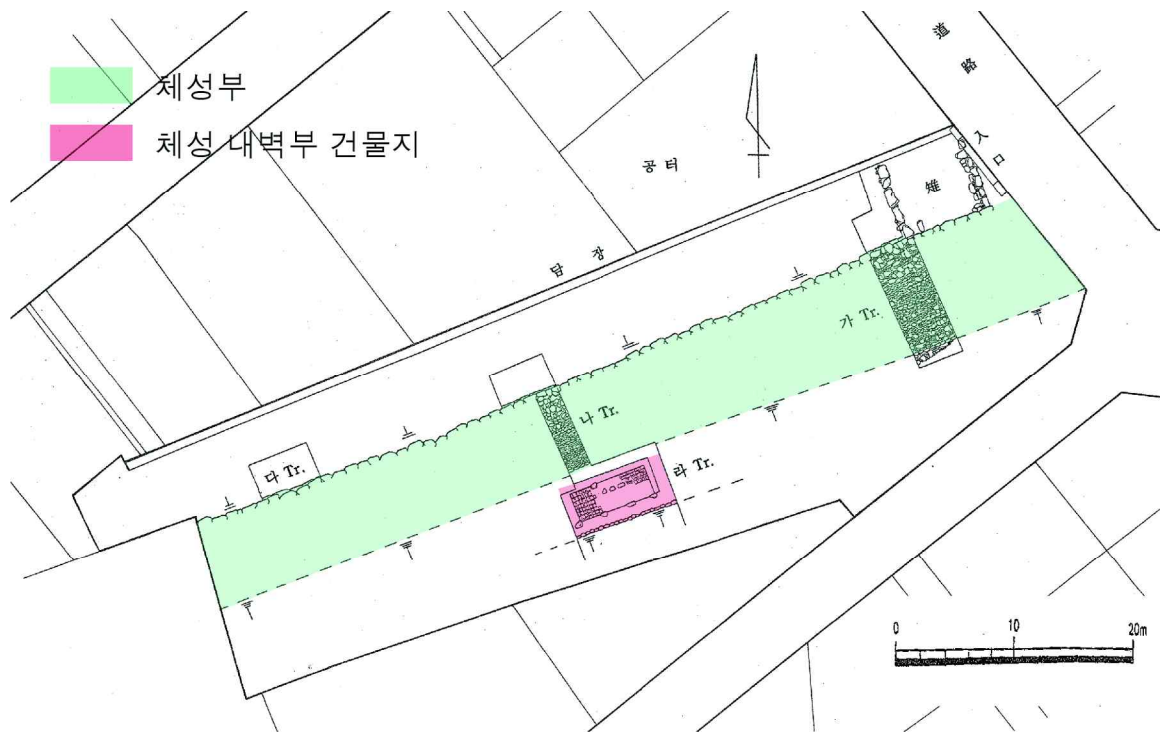
1) 1991년 합포성지 복원계획에 앞선 기초조사⁷⁸⁾

본 조사는 합포성에 대한 최초의 고고학적인 조사로 합포성지의 북서쪽 체성부와 치성 1기, 체성부 내벽에 위치하는 건물지 1기가 확인되었다. <그림 25>

성벽은 조사당시 가장 양호하게 잔존하는 부분이 지표에서 1.5m 정도이며, 지표 아래 1.5~2m 깊이에서 장대석으로 된 지대석이 드러났다. 즉, 가장 양호한 부분의 성벽 높이는 최대 3.5m 정도이다. <그림 26>

체성은 성벽을 축조하기 위해 먼저 표토를 제거한 기반층 위에 밤자갈을 깔아 지반을 다진 후, 외벽은 길고 평편한 장대석을 지대석으로 하고 그 위에 면석을 직선상으로 쌓아 올렸다. 지대석 위의 면석은 지대석 보다 약간 안쪽

78)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 『마산합포성지발굴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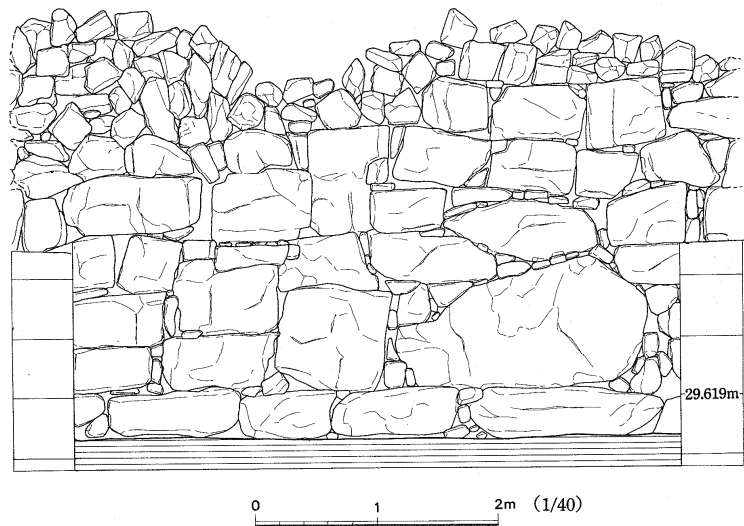
〈그림 25〉 마산 합성동 73-4·18 유구배치도(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 p. 17)

으로 들어쌓기 하였다. 외벽 축조시 내벽을 동시에 쌓아 올리는 협축수법을 사용하였고, 외벽과 내벽 사이는 호박돌과 주먹돌로 내부를 채워 견고함을 유지하였다. 내벽은 외벽과

달리 계단상으로 조성되었는데, 체성의 내벽의 기저부에서부터 외벽의 상단부로 갈수록 8.8m→7.2m→4m로 좁아든다. 기저부의 폭이 9m인 곳도 있어 획일적이지는 않다. 상단부(여장)은 폭 4m로 균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치는 체성과 동일하게 대지정지, 즉 기반층을 굴착 후 자갈을 깔아 성토한

뒤 석축을 쌓아올렸다. 치는 체성과 같이 기반으로 이용한 장대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치는 모성과 연결된 석축이 아니라, 먼저 쌓은 모성 벽에 덧 대어서



〈그림 26〉 마산 합성동 73-4·18 체성 외벽(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 p. 45)

방대상의 치를 별도로 축조한 것이었다. 치의 규모는 길이 7.2m 이상(끝부분 훼손), 폭 7m 이다.

건물지는 체성의 내벽부에서 확인되는데, 정면 3間 측면 1間的 건물지로 바닥에는 무문전을 깔았으며, 건물의 양 측면과 후면으로는 토담벽을 쌓았다. 초석은 정면 1열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고자는 정면으로 홍살문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건물의 전면에는 높이 1m의 기단이 축조되어 있는데, 기단의 지대석은 평편한 석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면석을 들여쌓기 하였다. 이 건물지는 체성부와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건물의 규모는 전면 720cm, 측면 270cm 이며, 左右의 측면칸은 각 210cm, 중앙칸은 300cm로 중앙칸이 비교적 넓게 조성되어 있다. <그림 27>



<그림 27> 마산 합성동 73-4·18 건물지(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 원색사진 라 Tr.)

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마을 노인들에 의하면 성벽에서 10~20m 떨어진 지점에 단면 ‘U·V’ 모양의 구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2) 2004~2005년 마산 합성동 건물신축 조성부지 내 조사⁷⁹⁾

마산 합성동 73-10번지는 합포성의 북문지와 1991년 조사·복원되어 있는 치의 중간 썸에 위치하며, 앞서 조사된 합성동 114-1번지와는 20m 이격되어 있다. 치는 〈그림 28〉과 같이 지표에서 약 70cm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그림 28〉 마산 합성동 73-10 치 전경(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원색도판1)

치의 축조방법은 기반층 위에 점질토를 깔아 지반을 정지한 후 그 위에 25cm 크기의 박석을 설치하였다. 이 박석 위에는 100×50cm의 장대석을 들여쌓기 하여 지대석으로 사용하였고, 〈그림 29〉이 장대석 위에 다시 들여쌓기 하여 면석을 쌓아 올렸다. 확인된 치의 규모는 폭 8m, 길이 6.5m 이상인데 본래의 길이는 7m 정도로 추정된다. 발굴조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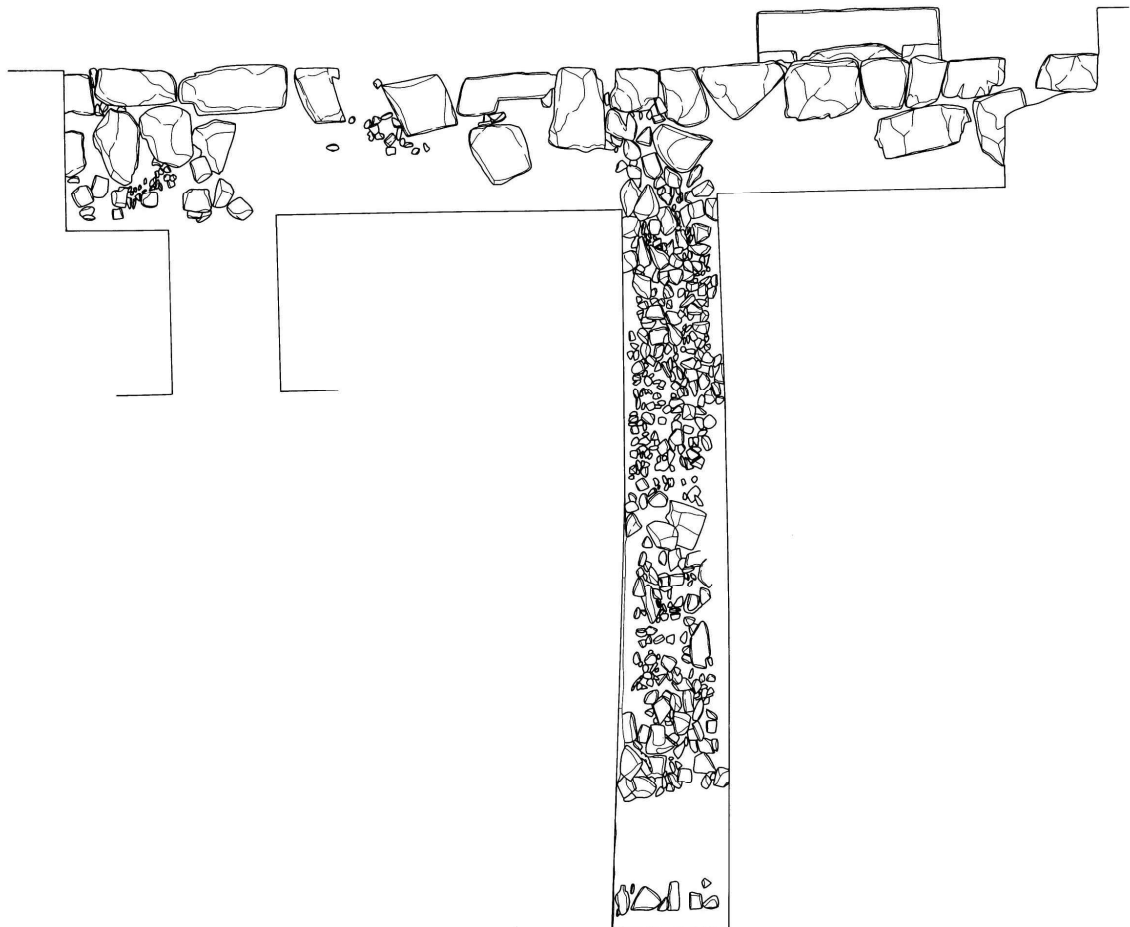
〈그림 29〉 마산 합성동 73-10 치 기초석(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p. 39)

79)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6, 『馬山 合浦城址 -마산 합성동 114-1·73-10번지 건축물 신축예정지 試掘調査 報告書-』.

서 확인된 치의 높이는 1m 이다.

조사결과 확인된 치성은 기존의 지적도상에 확인되는 8개소의 치성 이외에 새롭게 확인된 것으로 합포성지의 경우 기존의 8개소의 치정보다는 더 많은 숫자의 치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조사된 치성에서는 다량의 기와가 수습된 것에 비해 여기에서는 소량의 기와편이 출토되어 누각과 같은 목조건물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합성동 114-1번지(면적 634.2m²)는 합포성의 체성이 복원되어 있는 북쪽 체성의 서쪽에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1991년에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합포성지 기초조사 도면을 참조한다면 북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사방법은 총 3개소의 트렌치와 2개의 pit를 설치하여 체성부를 확인하였다. <그림 30>



<그림 30> 마산 합성동 114-1 체성부 2트렌치 평면도(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p. 43)

발굴조사 결과, 표토下 30~70cm에서 체성부가 확인되며, 체성부 기저부의 폭은 대략 8m이고 외벽 끝에서 내벽 쪽으로 약 4.5~5m 사이에서 내외협축이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 기저부에서 체성부의 상부까지 계단식으로 물려서 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벽의 축조는 자갈로 다져놓은 층의 상면에 길이 1~1.2m, 폭 0.6m 크기의 장대석을 설치한 후 지대석에서 20cm 안으로 물려서 장대석(1~1.2×0.6m)으로 기단석을 축조하고 있으며, 기단석의 뒤쪽으로는 길이 80~90cm의 침석을 외벽과 직교하게 설치한 특징이 있다.

내벽의 잔존 높이는 60~100cm 내외이며, 성내부로 바른면을 맞추고 있다.

〈그림 31〉



〈그림 31〉 마산 합성동 114-1 체성 내벽부(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p. 59)

당시 조사에서는 체성의 외벽과 내벽의 축조방법을 재 확인하였고, 앞선 1991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3) 2016년 마산 합성1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부지 조사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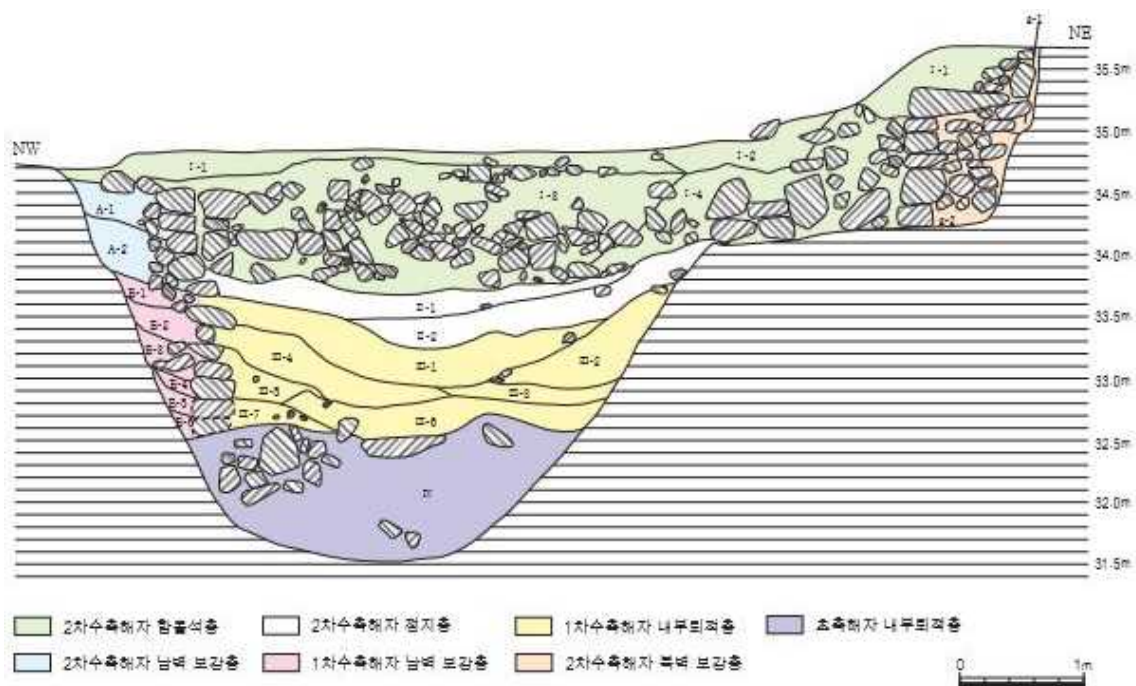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마산 합성동 66-39번지에 위치하며, 《지적원도》상의 합포성지 북동쪽 체성부 외곽을 두르는 해자선과 일치한다.

확인된 해자는 길이 16.3m이며, 내부층 조사를 통해 굴광면을 그대로 이용한 초축해자, 체성이 위치하는 남벽에만 호안석축을 쌓은 1차 수축해자, 양안에 호안석축을 쌓은 2차 수축해자로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단, 2차 수축해자의 석축 축조방법이 북벽은 지대석을 놓고 석축을 쌓은 반면, 남벽은 지대석을 설치하지 않았고, 굴광면과 석축 사이의 뒤채움의 재료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2차 수축해자에서도 그 축조시점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2차 수축해자의 남벽 석축에서도 지대석이 설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동시에 확인되어 별도의 수축이 또 한 차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32·33〉



〈그림 32〉 마산 합성동 66-39 해자 전경(한국문화연구원, 2017, p. 39)

80) (재)한국문화연구원, 2017, 『마산 합성1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부지 내 昌原 合浦城(慶尙右道兵營城) 核子』.



해자의 축조시기에 있어 초축해자는 출토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규명하기는 힘들지만 1차 수축해자의 하층에 존재하고 있어 고려말로 추정하며, 1차 수축해자는 해자 벽석사이에서 출토된 분청사기편을 통해 15세기 전반으로, 2차 수축해자는 호안석축의 보강토에서 출토된 분청사기편을 통해 15세기 중엽에서 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본 조사지역은 마산 합성동 72-6번지(면적:170m²)에 위치하며, 《지적원도》상의 합포성지 북서쪽 체성부 외곽을 두르는 해자선과 일치한다.

확인된 해자의 길이는 약 6m 정도이다. 해자 내벽의 축조는 하천퇴적층인 회흑갈색의 사질역을 ‘L’자로 굴착 한 후 점질토를 깔아 정지하였다. 호안석축은 두께 30cm미만의 판상석재를 지대석으로 설치하고 그 상부에 대형의 먼석을 15cm 들여쌓기 하였다. <그림 35>



〈그림 34〉 마산 합성동 72-6 해자 및 부석층 전경(경남문화재연구원, 2018, p. 49)

해자 굴광면과 내벽석축 사이의 공간은 회갈색의 점질토와 할석으로 채워넣었다.

이와같이 지대석이 설치된 석축과 보강방법은 동쪽의 마산 합성동 66-39번지(2017, 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서 조사한 2차 수축해자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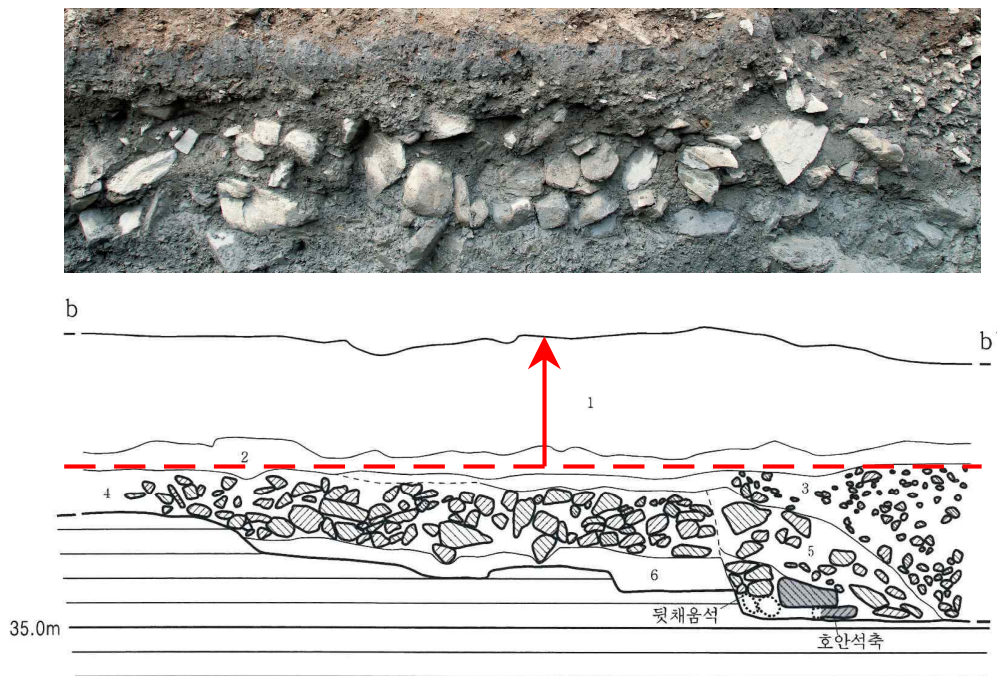


〈그림 35〉 마산 합성동 72-6 해자 호안석축(경남문화재연구원, 2018, p. 71)

해자의 외벽 호안석축은 조사경계의 북쪽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상수도관의 하부에 유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해자의 최소 폭은 6.7m 이상으로 추

정된다.

본 유적에서는 해자와 체성부 사이에 부석층이 확인되었는데, 깊이는 약 50cm 정도이며, 10~40cm 크기의 중·소형 할석들이 점토와 섞여서 기반층을 덮고 있는 양상으로 노출되었다. 이 부석층이 확인되는 레벨은 해자의 좌안석축(내벽) 최하단석의 높이와 거의 비슷하다, <그림 36>



<그림 36> 마산 합성동 72-6 해자 부석층 단면(↑: 교란)(경남문화재연구원, 2018, pp. 4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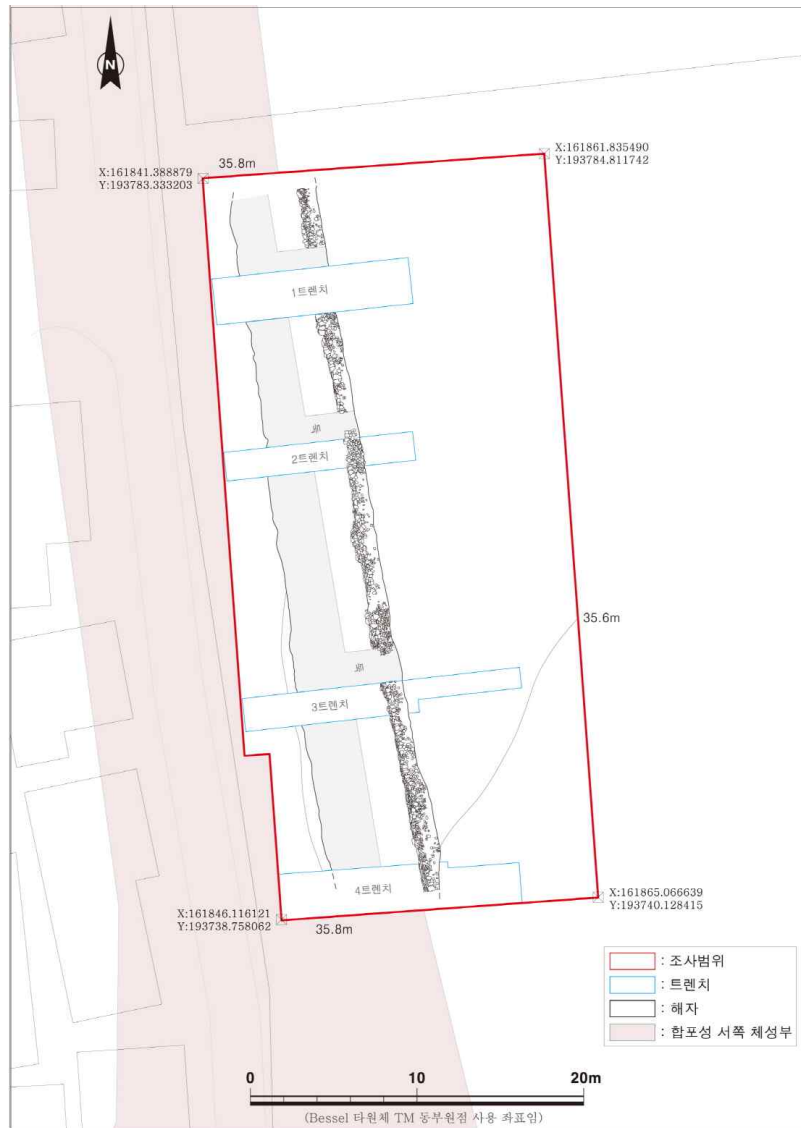
그러나 이 부석층이 확인되는 지점은 체성의 외벽과 해자의 내벽 사이에 해당되는 공간으로 체성의 기반부와 해자의 레벨을 모두 고려하면 부석층은 최소 1.5m이상 성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성토 즉, 석재를 이용한 기반정지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상부를 지탱하기 위한 기초부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마산 합성동 72-6번지 해자는 합포성의 증축된 해자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증축이전의 체성부와와의 관련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1916년의 지적원도를 살펴보면, 현 마산 합성동 72-6번지 일원에 남문지에서부터 이어지는 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북체성의 밖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지점에 북문지의 웅성과 같은 구조물이 조성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마산 합성동 72-6번지에서 확인된 부석층이 웅성의 기저부로도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

5) 2017년 창원 합성초등학교 내 강당부지 조사⁸²⁾

조사지역은 마산 합성초등학교 내에 위치하며 학교의 서쪽 담장에 인접해 있는 합성동 76-5번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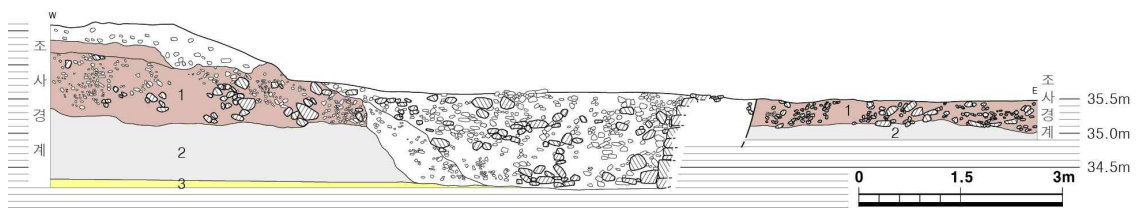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함포성지의 서쪽 체성부 내벽에 존재하는 해자이며, 이 해자는 함포성지의 서쪽 체성과 평행하게 진행된다. <그림 37>



<그림 37> 마산 합성동 76-5 유구배치도(우리문화재연구원, 2019, p. 36)

82)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19, 『창원 마산합성초등학교 내 강당건립부지 慶尙右兵營(合浦城址) 垓子』.

축조방법은 먼저, 하상퇴적과 사면퇴적으로 이루어진 역이 다량포함된 기반층으로 구성된 하상퇴적층을 5.5~6.5m 폭의 'U'자상으로 굴착한 후 해자의 좌안(성 내부 방향)은 석축을 조성하였고, 해자의 우안(성 외부 방향)은 가공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좌안석축의 축조는 가공된 벽면에 연해 수직으로 쌓은 후 석축과 굴광 사이는 굴착토를 이용하여 충진하였다. 해자의 내부층은 석재로 다량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일시에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8>



<그림 38> 마산 합성동 76-5 해자 단면도(우리문화재연구원, 2019, p. 35)

해자의 호안석축 조성방법은 가공된 바닥면에서부터 별다른 지대석의 설치 없이 직경 50cm 규모의 대형석재를 와수적한 후 상부는 비교적 소형의 석재로 쌓아올린 형태이다. 석축은 허튼층 쌓기로 축조하였다. 석재의 틈 사이는 cobble급의 석재로 고임하여 견고성을 유지하였는데, 일부는 토압 등의 하중을 버티지 못해 하단부 석축이 해자 내부로 밀려 있는 상태이다. <그림 39>



<그림 39> 마산 합성동 76-5 해자 좌안석축(우리문화재연구원, 2019, p. 77)

유물은 해자 내부층에서 기와편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기와의 문양은 어골문계가 가장 많고, 그 외 단일문인 종선문과 종선문+'X', 격자문 그리고 횡대로 구획된 격자문+어골문, 대칭 어골문, 사선문, 청해과문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의 연대는 고려시대가 중심이나 청해과문의 기와가 확인되어 조선시대까지 소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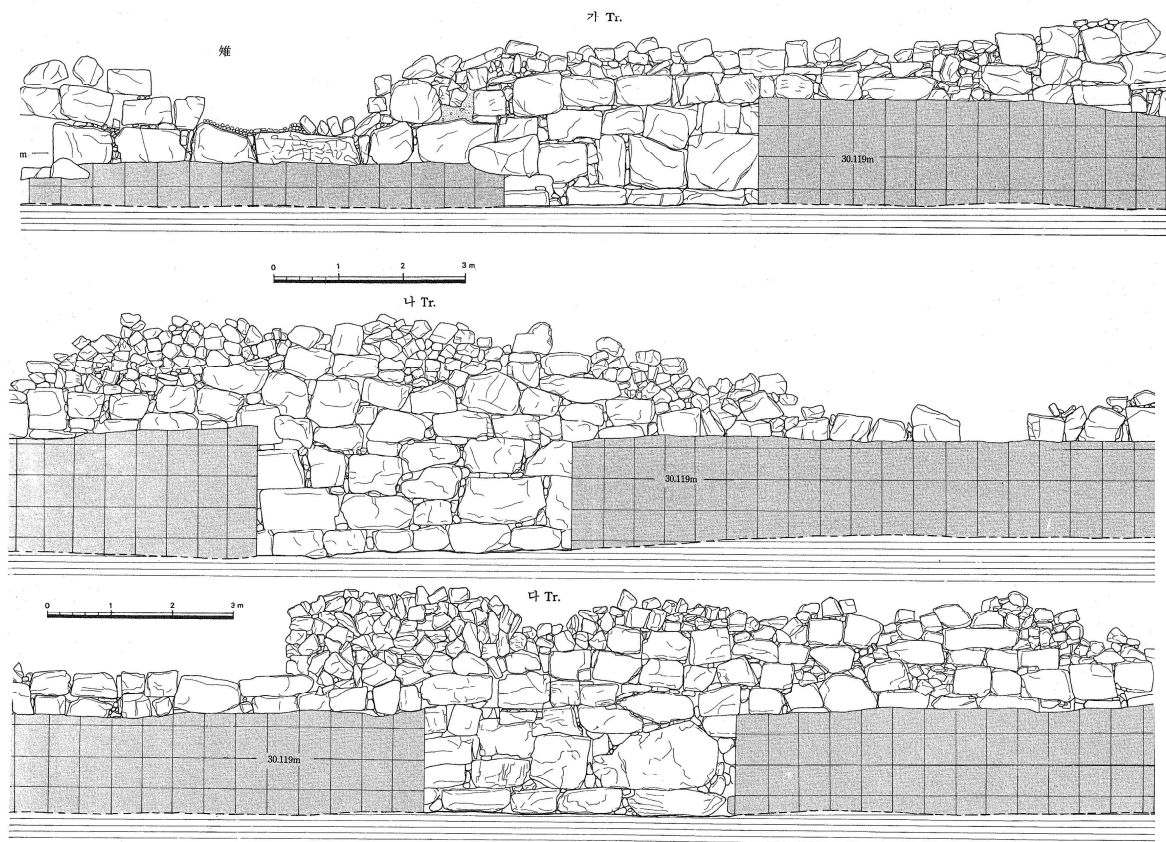
V. 성곽의 축성방법

1. 체성

합포성지의 체성부 축조방법은 1991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된 마산 합성동 73-4·18번지와 2004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조사한 114-1번지 일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 있다.

1991년 마산 합성동 73-4·18번지(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확인된 체성 외벽의 축조는 기반층에 밤자갈을 깔아 평평하게 다진 뒤 그 위에 납작한 장대석을 설치해 지대석으로 삼고, 그 위에 면석을 지대석 안쪽으로 약간 들여쌓기 하였다. 외벽은 수직으로 쌓아올렸는데, 세워쌓기와 눕혀쌓기를 혼용하였다. 외벽석의 하단부 석재는 크기가 200cm×150cm×80cm가 대부분이며, 점판암계의 석재들이다. 상단부로 갈수록 석재의 크기가 소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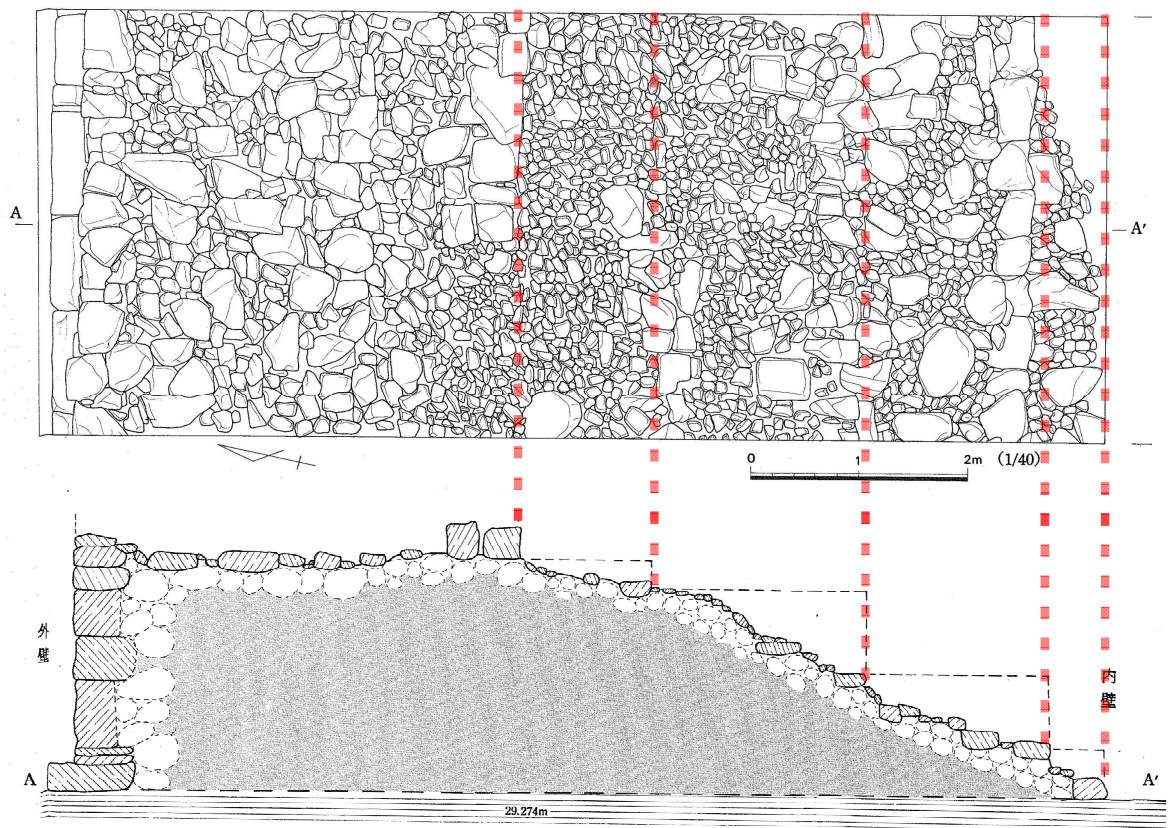


〈그림 40〉 합포성지 북쪽 체성 외벽부(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 pp. 29-33)

체성 내벽의 축조는 석축을 〈그림 41〉과 같이 내벽에서 외벽방향으로 단차를 두며 쌓아 올라가는데 계단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체성의 기저부는 외벽에서 내벽까지 폭 8.8m의 지점에 인두대크기의 할석으로 막돌쌓기를 행하였고 다시 폭 7.2m 지점에 단차를 높여 줄여 쌓고 다시 4m 지점에 단차를 높여 또 줄여쌓기 하여 그 단면이 내벽에서 외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계단상의 내외협축(内外狹築) 수법으로 축조되었다. 〈그림 42〉 이러한 체성의 기단부 폭은 성곽 전체가 일정한 형태로 유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내벽부에 바로 연결해 있는 건물지의 위치로 보아 내벽의 위치에 따라 그 폭도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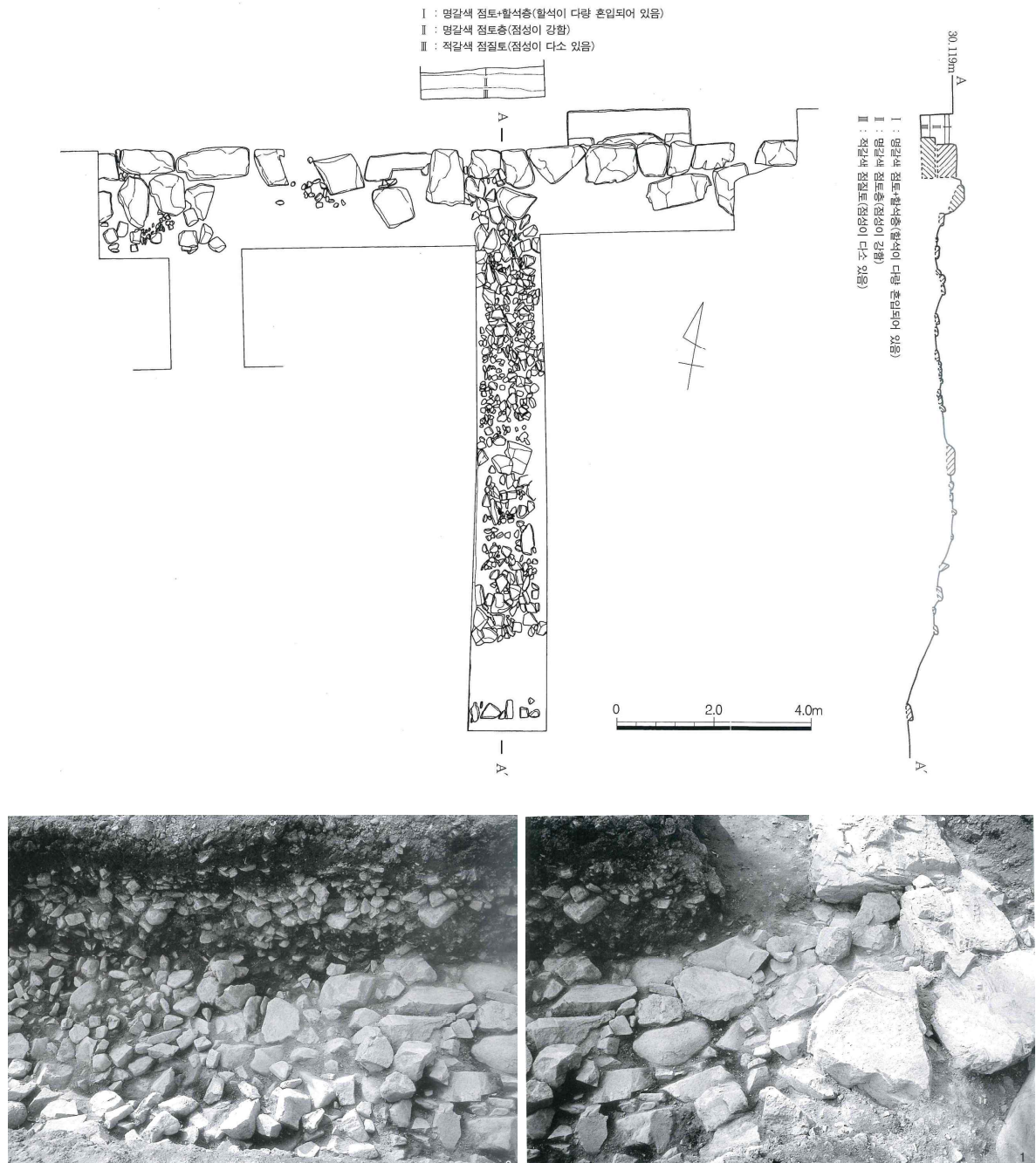


〈그림 41〉 합포성지 북쪽 체성 내벽부(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 p. 89)



〈그림 42〉 합포성지 북쪽 체성 내벽부 계단식 축성법(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 p. 37)

2004년 마산 합성동 114-1번지(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시굴조사)에서도 역시 앞서 발굴조사된 체성의 축성방법과 동일한 형태로 확인되었는데, 외벽석의 뒤쪽으로 길이 80~90cm의 침석을 외벽과 직교하게 설치하였고, 내벽 방향으로로는 비교적 소형의 석재와 흙을 혼합하여 채워넣은 양상이다. <그림 43>



<그림 43> 합포성지 북쪽 체성 내벽부(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pp. 43:55)

이상 합포성지의 체성부 외벽 축성법은 잡석치환의 정지층 위에 지대석을 놓고 면석은 지대석에서 들여쌓기 하여 세워쌓기와 눕혀쌓기의 수법으로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 외벽은 면석은 하단부의 석재가 대형의 규모를 보이며 상단부로 갈수록 소형의 석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벽의 면석과 면석 사이의 공간은 소형의 석재로 끼워넣거나 고임하여 더욱 견고하게 조성하였다. 내벽은 계단상으로 축성하였으며 기저부는 폭이 8.8~9m이고 다시 폭 7.2m 정도로 줄여쌓기를 하고 다시 4m로 줄여쌓아 내벽에서 외벽으로 가면서 계단상의 단차를 형성하고 있는 축성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합포성지의 축조수법은 인접해 있는 웅천읍성⁸³⁾에서도 엿 볼 수 있다. <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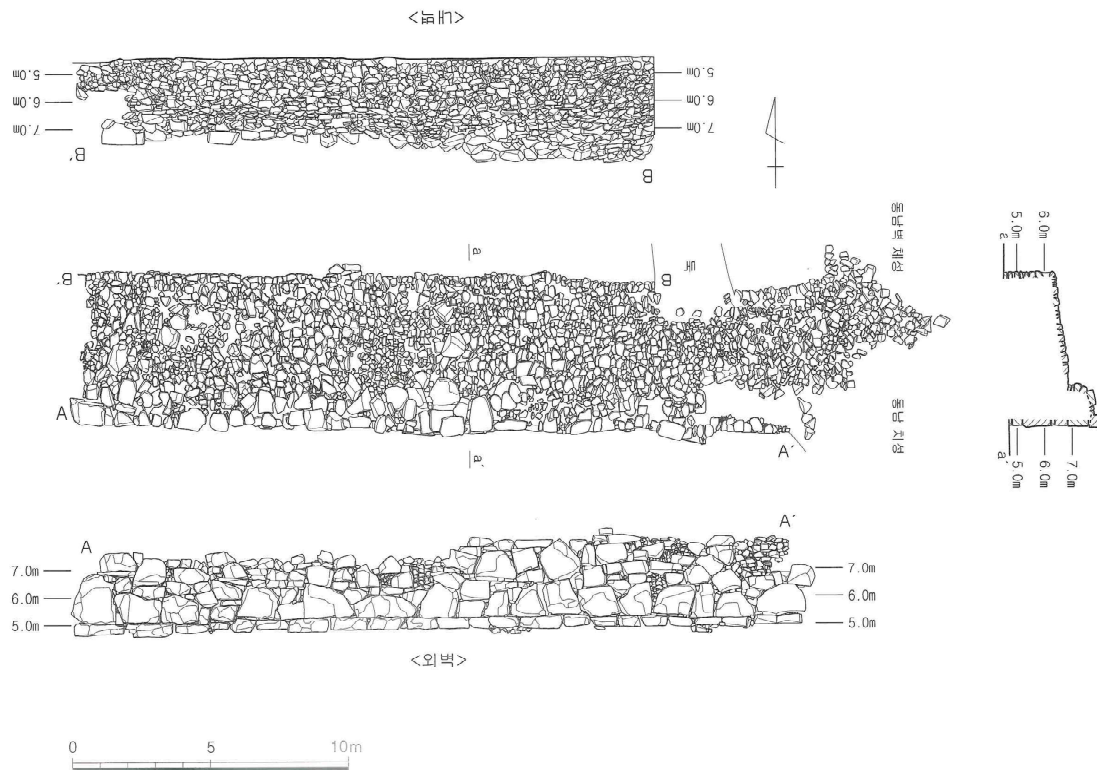


<그림 44> 웅천읍성 북동쪽 체성부 단면도(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1, p. 54)

83) 웅천읍성(熊川邑城)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에 위치하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다.

웅천읍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慶尙道屬撰地理志』에 1434년(세종 16)에 초축하고 1453년(단종 1)에 증축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端宗實錄』에는 1437년(세종 19)에 초축이 완료되었고, 증축이 이루어진 시점은 1453년(단종 1)에 증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⁸⁴⁾

2001년 시굴조사 결과, 웅천읍성의 북동 체성부 축성방법은 기저부가 약 8.1m이고, 최상부는 2.6m로서 내벽은 30cm, 60cm, 90cm의 높이로 계단상으로 축조되어 있고 단(段)은 4단으로 약 2m 내외의 폭으로 형성되어 있다. 외벽의 잔존 최고 높이는 4.2m이며, 지대석 위에 1.8m×1.5m×0.5m 크기의 대형 괴석을 놓았으며 점차 위로 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외벽은 세워쌓기 눅혀쌓기를 혼용하고 있지만 눅혀쌓기식의 비중이 높다. 또한 면석은 45×53cm 내외의 지대석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쌓기하여 수직상으로 쌓아올렸다. 지대석 사이의 틈새는 괴임돌과 켜기돌로 마무리하고 있다.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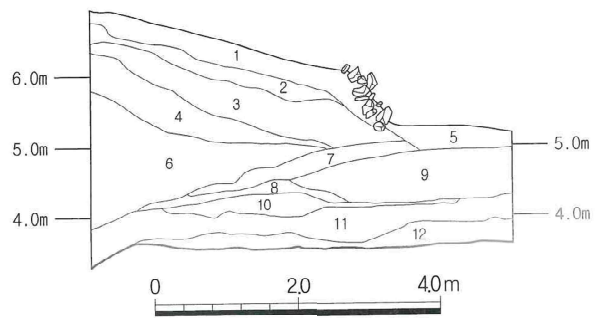


〈그림 45〉 웅천읍성 남쪽 체성부 단면도(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p. 48)

84) 심정보, 2011, 「朝鮮 前期 邑城의 築造計劃과 熊川邑城에서의 適用事例 檢討」, 『웅천읍성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 pp. 114-115. 창원시 웅천읍성 학술대회.

85)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1, 『鎭海 熊川邑城 -鎭海市 熊川邑城 整備復元을 爲한 試掘調査報告書-』.

2010~2011년 발굴조사에서는 웅천읍성의 남쪽 체성에 대한 축성법이 확인되었는데, 남벽 체성부의 기저부 전체 폭은 약 11.3m이고, 외벽부 방향 5.8m는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음부터 내·외벽을 동시에 쌓는 협축(狹築)수법을 사용하였다. 내벽부 방향 5.5m는 <그림 46>과 같이 사질토와 점토, 자갈을 교대로 경사지게 쌓아 내탁부를 구성하여 동북 체성부의 계단식 축성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⁸⁶⁾ 이 웅천읍성의 남쪽 체성은 1453년 증축시에 적용된 축성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6> 웅천읍성 남쪽 체성부 내벽 토축내탁 단면도(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pp. 50·156)

이상의 웅천읍성에서 확인된 체성의 축성법은 문헌기록과 비교해 보면 북동쪽 체성부의 내벽부 계단식 축성법은 1437년의 축성기사로 볼 수 있으며, 남쪽 체성부의 내외협축식에 내벽부에 흙을 내탁한 축성법은 1453년의 축성기사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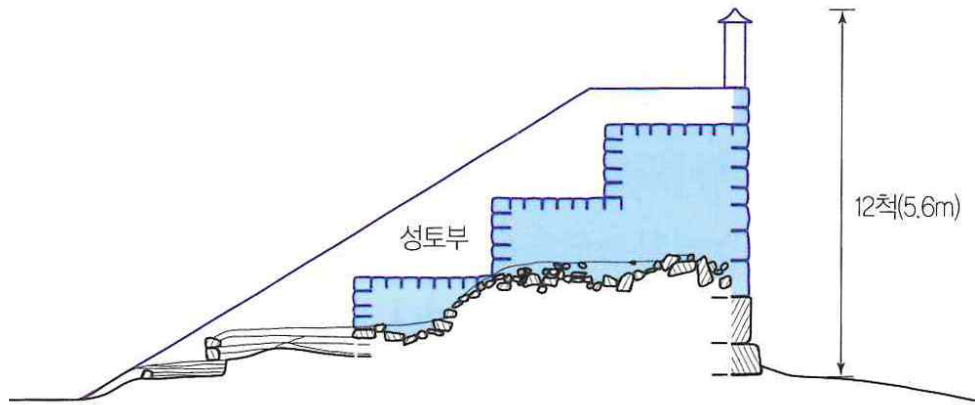
그리고 경상좌병영인 울산병영성의 체성부의 축조방법 역시 합포성지와 웅천읍성에서 확인되는 내벽부의 계단식 축성법이 확인된다.

이 울산병영성은 앞서 살펴본 합포성지와 웅천읍성의 지리적 입지와는 달리 구릉에 축조되어 경사면을 절개하여 외벽부의 지대석과 면석이 내벽부 보다 낮은 레벨상에 축조되기도 하는 차이점은 있으나, 체성 내벽부에 대한 축조수법은 계단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축조법에 유사성을 보인다.

그 중 울산병영성의 서문지~북문지 구간 내 서북 치성 1호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시 트렌치3에서는 초축체성과 수축체성이 확인되었는데, 초축체성은

86)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10, 『진해 웅천읍성 복원사업부지내 鎭海 熊川邑城Ⅱ』.

기저 폭이 5.6m 이고, 내벽석에서 외벽방향으로 1~1.2m 들여 2~3단의 석축을 쌓고 다시 1~1.2m 들여 4~5단의 정도의 석축을 쌓아 계단상을 띄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내벽부 방향은 다시 흙으로 내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7> 87)



<그림 47> 울산병영성 북동구간 체성부 추정복원도(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5, p. 25)

이 울산병영성은 1417년(태종 17)에 축성⁸⁸⁾된 것으로 앞서 함포성지와 웅천읍성 보다는 앞선 시기에 축성되었다.

이와같은 성곽의 축성법은 1443년(세종 25)에 이보흙의 상소문에서 엿 볼 수 있다. 그 내용의 원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⁸⁹⁾

1443년 11월 당시 성균관주부 이보흙(李甫欽, 미상~1457년)이 상소하기를 성곽이란 백성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시설인데, 기존에 축성된 성이 계속 무너져 내려 백성들은 해마다 축성공사에 동원되고 있고, 1438년(戊午年)에 성을 쌓은 새 도본(圖本)을 반강(頒降)하긴 하였으나 그 폐단에 대해 말하였다.

1438년에 반강(頒降)된 축성도본(築城圖本)은 내면에 돌 16척을 메우고 위에는 계단을 만들되, 흙으로만 쌓으면 쉽게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 박석(薄石)으로 퍼게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축성은 그가 직접 경상도의 성곽 축성을 살펴보니 성터와 채석장의 거리가 멀면 거의 30리, 가까우면 10여리가 되어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도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성돌은 1~2개에 불과할 뿐이었고,

87)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5, 『울산 경상좌병영성 서북치성 1호 주변 유적-울산 병영성 북문지~서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서북치성 1호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88) 『太宗實錄』卷 33, 太宗 17年 1月 21日 戊申條, “移慶尙左道都節制使軍營于蔚山郡”.

89) 『世宗實錄』卷 102, 世宗 25年 11月 3日 甲寅條, 참조.

이러한 축성에 대해 4가지의 큰 폐단이 있다. 첫째는 성곽 1척을 쌓는데 사람을 6~7명 동원하면 1~2년의 시일이 걸리며 비록 그 기한 내 마쳤더라도 1년만 넘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어 백성의 터전이 안정치 못하고 그에 대한 관리의 죄가 추가되는 것이며, 둘째는 성곽의 내벽을 쌓아서 계단을 만들고 박석(薄石)을 깔게 되면, 만약 적의 침입시 쉽게 등성하지 못해 수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는 성곽의 성돌을 도적이 틈을 타서 1~2개 공격하면 내벽의 잡석이 형세가 저절로 무너져 내려 도리어 적의 공격이 이롭게 된다는 것이며, 넷째는 성곽의 축조 후 그 위에 덮은 흙이 없기 때문에 한번만 비가 오면 물이 성기(城基)에 스며들어 곧 무너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축성도본의 폐해를 없애고자 이보흠이 고안해 낸 방법은 성곽의 폭을 16尺으로 기초를 마련하고, 외벽의 6~7尺은 오로지 큰 돌로 쌓고, 내벽의 7~8尺은 돌과 흙을 섞어 단단하게 쌓되 다 쌓은 뒤에는 흙 2尺을 덮게 하고 그 위에 때(莎草)를 입히고 내벽에서 외벽으로 경사지게 하여 물이 쉽게 빠지는 도성(都城)의 제도와 같이 하면 성곽으로 오르내리기가 용이하여 적의 공격을 방지하기에 쉽다. 그리고 성을 쌓을 때는 호지(濠池)를 굴착한 흙을 돌과 섞어 내벽을 쌓으면 다시 해자를 축성할 필요도 없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체성부 축조방법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성곽은 한양도성에서 엿 볼 수 있다. <그림 48> 90)



<그림 48> 한양도성 체성 내탁부(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p. 124)

90)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동대문운동장 유적 I-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부지 발굴조사-』.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성곽을 축성한다면 기존의 1개의 성을 쌓을 공력으로 2~3개의 성을 쌓을 수 있으며, 내벽의 성돌 위에 2~3尺의 흙을 쌓으면 빗물이 흙에 머금게 되어 하부로 빗물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해 성곽을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 『세종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1438년(세종 20)에 이미 축성도본(築城圖本)에 의해 성곽의 체성 내벽부는 이미 계단식 축성법이 도입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합포성지를 비롯한 웅천읍성과 울산병영성은 이전에 축성된 성곽이기 때문에 축성신도의 방법이 적용된 계단식 내벽부 체성부 축조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443년(세종 25) 이보흙은 앞서 성곽의 축성법이 여러 가지의 폐단을 갖고 있어 그 보완책으로서 도성(都城)의 축성법을 도입하여 성곽의 내벽부 축성은 토석혼축(土石混築)으로 이루어져 석재만을 이용한 성곽보다는 등성에 용이한 형태로 축성하면서 붕괴의 노출에도 안전한 축성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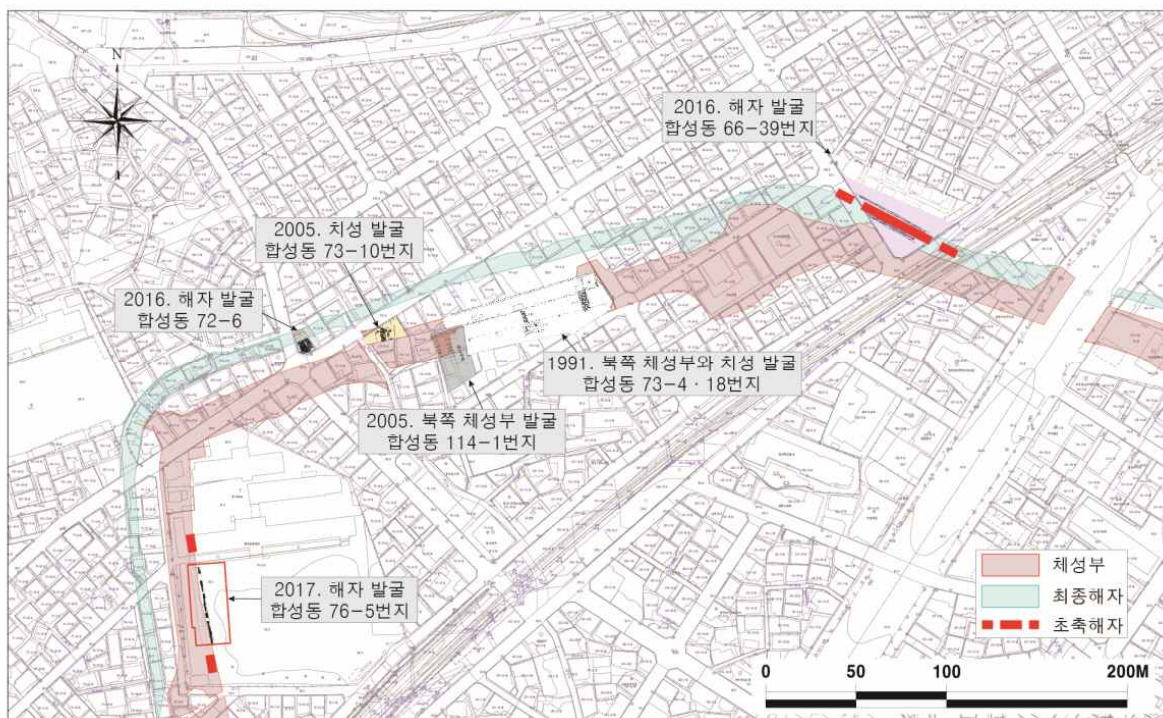
이러한 축성방법을 정리해 보면 계단식의 내벽부를 석축으로 조성하는 방법에서 체성의 외벽부 방향은 석축으로 쌓고 내벽부 방향은 토석혼축으로 하는 성곽의 축조방법은 시간성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합포성지의 경우 체성부 기저부 폭은 8.8~9m인데, 축성신도에서 기준으로 삼는 체성부 폭 16尺은 당시 포백척(布帛尺) 46.73cm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약 7.5m에 이르고 있어 합포성지의 체성부 폭을 고려하면 흙으로 덧대는 내탁부가 조성되었을 경우 체성부의 폭이 매우 비대해 지는 것으로 가정해 보면 이 합포성지는 토석혼축의 내탁부는 조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합포성지의 체성부는 석축으로만 계단식 내탁부를 조성한 성곽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축성법은 축성신도(築城新圖)의 내용과 같이 1438년(세종 20)년 이전부터 적용되고 있었던 성곽의 축성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해자

해자(垓子)는 성곽의 방어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성 외벽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랑형식으로 마련하며 성벽의 기반약화 방지책으로서 성벽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축조한다.⁹¹⁾ 해자를 굴착할 때 나오는 흙은 토루(土壘), 내탁(內托) 등의 축성재료로 사용하게 되어 축성공력(築城功力)을 절감하게 된다.⁹²⁾

이러한 해자는 조선시대 성곽의 외부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시설로서 군사적 방어시설로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곽 중에서도 병영성에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합포성지에서 해자가 확인된 지점은 마산 합성동 66-39번지, 마산 합성동 72-6번지, 마산 합성동 76-5번지의 이 3개 지점에서만 발굴조사를 통해 해자가 조사·보고되었다.<그림 49>



<그림 49> 합포성지의 발굴조사 현황과 초·중축해자 확인 지점

91)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pp. 694-695, 서울:주류성출판사.

92) 『世宗實錄』卷 102, 世宗 25年 11月 3日 甲寅條, “...(중략)...堀其濠池之土 以填城之內面 隨堀隨築 則不必更用民力於塹濠...(하략)...”.

먼저, 마산 합성동 66-39번지의 해자는 합포성지 북쪽 체성의 외곽에 설치된 해자로 동일지점에 초축해자와 증축해자가 상·하로 중첩하고 있다.⁹³⁾ 초축해자는 해자의 우안(내벽)으로만 호안석축이 설치되어 있고, 좌안(외벽)으로는 기반층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초축해자의 상부에는 증축해자가 존재하는데, 이 증축해자는 양안(내·외벽)에 모두 호안석축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50>



<그림 50> 마산 합성동 66-39 증·개축 해자(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7, p. 47)

이 마산 합성동 66-39번지의 초축해자와 동일한 형태의 해자가 합포성지의 서쪽 체성 내벽부에 위치하는 마산 합성동 76-5번지에서도 확인되었다. 확인된 해자는 성내의 좌안(내벽)에만 호안석축이 설치되어 있고, 우안(외벽)에는 호안석축이 확인되지 않고 가공면인 기반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우안으로는 석축을 시설하지 않고 가공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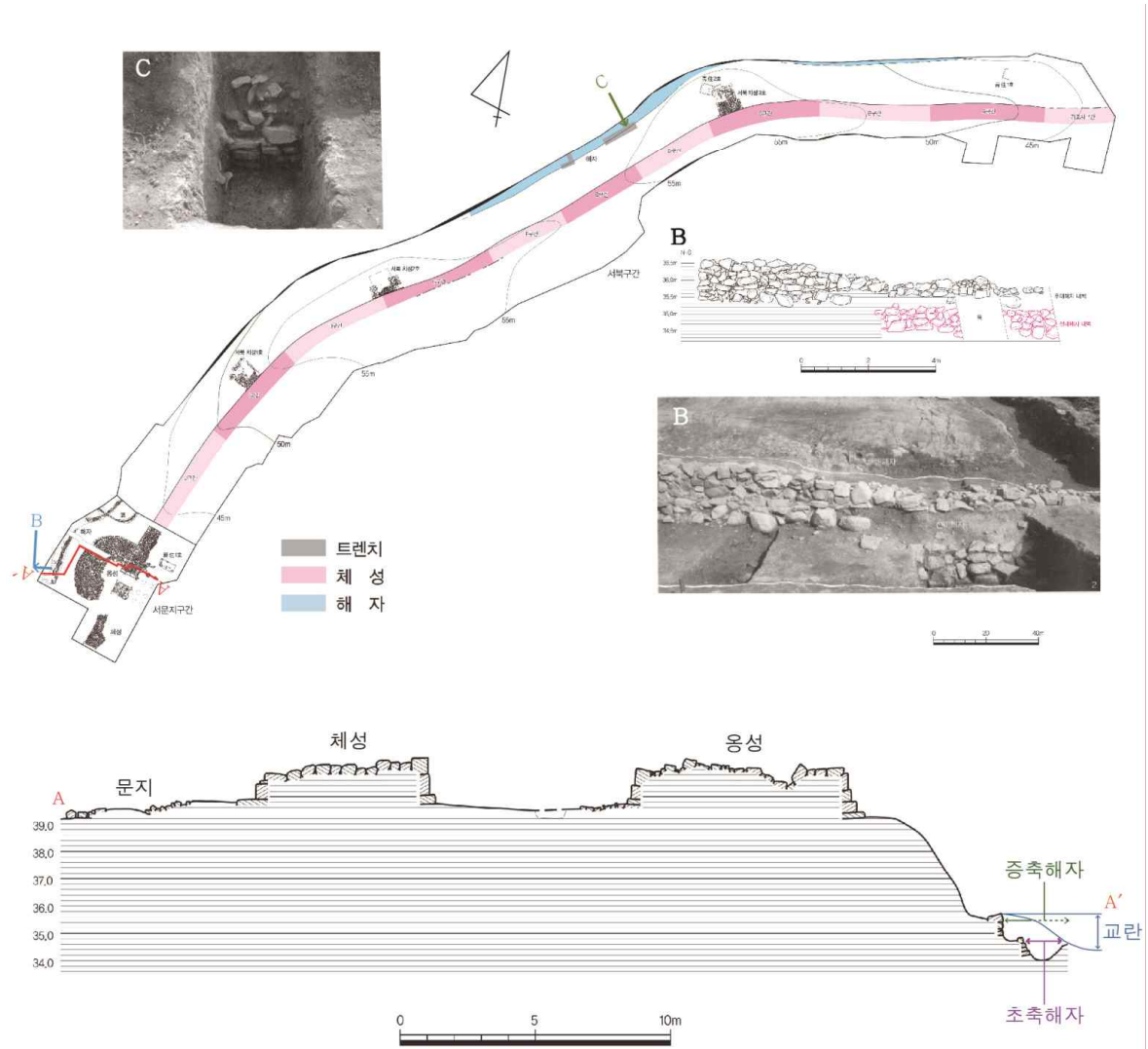


<그림 51> 마산 합성동 75-6 해자 단면(우리문화재연구원, 2019, p. 73)

93)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6, 앞의 보고서, p. 85.

보고서에서는 최하층의 수혈식의 초축해자를 『合浦營城記』의 기록에 근거하여 우왕 4년(1378)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 구상의 수혈이 해자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상부의 석축해자를 합포성지의 초축해자와 증축해자로만 구분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해자의 한쪽만 호안석축이 설치되는 형태의 해자는 경상좌병영인 울산병영성의 북서쪽 체성부 해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림 52>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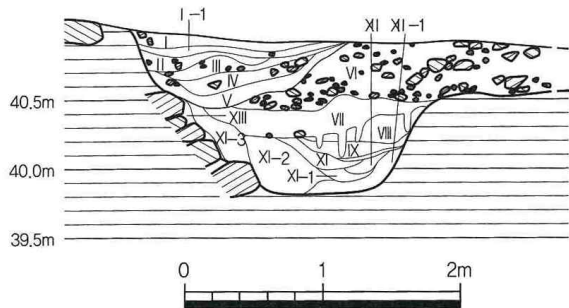
<그림 52> 울산병영성 서문지에서 북문지 사이구간 체성부와 해자(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5, 필자편집 및 가필)

울산병영성 북서쪽 체성부 외곽에서 확인된 초축해자의 규모는 폭 180cm, 깊이 85cm 정도이며, 단면형태는 ‘U’字形이다. 후축해자 상단에서 선축해자 바닥까지의 깊이는 약 2m이다. 초축해자는 내벽(체성부) 방향으로만 석축을 4단 정도 설치하였으며, 외벽은 앞서 살펴본 초축해자와 같이 기반층인 가공면을

94)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5,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서문지 -울산 병영성 서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

초축해자의 상부에는 증축된 해자가 확인된다. 증축해자는 내벽의 호안석축이 잔존하며 외벽의 호안석축은 교란에 의해 유실되었지만, 초축해자 보다 넓은 폭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에 앞서 실시된 시굴조사에서도 체성의 북서쪽 구간에 설치된 해자가 일부 확인되었는데, 그 중 치성 2호와 치성 3호 사이 구간에 해자 내벽석축 시설을 확인한 결과, 석축은 5단 정도가 잔존하였지만, 해자 외벽으로는 석축은 확인되지 않고 기반층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지점 역시 서문지의 초축해자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울산병영성에서도 초축해자와 증축해자가 확인되었으며, 초축해자는 공통적으로 해자의 내벽으로만 석축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3> 울산병영성 서문지에서 북문지 사이구간 초축해자(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5, pp. 90·160)

이상과 같이 경상좌병영인 울산병영성과 경상우병영인 함포성지, 즉 경상도 지역 병영성에서는 공통적으로 초축해자가 확인되었으며, 초축해자의 축조방법은 체성이 위치하는 해자의 내벽으로는 호안석축을 설치하고 외벽으로는 가공면인 기반층을 그대로 사용한 형태이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초축해자의 호안석축 설치하는 바닥에 별다른 지대석의 설치 없이 그대로 석축을 수직상으로 쌓아 올렸는데, 증축된 해자는 평편한 판재의 지대석을 놓고 호안석축을 들여 쌓고 있다.

증축된 해자의 호안석축 조성은 바닥에 판재의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면석을 들여쌓기 하여 석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마산 합성동 66-39번지와 마산 합성동 72-6번지의 해자에서 확인되었다. 이와같이 초축해자와 증축해자의 호안석축 설치 시 지대석의 설치유무가 해자의 축조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 읍성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해자의 축성양

상과 비교해 볼 때 시간성에 따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밀양읍성의 경우, 초축해자는 하상퇴적에 의해 형성된 기반층에 편평한 석재를 지대석으로 놓고 그 안쪽으로 들여쌓기 하여 호안석축을 쌓아 올렸고, 그 상부의 증·개축된 해자는 지대석의 설치 없이 호안석축을 바로 쌓아올렸다.

〈그림 54·55〉 95)



〈그림 54〉 밀양읍성 서문지 해자 증·개축 양상(우리문화재연구원, 2016, p. 89)

이러한 지대석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먼저, 편평한 상면을 조성·유지하여 석축을 쌓아올리기 위해 1차적으로 마련한 시설로 볼 수 있는데, 지대석의 설치유무와 관련하여 통영성의 예를 들어 영진보성의 외성 외벽부 일부구간은 기반층이 풍화암반일 경우 상면을 평탄하게 다듬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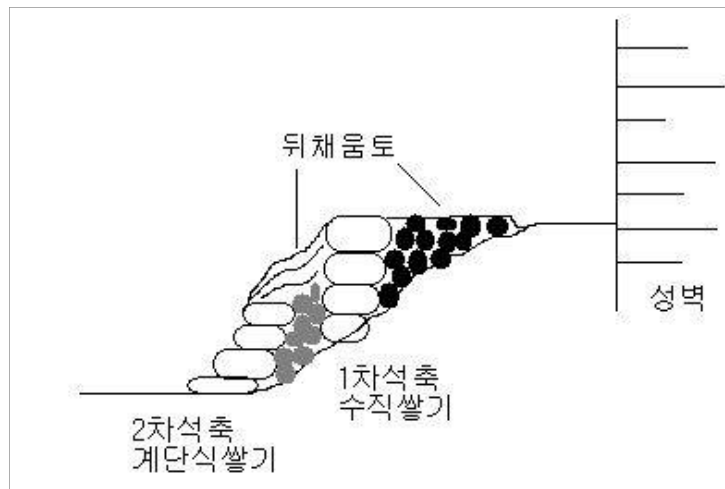


〈그림 55〉 밀양읍성 서문지 초축해자 지대석 설치(우리문화재연구원, 2016, p. 85)

95)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16, 『밀양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구간 내 密陽邑城 西偏 垓字 遺蹟』.

지대석 없이 기반석을 쌓았는데, 체성의 축조시 기반층이 지질학적으로 단단하여 별도의 보강이 필요없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⁹⁶⁾

그러나 해미읍성의 경우 초축(1차석축)해자는 지대석 없이 수직상으로 바닥면에서부터 그대로 쌓아올렸는데, 기반층이 비교적 단단한 기질의 풍화암반이기는 하나 장마나 홍수에 약하여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물길에 생겨 기반층이 깎여 호안석축 하부에 단애면이 형성되어 석축이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해미읍성의 해자는 초축해자의 앞쪽으로 바닥보다 더 낮은 부분에 두께 10cm 가량의 평편한 석재를 지대석으로 놓고 그 상면에 들어쌓기 하여 거력의 석재로 쌓은 후 보다 작은 석재들로 경사지게 석축하였다. <그림 56> 충남 해미읍성 해자 개축(주 97)의 논문, p. 46)



이상의 해미읍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선시대 읍성의 해자에서 지대석의 설치는 곧 견고성을 요구하는 건축물에 대해 보다 정교한 축조기술이 적용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해자의 호안석축 축성법과 관련하여 함포성지의 해자 초축시 지대석을 설치 하지 않은 점과 체성이 위치하는 내벽에만 호안석축을 설치한 점은 매우 독특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만, 경상좌병영인 울산병영성과 경상우병영인 함포성지에서 동일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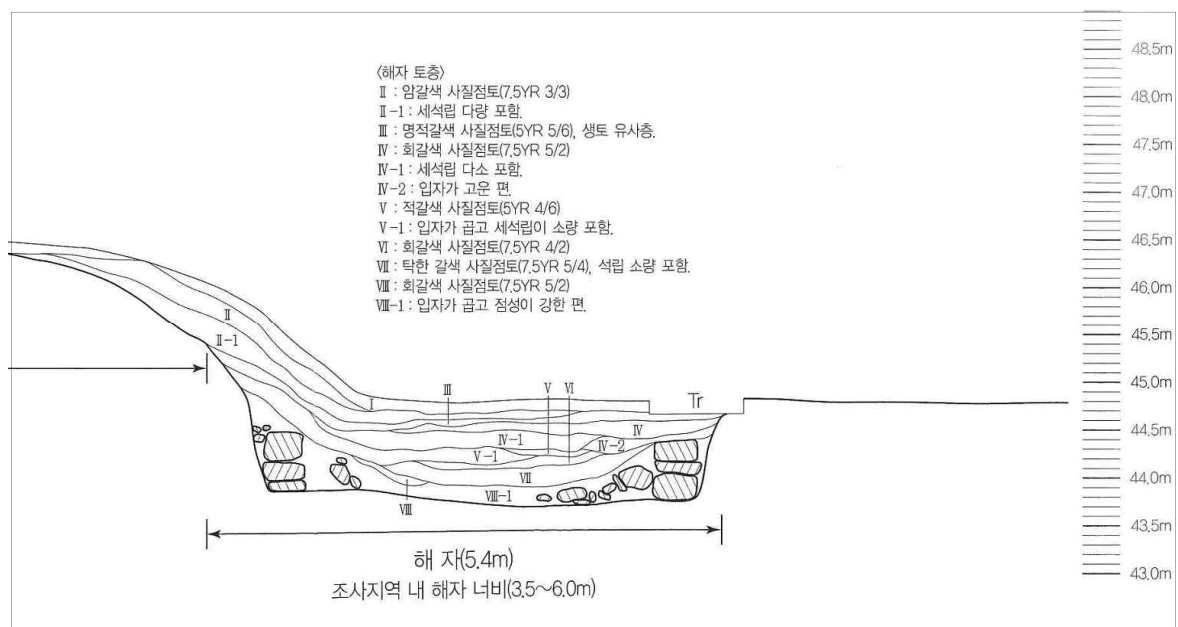
단, 해자의 조성은 기반층을 완만한 ‘U’字形으로 굴착한 후 내·외벽에 호안석축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축조방법으로 생각되므로 함포성지와 울산병영성의 초축해자에서 체성의 내벽에만 호안석축이 조성된 점은 외벽의 호안석축이 재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2010년 울산병영성의 북동

96) 이일갑, 2018,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영진보성에 대한 일고찰」, 『石堂論叢』 71:120.

97) 심정애, 2011, 「조선시대 읍성의 해자에 관한 연구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 석사학위논문. p. 46.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⁹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확인된 해자는 양안에 호안석축시설이 확인되었고, 석축은 별도의 지대석 없이 허튼층으로 쌓은 울산병영성의 서문지부근 초기해자와 동일한 양상이다. 이 점을 고려해본다면, 울산병영성의 서문지구간에서 확인된 해자는 해자의 증·개축 과정에서 초기 해자의 외벽석축을 재사용함에 따라 해자의 한쪽(내벽)에만 호안석축이 잔존하는 형태로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울산병영성의 북동구간의 해자는 초축이후 증·개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자의 양안에 호안석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림 57> 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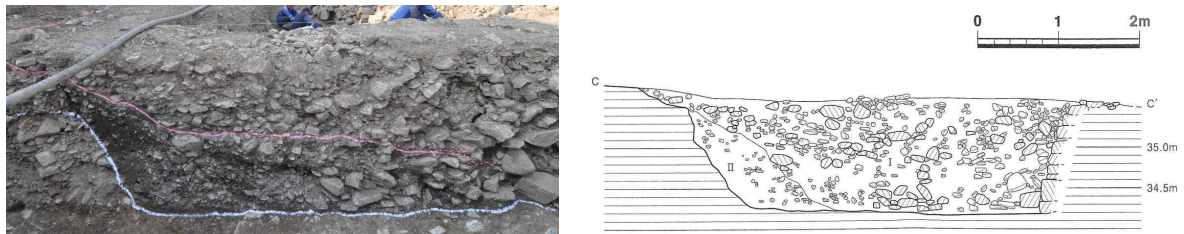
<그림 57> 울산병영성의 북동구간 해자 단면(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1, p. 15)

그리고 이 합포성지의 해자 중 마산 합성동 76-5번지에서 출토된 해자가 중요한 이유는 합포성지의 서쪽 체성 내벽부에서 해자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합성동 72-6번지 해자에서는 증축된 해자만이 확인되었고, 마산 합성동 66-39번지의 해자에서는 초축해자와 증축해자가 동일지점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합포성지는 1916년 제작된 지적원도와 1950년의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합포성지 해자선의 안쪽으로 초기의 합포성이 존재

98)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1, 『경상좌병영성 북동구간 성곽정비사업구역 내 발굴조사 보고서』.

99) 당시 해자에 대한 조사는 폭 2m의 탐색트렌치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이 마산 합성동 76-5번지에서 확인된 합포성지 초기해자의 내부층은 다량의 석재로 메워져 있는 양상인데, 이는 곧 합포성지의 서쪽체성부 증축 시 초기해자의 내부를 의도적으로 메운 뒤 성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8>



<그림 58> 마산 합성동 76-5 초축해자 내부 인위매립층(우리문화재연구원, 2019, p. 37)

따라서 <그림 59> 와 같이 합포성지의 서쪽 체성부에 증축된 해자는 마산 합성동 76-5번지에서 서쪽으로 25m 이격된 지점인 마산 합성동 78-22·78-5·78-23번지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지목된 건물들 역시 해자 폭을 유지하며 남-북 열상으로 건립되어 있어 그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9> 마산 합성동 76-5 초축 및 증축 해자

Ⅵ. 축성시기

1. 출토유물의 검토

합포성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와류이며, 자기류도 일부가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는 합포성지의 체성부 내벽의 초축해자에서 출토된 유물과 최종단계의 해자 및 체성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상호 비교하도록 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마산 합성동 76-5번지의 초축해자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먼저, 독립문양은 종선문과 사격자문 그리고 화문이 확인되었다. <그림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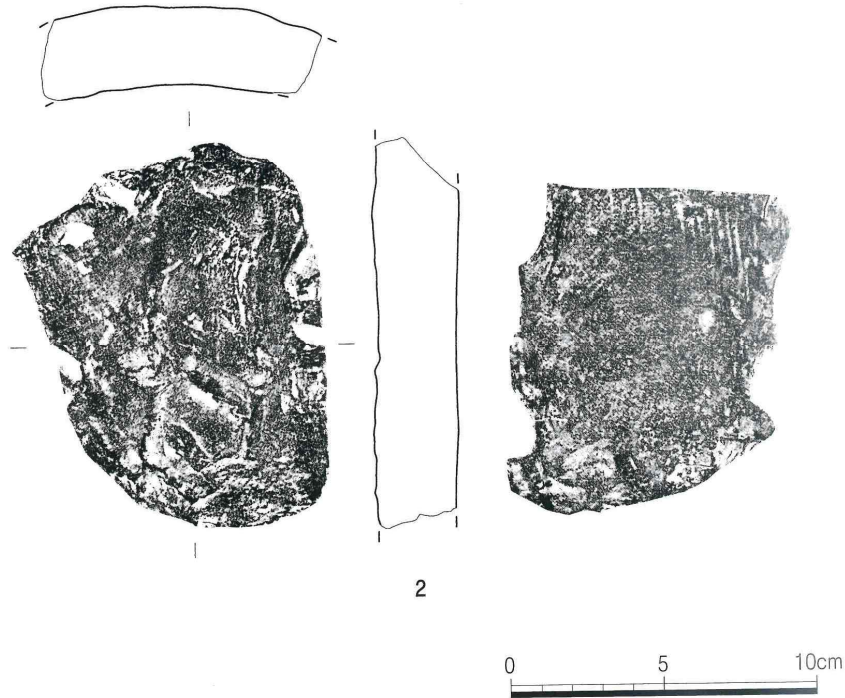
	종선문	종사선문	사격자문	화문
사진				
탁본				

<그림 60> 마산 합성동 76-5 초축해자 내 독립문양 출토기와

이상과 같은 독립문양 형태의 기와는 비교적 조선시대 보다는 고려시대의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는 경향이 강한데, 그 중 종선문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가장 오랜기간 동안 사용된 평기와의 문양이지만, 세부적으로는 타날판의 크기, 타날방향 등에 의해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 종선문 기와의 특징은 복합문양에서 확인되는 종선문과는 달리 종선이 두꺼우며 종선사이의 간격은 넓게 형성되어 있는 태선계의 형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 종사선문의 기와는 타날판에 공백이 많은 격자가 완성되지 않는 형태의 문양으로 기와의 출토위치는 해자의 좌안석축 뒤채움에서 확인되어 해자의 초축시기로 판단되는 기와이기도 하다. 이와 동일한 문양의 기와가 마산 합성동 73-10번지의 치성에서 출토되기도 하였으므로, <그림 61> 마산 76-5번지 초

축해자의 축성연대 또한 합포성지의 북쪽 체성부의 축성시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림 61〉 마산 합성동 73-10 치성 출토 종사선문 기와(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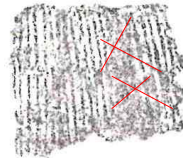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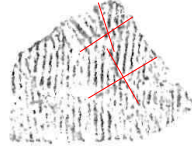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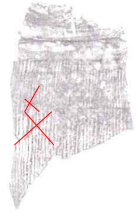
그리고 종선에 'X'가 부가되는 기와의 문양도 확인되었는데, 종선에 'X'가 부가된 문양은 앞서 독립문양에서 변화·발전되는 것으로 기와의 연구성과¹⁰⁰⁾에 따르면 나말여초에 등장하는 문양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중판타날에 부가된 형태이기 때문에 마산 합성동 76-5번지 출토 기와문양과는 제작방법 상 타날판의 규격부터 시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양구성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성에 있어서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이 종선에 'X'가 부가된 기와문양의 보고예가 같이 웅천읍성 남쪽 중축구간(1453년 축성), 기장읍성(1425년 축성), 금단곶보성지(1488년 축성), 동래읍성(1446년 축성) 등에서 출토되고 있어 조선초의 기와문양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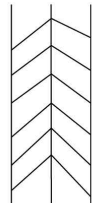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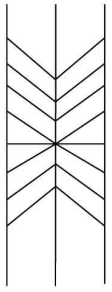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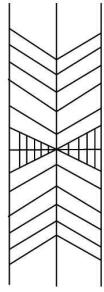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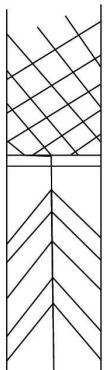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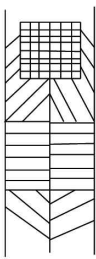
100) 崔晶惠, 1996,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研究 -文樣形態를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p. 50. 그의 형식에 종선에 'X' 문양은 I Aa2로 통일기의 전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김기민, 2008, 「慶南地方 高麗기와 成立期の 樣相과 그 特徵」, 『문물연구』 14:89.

합포성지 초축해자	웅천읍성	기장읍성	금단곶보성지	동래읍성	
				조선전기	조선후기
					

〈그림 62〉 종선에 ‘X’가 부가된 기와문양 출토 성곽유적

그리고 마산 합성동 76-5번지 초축해자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기와문양은 어골문으로 <그림 63>과 같이 크게 단독 어골문과 대칭 어골문, 복합 어골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칭 어골문은 횡대가 부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어골문으로 발전하며 격자문이 같이 시문되기도 한다.

단독 어골문	대칭 어골문		복합 어골문	
				

〈그림 63〉 마산 합성동 76-5 초축해자 출토 어골문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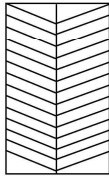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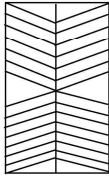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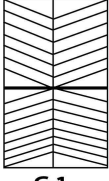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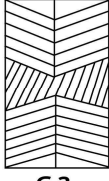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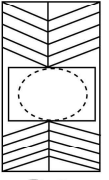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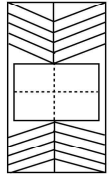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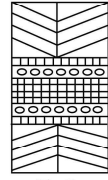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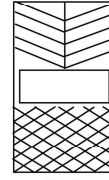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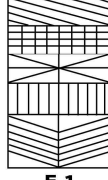
이러한 어골문의 변화양상에 대해 대전 상대동 유적 출토기와를 분석하여 어골문의 문양을 1~3단계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¹⁰¹⁾ 1단계(통일신라말~10세기말)는 독립어골문과 대칭어골문으로 횡대가 출현하지 않으며, 2단계(11세기초~12세기초)는 횡대가 구획되면서 격자문과 선문 등이 다단으로 구획된다. 3단계(13세기 말 이후)는 횡대가 소멸하고 각각의 단위문양들이 복합적으로 배치된다. <그림 64>

101) 姜模英, 2011, 「大田 上垈洞 遺蹟 出土 평기와의 製作技法 -어골문 평기와를 중심으로-」, 大田大學校 大學院 歷史文化學科 碩士學位論文, pp. 48-53.

마산 합성동 76-5번지 초축해자 출토기와 어골문 역시 단독어골문과 횡대가 부가된 대칭 어골문, 어골문에 횡대가 부가되며 격자문과 선문등이 병합되는 복합 어골문이 확인되고 있어 상대동 유적과 비교하여 1~3단계의 기와문양이 모두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산 합성동 76-5번지 초축해자에서 출토된 선문계의 기와문양은 선문 I·II形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선문 I形은 사선이 상·하, 좌·우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 마치 마름모(菱形)의 형태로 확인되며, 마산 합성동 73-4·18번지와 마산 합성동 66-39번지 해자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그림 65> 또한, 울산 병영성 진해루 유적의 성토층에서 선문 I形의 기와문양이 확인되는데¹⁰²⁾, 울산 병영성의 초축연대가 1417년(태종 17)에 해당하기에 조선초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그림 66>

선문 II형은 타날판의 종대를 기준으로 좌우가 사선으로 대칭되는데 <그림 65>, 이는 남원 만복사 출토 正統五年銘(1440년) 기와 문양에서 보이며, 진주 성 공북문¹⁰³⁾과 진주 장흥리 와요지¹⁰⁴⁾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그 시기는 14세기말에서 15세기 중반으로 비정된다.

단계	문양구성	연대
1단계	  A B	10C말
2단계	  C-1 C-2     D-1 D-2 D-3 D-4	11C초반 ~ 12C초반
3단계	 E-1	13C이후

<그림 64> 대전 상대동 출토 어골문 기와 변화양상(주 96)의 논문, p. 54)

102) (財)蔚山文化財研究院, 2004, 『蔚山兵營城鎮海樓』.

103) (財)慶南文化財研究院, 2000, 『晉州城 拱北門』.

104) (財)慶南文化財研究院, 2004, 『晉州 長興里 瓦窯址』.

선문		선문 I 形		
I 形	II 形	울산 병영성 진해루	마산 합성동 73-4 · 18	마산 합성동 66-39번지

〈그림 65〉 마산 합성동 76-5
초축해자 출토 선문기와

〈그림 66〉 선문 I 形 기와 출토유적

마산 합성동 73-5번지 해자에서는 청해파문(靑海波紋)¹⁰⁵⁾이 시문된 기와도 출토되었는데, 이 청해파문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기와문양으로, 앞선 선문 II 形의 직선화가 곡선화되면 청해파문과 동일한 형태로 변화된다. 이 합포성지의 초축해자의 매몰시점이 조선초 성의 중·개축시에 이루어졌을 것을 고려하면, 청해파문의 등장시기는 조선초부터 등장하는 시대편년을 가지게 된다. 〈그림 67〉

합포성지의 서쪽 체성부 내벽부에 위치하는 마산 합성동 76-5번지 출토유물 이외에 지금까지 합포성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 비교적 이른시기로 추정되는 것은 마산 합성동 73-4 · 18번지의 체성부 조사시에 어골문 기와가 출토된 바 있고, 그 외는 조선전기의 선문과 청해파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또한, 최근까지 합포성지에서 발굴조사된 유물의 자기류를 보면 15세기의 분청사기 일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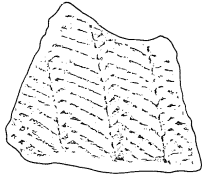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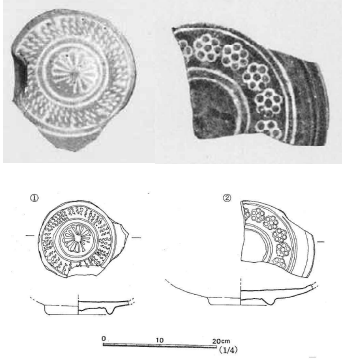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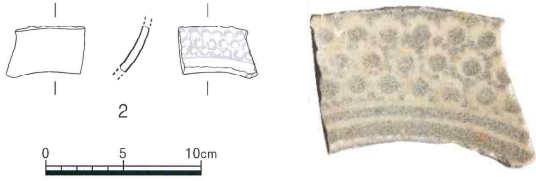
청해파문	

〈그림 67〉 마산 합성동 76-5 출토 청해파문 기와

105) 청해파문(靑海波紋)은 글자와 같이 푸른 바다의 큰 파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 문양은 일본이나 이집트, 페르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이다. 문양의 형태는 동심원의 절반을 물고기의 비늘처럼 규칙적으로 정해서 나란히 늘어놓은 기하 구성문으로 고려시대 기와의 주문양인 어골문(魚骨紋)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따라서, 합포성지 서쪽 체성 내벽부에서 확인된 마산 합성동 76-5번지 초축해자의 축조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자 뒤편에서 출토된 기와편과 동일한 기와가 마산 합성동 73-10번지 치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체성의 축조시기와 유사한 조선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산 합성동 66-39번지의 초축해자 벽석 사이에서 분청사기편이 출토된 점 또한 그 축조시기가 조선전기에 이루어졌음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8>

어골문 기와	자기류(15세기 전반)	
		
		마산 합성동 66-39번지 (한국문화연구원, 2017, p. 57)
		
마산 합성동 73-4·18번지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 p. 74·78)		마산 합성동 72-6번지 (경남문화재연구원, 2018, p. 55)

<그림 68> 합포성지 발굴조사 출토유물 비교자료

이상과 같이 합포성지 서쪽 체성 내벽부에서 확인된 초축해자의 축조시기는 해자 뒤편에서 출토된 유물의 축조시기로 보아 조선초인 15세기초로 비정할 수 있으며, 초축해자 내부에서 출토되는 기와의 문양구성은 고려시대의 패턴 문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초축단계에서 고려시대의 기와가 초축시의 합포성지에 사용되었고, 조선초 합포성의 증축시 해자 내부를 매립할 때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합포성지 체성부 및 해자의 축조시 출토된 유물이 분청사기편과 대청사선문계의 기와류가 출토되는 점은 합포성지의 초축시점이 조선초로 비정된다고 판단된다.

2. 문헌사료의 검토

합포성지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1378년(고려 우왕 4)에 배극렴(裴克廉, 1325~1392)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朝鮮王朝實錄』¹⁰⁶⁾과 『東文選』(1478년에 편찬)의 이첨(李詹, 1345~1405)의 「合浦營城記」에 마산의 합포영성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성을 현 합포성지로 비정하고 있으며, 또한 <표 3>와 같이 여타 모든 문헌기록에서 府에서 서쪽 10~13里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우병영(慶尙右兵營)이 현 합포성지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III장의 경상우병영의 위치에 대해서는 문헌기사와 지명고 검토를 통해 고려말 1378년 배극렴에 의해 축성된 합포영성(合浦營城)은 합포성지의 서남쪽인 사율리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후 조선시대 현재의 합포성지로 병영을 이전한 것으로 비정하였다.

그렇다면 현재의 합포성지로 병영이 이전한 시기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의 1430년(세종 12)에 도순문사(都巡問使) 최윤덕(崔潤德)이 경상도의 연일·곤남·합포와 전라도의 임피·무안·순천과 충청도의 비인·보령 등의 성을 쌓는 것을 감찰하였다는 기록¹⁰⁷⁾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때 현재의 합포성지터에 성을 축성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1431년(세종 13) 합포의 축성이 지연되어 연일현의 군이를 보내기로 결정까지도 하였지만¹⁰⁸⁾, 결국 성의 축성사업이 시작된 2년 후인 1432년(세종 14) 까지도 합포·곤남·연일의 축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경상도 감사 조치(曹致)를 파면하기에 이른다.¹⁰⁹⁾ 그리고 1434년(세종 16) 경상도 내상(內相)·연일·곤남 등의 성을 5년이 지나도 다 쌓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¹¹⁰⁾하고 있다. 그 내용에 “합포·곤남·연일 등 각 고을의 성보(城堡)를 경인년에 쌓기 시작하여 이제 5년을 지나도 아직 쌓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1430년(세종 12)의 축성개시 이후 5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인년은 경술년(1430)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106) 『太祖實錄』 卷 2, 太祖 1年 11月 26日 癸卯條, “門下左侍中星山伯 裴克廉卒…(중략)…牧晉 尙二州 又尹雞林和寧 皆有惠政…(중략)…出帥合浦 築城開陞 安集流亡…(하략)…”

107) 『世宗實錄』 卷 50, 世宗 12年 12月 29日 乙未條, “都巡問使崔潤德 監築慶尙道 延日·昆南·蛤浦、全羅道 臨陂·務安·順天、忠淸道 庇仁·保寧等城 是役也…(하략)…”

108) 『世宗實錄』 卷 54, 世宗 13年 10月 13日 甲辰條, “…(중략)…延日縣則舊城猶完…(중략)…合浦則都節制使本營一方巨鎮 昆南則新設邊鎮 不可不築 請移延日之軍 赴合浦 昆南 迨冰未凍畢築…(하략)…”

109) 『世宗實錄』 卷 55, 世宗 14年 1月 5日 乙丑條, “慶尙道監司曹致罷 以築合浦昆南延日城稽緩也”.

110) 『世宗實錄』 卷 65, 世宗 16年 7月 27日 壬寅條, “…(중략)…慶尙道 內廂·延日·昆南等各官城堡 歲庚寅始役 經今五年 尙未畢築…(하략)…”.

이 기록의 경상도 내상(內相)이 합포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되면, 합포 성지의 축성은 1434년까지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합포 성지의 축성완공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단정할 수 없으나, 1434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축성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와 같이 국방의 경계태세를 굳건히 갖추기 위한 병영성의 축성공사가 지연되었던 이유는 기존의 병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영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합포성지가 축성되는 시점은 울산의 경상좌병영이 이 합포지역으로 병합됨에 따라 경상도병영이 합포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시기이기도 하며, 이 합포성지의 축성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경상좌도병영이 울산으로 다시 복설되는 점도 합포성지의 축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합포성지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표 3>와 같이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데, 성곽의 둘레와 관련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문헌의 기록에서는 규모 단위를 步와 尺을 혼용하여 기록하고 있기도 하며, 그 수치에 있어서도 약간 상이하게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를 단정하기 힘들다. 다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성의 둘레가 4,291尺, 높이 15尺으로 기록되어 있는 『慶尙道續撰地理志』(1469)를 기점으로 성의 둘레는 통일되고 있다. 이는 합포성지가 위치하는 경상우병영이 1603년 진주로 이설하기까지 성곽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의 1451(문종 1)의 기록에는 합포 내상성의 성곽 둘레는 3,775尺, 해자 둘레는 4,050척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451년에서 1469년 사이 합포성지는 증축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文宗實錄』의 4,291尺이 성곽둘레를 나타낼 경우는 516尺, 해자둘레를 나타낼 경우는 231尺이 확장된 것이다. 합포성지는 《지적원도》 상에서 둘레가 1,741m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4,291척을 미터법으로 환산하게 되면 1尺은 40.5cm이다. 따라서 합포성지의 용적은 1尺이 46.73cm인 포백척(布帛尺)에 가까우며, 이는 여타 조선시대 읍성의 둘레가 포백척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합포성지의 확장은 최소 107m에서 최대 241m에 이르는데, 이 정도의 증축규모는 앞서 합포성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서쪽 체성 내벽부 초축해자(마산 합성동 76-5)¹¹¹⁾와 북동쪽(마산 합성동 66-39)¹¹²⁾ 체성 외부의 초축해자와 증축해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11)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112) (재)한국문화재연구원, 2016, 앞의 보고서.

<표 3> 문헌사료에 기록된 경상우병영의 위치와 규모

文獻資料 (편찬연대)	명칭	축성연대	府에서거리	위치	체성 규모				성문	여장	우물	비고
					재료	둘레	높이	폭				
慶尙道地理志(1425)	右道營城	-	-	昌原	-	588步 4尺					3	內廣二十三結五卜
世宗實錄地理志(1454)	慶尙兵馬節制使營城	-	-	合浦	-	588步	-	-	-		3	海口四里
文宗實錄(1451)	合浦內相城	-	-	昌原府	-	3,775尺	12尺6寸	-	4 웅성	高1尺8寸 村635개	7	敵臺20 해자둘레 4,060尺
慶尙道續撰地理志(1469)	內廂城	庚戌(1430)	西11里	斜栗里	석축	4,291尺	15尺	-	-	-	5	軍倉 恒屬鎮軍20名 赴防正兵4旅內, 奇兵200名, 步兵300名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右道兵馬節度使營	-	西13里	古合浦縣	石城	4,291尺	15尺			-	5	有將星樓
	節度使舊營	-	-	月影臺北	石築	594步 單三尺	仞有4尺	丈有7寸	4	2尺間	-	李詹記, 義滿倉, 會盈庫
東國輿地志(1660~1674)	右道兵馬節度使營	-	西13里	古合浦縣	石城	594步	-	-	4	-	-	恭愍王時合浦舊營火于兵初辛禡移王移設于北副元師裴克廉築...本朝右道節度使營...移營于晉州
	合浦舊營	-	西28里	斜栗里	-	540步	-	-	-	-	-	-
海東地圖(1730~1760)	右兵營	-	-	古合浦	石築	4,291尺	-	-	-	-	5	裴克廉築 軍人837名
大東地志(1863)	古右兵營城	1378(초축)	西10里	-	-	4,291尺	-	-	-	-	5	月影臺北, 太宗(1401~1418)設, 宣祖(1567~1608)移設 晉州
昌原邑誌(1899)	右兵營舊城	-	西10里	-	石築	4,291尺	-	-	-	-	5	移營晉州廢城 存
增補文獻備考 ¹¹³⁾ (1908)	右兵營舊城	-	西13里	-	石築	4,291尺	15尺	-	-	-	-	今廢
慶尙南道輿地集成(1913)	右兵營舊城	-	西10里	-	石城	4,291尺	-	-	-	-	5	廢堞猶存
嶠南誌 ¹¹⁴⁾ (1939)	右道兵馬節度使營	-	13里	古合浦縣	石築	4,291尺	15尺	-	-	-	5	-

※ 舊병영(■) 現합포성지(■)

113)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8, 『(국역)증보문헌비고』.

114) 景仁文化社, 1990, 『韓國地理風俗誌叢書』, 嶠南誌卷之七十一.

이는 북동쪽 체성 외부에서 확인된 해자는 초축해자와 증축해가 동일지점에서 확인되어 해자의 증축만이 이루어졌고, 서쪽 체성 내벽부에서 확인된 해자는 초축해자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쪽 체성의 외부에 증축해자가 초축해자에서 서쪽으로 25m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서쪽 체성부의 확장 규모를 고려하면 문헌기록의 규모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慶尙道地理志』(1425)에는 성의 둘레를 588步 4尺이라 기록하고 있고¹¹⁵⁾, 『慶尙道地理志』를 참고하여 기록된 『世宗實錄地理志』(1454)¹¹⁶⁾에도 역시 588步로 기록하고 있다.¹¹⁷⁾ 당시 1步를 6尺으로 환산할 경우 3,532尺과 3,528尺이다. 앞서 합포성지의 성곽규모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慶尙道地理志』의 편찬연대가 1425년이기 때문에 당시는 합포병영이 현재의 합포성지로 이설되기 전인 사율리 일대에 소재하였던 고려말에 축성된 합포병영성의 둘레로 볼 수 있다.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우도병마절도사영(右道兵馬節度使營) 외에 월영대(月影臺)의 북쪽에 위치하는 절도사구영(節度使舊營)이 언급되고 있는데, 절도사구영의 성곽 둘레는 594步 3尺이라 하여 1步를 6尺으로 계산하면 3,567尺이 된다. 이는 앞서 『慶尙道地理志』의 성곽 둘레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는 이전 병영성의 성곽 둘레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東國輿地志』(1660~1674)의 古蹟條에 ‘高麗恭愍王時 合浦舊營火于兵辛禍初移設于’이라 하여 고려말 공민왕때(1351~1374) 합浦舊營이 화재로 소실되어 고려 우왕초(1365~1389)에 병영을 이설하였다고 하며, 합포구영은 성곽의 둘레가 540步이며, 우도병마절도사영성은 둘레가 594步로 기록되어 있다. 이 합포구영은 앞서 살펴본 환주산 일대에 소재하였던 고려시대의 병영성이며 규모는 尺으로 환산할 경우 3,240尺으로 가장 작은 규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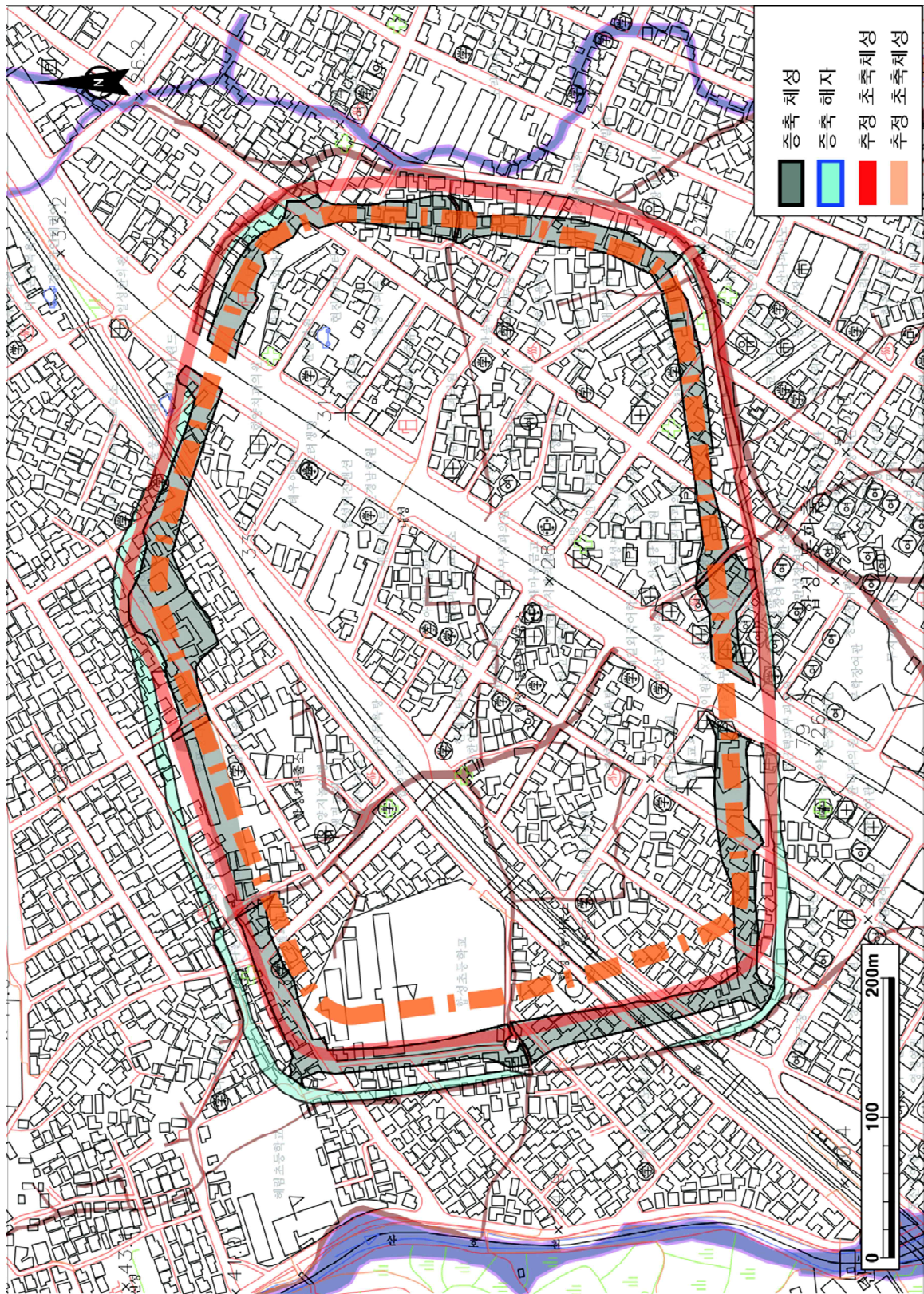
이상 합포성지의 축성시기를 문헌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초축해자와 증축해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합포성지의 축성은 1434년 이후의 어느시점에 완공되었으며, 초축단계는 체성의 둘레가 3,775尺, 해자의 둘레가 4,060척으로 축성되었다. 이후 1451년에서 1469년의 사이에 합포성지는 서쪽 체성을 증축함과 동시에 해자의 확장 및 증·개축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69>

115) 『慶尙道地理志』 “右道營城 在昌原 周廻五百八十八步四尺 內廣二十三結五ト 井三”.

116) 『世宗實錄地理志』는 1454년(단종 2)에 편찬되지만, 지리지의 내용은 『新撰八道地理志』를 기본으로 하였고, 경상도지역은 1425년(세종 7)에 편찬된 『慶尙道地理志』를 기초로 하고 있다.

117) 『世宗實錄』 卷150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昌原都護府條, “...(중략)...兵馬節制使營城在合浦 距海口四里 周回五百八十八步 內有井三...(하략)...”.



〈그림 69〉 합포성지의 조축과 증축시 평면형태 추정도

VII. 맺음말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합포성지(合浦城址, 도유형문화재 제153호)에 대해 문헌사료와 지적원도 및 항공·위성사진 등을 통해 그 위치와 변화상을 파악하였고,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합포성지의 성곽 축조방법과 출토유물을 문헌사료와 함께 비교·검토하여 합포성지의 축성시기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 합포성지가 위치하는 마산지역은 남해안에 연해 마산만이 깊게 내만하여 양항(良港)이 발달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형조건으로 고려시대부터 석두창(漕倉)이 설치되어 사회·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 마산지역에는 일찍이 병영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인년(1350) 이후 남해안 일대에 빈번하게 침구(侵寇)하는 왜구(倭寇)로 인해 이 마산지역의 병영은 수차례의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지만 1374년에 일어난 대규모의 침략으로 병영은 더 이상 복구가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의 병영소재지는 회원현성지(경상남도 기념물 제88호)로 비정되는데, 이첨(李詹, 1345~1405)의 「合浦營城記」에 등장하는 1378년 배극렴(裴克廉, 1325~1392)에 의해 축성되었다는 합포영성은 사율리(斜栗里), 즉 반월산(현 마산 MBC 소재지) 일대로 추정된다.

이후 병영은 현재의 합포성지로 이설하여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며, 축성시기는 『朝鮮王朝實錄』의 1430년 최윤덕(崔潤德, 1376~1445)에 의해 초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434년까지도 완공되지는 못하였지만 이내 축성공사는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합포성지가 축성될 당시 경상도의 연해지역에는 읍성(邑城)의 축성이 활발하게 성행하였고, 성곽의 축성방법은 1438년에 내려진 축성도본의 내용과 같이 기저부를 16尺의 폭으로 조성하고 내벽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축성도본의 축성법과 동일한 형태로 확인되는 점과 출토유물에 있어서도 조선전기의 분청사기편과 대청사선문, 종선에 ‘X’, 청해파문이 시문된 기와편이 여타 주변 조선시대의 성곽유적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합포성지의 평면형태와 규모에 관련해서는 1916년도에 측량된 《지적원도》와 1950년대의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는 합성리(合城里)의 성곽과 해자는 합포성지의 최종단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된 마산 합성동 76-5번지 초축해자의 존재는 문헌사료에 등장하는 합포성의 규모와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新자료로서 합포성의 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성곽 증축의 시기에 대해서는 『文宗實錄』에 성곽의 규모가 3,775~4,050尺으로 기록되어 있고, 『慶尙道續撰地理志』에는 4,291尺으로 기록하고 있어, 1451년에서 1469에 성의 증·개축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합포성지의 초축해자는 그 축조방법이 체성이 위치하는 내벽에만 호안석축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울산의 경상좌병영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해자의 한쪽으로만 호안석축을 설치한 경상도병영성의 초축해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향후 발굴조사 시 검토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합포성지는 울산의 경상좌병영과 함께 조선전기의 경상우병영으로서 육군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선조 25)으로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어 결국은 1603년(선조 36) 5월 진주로 병영을 이설하게 된다. 따라서 합포성지는 더 이상 병영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폐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조선후기의 고지도에 합포성지가 古·舊·旧兵營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필자는 경상우병영인 합포성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문헌사료의 불명확함과 발굴조사 자료의 부족으로 합포성지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합포성지에 대한 발굴조사성과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울산 경상좌병영과 진주 경상우병영, 강진 전라병영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하삼도 병영성의 축성과 공간구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地理志』, 『高麗史』, 『大東輿地圖』
『新增東國輿地勝覽』, (재)민족문화추진회.
『慶尙道續撰地理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08.
『東國輿地志』,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08.
『慶尙道地理志』,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007.
『1872年 地方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0512.
『營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2184.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서울:太學社.

2. 보고서

강진군·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재)한울文化財研究院, 2019, 『강진 전라
병영성의 역사적 의의와 보존·관리』, 강진 전라병영성 학술대회.
경남대학교 박물관, 2010, 『馬山 合浦城址』, 정밀지표조사보고.
(財)慶南文化財研究院, 2018, 『창원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로 확장구간 내 창원 마
산 합포성지 해자』.
(財)慶南文化財研究院, 2000, 『晉州城 拱北門』.
(財)慶南文化財研究院, 2004, 『晉州 長興里 瓦窯址』.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1, 『鎭海 熊川邑城 -鎭海市 熊川邑城 整備復元을
爲한 試掘調査 報告書-』.
_____, 2006, 『馬山 合浦城址 -마산 합성동 114-1·73-10번
지 건축물 신축예정지 試掘調査 報告書-』.
_____, 2010, 『진해 웅천읍성 복원사업부지내 鎭海 熊川邑城
II』.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1, 『馬山 合浦城址 基礎調査 報告書』.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16, 『밀양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구간 내 密陽邑城 西偏
垓字 遺蹟』.
_____, 2019, 『창원 마산합성초등학교 내 강당건립부지 慶尙右兵營
(合浦城址) 垓子』.
(財)蔚山文化財研究院, 2004, 『蔚山兵營城鎭海樓』.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1, 『경상좌병영성 북동구간 성곽정비사업구역 내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5, 『울산 경상좌병영성 서북치성 1호 주변 유적-울산 병영성 북문지~서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서북치성 1호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5,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서문지 -울산 병영성 서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동대문운동장 유적 I ~Ⅲ-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부지 발굴조사-』.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6, 『마산 합성1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부지 내 昌原 合浦城(慶尙右道兵營城) 垓子』.

3. 도록

국립진주박물관, 2013, 『진주성도晉州城圖』, 2013년 특별전.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영남대박물관 소장 韓國의 옛地圖』, 도판편.

4. 단행본

국방부 편찬연구소, 2006, 『조선시대 군사전략』.

농촌진흥청 영남작물시험장·농업기술연구소, 1976, 『정밀토양도(마산시, 진해시 및 창원군)』.

馬山市史編纂委員會, 1991, 『馬山市史』.

민공기, 2000, 『昌原都護府圈域 地名研究』, 서울:景仁文化社.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서울:주류성출판사.

沈奉謹, 1995,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학연문화사.

한글학회, 2002, 『한국지명총람』 8, 경남편·I.

한삼건편저, 2017, 『울산지역 성곽연구』, 울산대학교출판부.

허정도, 2005,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일제강점기의 마산-』, 서울:신서원.

5. 논문

- 甘炳訓, 2013, 「朝鮮前期 慶尙右兵營의 變遷過程과 防衛體制」, 경남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姜模英, 2011, 「大田 上垔洞 遺蹟 出土 평기와의 製作技法 -어골문 평기와를 중심으로-」, 大田大學校 大學院 歷史文化學科 碩士學位論文.
- 권순강, 2018, 『경상도 남부지역 읍성의 축조양상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 구산우, 2017, 「고려시기 성곽에서 발견된 기와 명문의 종합적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0:307-351.
- 김기민, 2008, 「慶南地方 高麗기와 成立期の 樣相과 그 特徵」, 『문물연구』 14:63-102.
- 김원규, 2015, 「합포병영성과 마산」, 『가라문화』 27:191-230.
- 朴喜潤, 2000, 「開港以前 馬山市 都市形成 및 變化過程에 關한 研究」, 漢陽大學校 都市大學院 都市開發經營學科 碩士學位論文.
- 沈奉謹, 1992, 「馬山 茲山城址와 合浦城址에 대하여」, 『擇窩 許善道先生停年紀念』. pp. 1075-1092.
- 심정보, 2011, 「朝鮮 前期 邑城의 築造計劃과 熊川邑城에서의 適用事例 檢討」, 『웅천읍성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 pp. 103-135, 창원시 웅천읍성 학술대회.
- 심정애, 2011, 「조선시대 읍성의 해자에 관한 연구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 석사학위논문.
- 吳宗祿, 1985, 「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上, 『震檀學報』 59:77-114.
- 劉東鎬, 2014, 「朝鮮後期 地方軍制의 變化와 下三道 兵營 運營」, 忠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李頌, 2004, 「고려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103-113.
- 이일갑, 2007, 「마산 합포성지에 대한 소고-합포성지 치성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12:113-148.
- _____, 2007, 「慶南地域 沿海邑城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8,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영진보성에 대한 일고찰」, 『石堂論叢』 71:111-148.
- 정용남, 2014, 「경남지역 조선시대 성곽 축조방법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원석, 2005, 「地籍原圖를 활용한 邑城空間의 역사지리적 복원:경상도 읍성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7.2:74-92.

崔晶惠, 1996,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研究 -文樣形態를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한정훈, 2004, 「고려시대 漕運制와 마산 石頭倉」, 『한국중세사연구』 17:27-59.

許正道, 2000, 『近代期 馬山の 都市變化過程 研究』, 蔚山大學校大學院 建築學科 博士學位論文.

6. 인터넷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사, 고려사절요 (<http://db.history.go.kr/korea>)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지적아카이브 (<http://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A Study on the Happo Fortress Site as the Right Barracks of Gyeongsang in the Early Joseon Dynasty

Son Sung Won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of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Bong Won)

(Abstract)

This Research, the examine the geographic location and changing patterns of the Happo Fortress Site(cultural property No. 115), which functions as the Right Barracks of Gyeongsang in the Early Joseon, based on its historical materials in literature, original cadastral maps, aerial and satellite photographs. In addition, 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construction and extension time of the site by comparing and reviewing its construction methods and artifacts excavated there in several excavation surveys.

The Masan area where the Happo Fortress Site was located had Seokduchang, one of the 12 tribute granary in Goryeo Dynasty, thus being early to install and manage barracks(estimated at the Hoewonhyeon Fortress Site in Masan) as a social and economic center. The Masan area was thus subjected to the most frequent cases of Japanese invasion. In 1374(the 23rd year of King Gongmin's reign in Goryeo), there was a massive Japanese attack, which rendered the restoration of the barracks infeasible no longer. As a consequence, the barracks were relocated to Sayul-ri, the area around the current Mt. Banwol(where the current Masan MBC station is located). These seem to be Byeongyeongseong in "Happoyeongseonggi".

Entering Joseon Dynasty, the barracks were relocated to the current Happo Fortress Site. Its construction began in 1430 and ended in 1434(the 16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based on the record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round the time when the Happo Fortress Site was built, there were active

projects of building a fortress along the shores of Gyeongsang Province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method of a physical structure in "Chukseongdobon" distributed in 1438(the 20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The excavation surveys found that the construction method of a fortress was also reflected in the site, as well. The artifacts excavated at the site in the excavation surveys include buncheong ceramics and roof tiles of the Early Joseon. These artifacts were also found in other fortress sites from Joseon. Roof tile pieces from Goryeo were found inside the early moat and they were estimated to have been came in the disposal process and not included as artifacts from the construction stage of the Hapcho Fortress Site.

The "Original Cadastral Map" measured in 1916 and the aerial photographs taken in the 1950s show that the fortress and moat of the Hapcho Fortress were from the final stage. The early moat(75-5 Hapcho-dong, Masan) whose presence was confirmed through an excavation survey implies that there was the Hapcho Fortress at the early stage.

As for the extension time of the Hapcho Fortress, there were records about its size at 3,775~4,050 cheoks in 1451(the first year of King Munjong's reign)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at 4,291 cheoks in *Gyeongsangdosokchanjiriji*(1469). These records indicate that the extens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fortress happened between 1451 and 1469. The size of the extension was estimated based on the conversion of Pobaekcheok(1 cheok=46.73cm), and it was a small-sized extension project at approximately 107~241m done at parts of the western physical structure.

The Hapcho Fortress Site served as an army base as the Right Barracks of Gyeongsang along with the Left Barracks of Gyeongsang in Ulsan during the early Joseon. After Imjinwaeran broke out in 1592(the 25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it fell to the enemy of the Japanese invaders and eventually moved to Jinju in May, 1603(the 36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The Hapcho Fortress performed its functions as barracks no longer and was closed, which is based on its indication as old or former barracks on the old maps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